

중학교

자습서

교과서 공부에 자습서는 필수지!



정답과 해설

◆ 본책

- 1. 문학과이 만남 2
- 2. 바람직한 언어생활 9
- 3. 세상을 이해하는 힘 15
- 4. 갈등을 넘어 21
- ◆ 복습 노트 29
- ◆ 시험 대비 49

1 문학과의 만남

(1) 시의 표현

3월

꼭꼭 확인 문제 44쪽

01 ④ 02 ⑤ 03 ④

- 01 6연을 읽고 떠올릴 수 있는 풍경은 ‘저녁 무렵 산과 들의 눈이 녹은 모습’이 아닌, ‘점심 무렵 산과 들의 눈이 녹은 모습’이다.
- 02 이 시의 전반부에서는 봄눈이 산과 들을 뒤덮고 나직하게 물소리가 흐르는 포근하고 고요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으며, 후반부에서는 푸른 새싹이 생기 있게 돌아난 활기차고 생동감 넘치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시끄러움과는 거리가 멀다.
- 03 이 시는 봄눈이 내린 풍경의 아름다움과 눈이 녹은 자리에 돌아난 새싹의 생동감을 비유법을 통해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봄눈’(원관념)을 ‘이불’(보조 관념)에, ‘물소리’(원관념)를 ‘자장가’(보조 관념)에, ‘파란 싹’(원관념)을 ‘아이들’(보조 관념)에 빗대어 대상을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으며, ‘해’와 ‘파란 싹’을 사람처럼 표현하고 있다.

하늘의 별 따기

꼭꼭 확인 문제 51쪽

01 ③ 02 ①

- 01 이 시에서 ‘별’은 사람들이 동경하고 소유하고 싶어 하는 대상, 제자리에 있을 때 아름답고 의미 있는 대상을 상징한다.

2 정답과 해설

- 02 ‘별’과 대조적인 의미를 갖는 시어는 ‘돌’이다. ‘별’은 멀리서 아름답게 빛나며 사람들의 동경을 받는 대상이지만 ‘돌’은 가까이서 볼 수 있으며 시들어 생기를 잃어버려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대상이다.

오우가

꼭꼭 확인 문제 57쪽

01 ④ 02 ③

- 01 작가는 ‘물, 바위, 소나무, 대나무, 달’을 벗 삼아 살아가면서, ‘바위’의 변치 않음을 예찬하고 있다. 이렇게 자연물에 대해 긍정적이고 예찬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쉽게 변하는 ‘꽃’과 ‘풀’에 대해서는 앞선 자연물들을 대할 때와는 다른 태도를 보여 준다.
- 02 시조는 4음보의 율격과 일정한 글자 수가 반복되어 운율이 시의 표면에 뚜렷하게 드러난다.

소단원 핵심문제

64~65쪽

01 ② 02 ② 03 ③ 04 ④ 05 ④ 06 ② 07 ② 08 ④
 09 사람이 아닌 ‘해’를 사람처럼 표현한 의인을 사용했다. 10 원관념은 ‘봄눈’이고 보조 관념은 ‘이불’이다. ‘봄눈’을 ‘이불’에 빗대어 표현하면서 하얀 ‘봄눈’이 산과 들을 포근하게 뒤덮은 모습을 참신하고 구체적으로 나타냈다. 11 ‘별’은 소유하는 순간 시들고 생기를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별’이 지닌 아름다움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참는 것이다. 12 (나)의 ‘별’과 ‘돌’은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소재들이다. 상징은 추상적인 의미를 구체적인 대상을 활용해 인상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다.

- 01 (가)에는 봄눈이 내린 뒤의 풍경 변화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려 내고 있다.
왜 틀렸을까? ① (가)의 제재는 ‘봄눈이 내린 풍경’이다.
 ③ (나)에서는 계절감을 드러내는 시어를 찾을 수 없다.
 ④ (나)에서 엄마가 희생하는 모습은 드러나지 않는다.



⑤ (가)와 (나)에는 3음보의 울격이 드러나지 않는다.

02 (가)에는 은유, 직유, 의인과 같은 비유적 표현이 사용되었다. ②는 상징에 대한 설명이다.

✓ 개념-원리 체크

• 비유: 나타내려고 하는 생각이나 사물을 다른 사물에 빗대어 표현
원관념 보조 관념



- 직유: 원관념과 보조 관념을 직접 연결하여 비유함.
- 은유: 원관념과 보조 관념을 직접 연결하는 말이 없고, 대상의 본 뜻을 숨기고 겉으로 비유하는 대상만 제시함.

03 ㉔은 '봄눈'을 하얗고, 무엇인가를 덮는다는 유사성을 지닌 대상인 '이불'에 은유적으로 빗댄 표현이다.

04 [B]는 의인이 쓰인 구절이다. '꽃도 활짝 웃는다.'는 사람이 아닌 '꽃'을 사람처럼 표현하고 있다.

05 상징이 쓰인 구절에는 원관념과 보조 관념이 함께 드러나지 않고 보조 관념만 제시된다.

06 '별'은 멀리서 아름답게 빛나고 사람들이 동경하고 소유하고 싶어 하는 대상이고, '돌'은 가까이 있으며 시들어 생기를 잃어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대상이다.

왜 틀렸을까? ① '별'은 그것을 소유해 '돌'이 되는 순간 가치를 잃는다.

③ 제자리에 있을 때 그 의미를 지니는 것은 '별'이다.

④ 아이가 동경하고 갖고 싶어 하는 것은 '별'이다.

⑤ '별'은 멀리 있는 존재, '돌'은 가까이 있는 존재이다.

07 (나)에는 '상징'이 쓰였는데, '번개와 같이 떨어지는 물방울은'에는 비유법(직유법)이 사용되었다.

왜 틀렸을까? ① '길'은 '희망'을 상징한다.

③ '까마귀'는 '간신배'를 '백로'는 '충신'을 상징한다.

④ '길'은 '삶, 인생'을 상징한다.

⑤ '봄'은 '통일'을 '남해'와 '북녘'은 '외세'를 상징한다.

①, ③, ④, ⑤ 구절의 상징적 의미는 이 외에도 문맥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풍부하게 해석될 수 있다.

08 (나)는 귀하고 아름답게 보이는 대상도 그것을 소유하는

순간 훼손되거나 그 가치를 잃을 수 있다는 생각을 전하고 있다.

09 <보기>는 '해'를 이불을 걷을 수 있는 사람처럼 표현한 구절로 의인이 쓰였다.

인정 답안 어떤 대상을 직접 설명하지 않고 다른 대상에 빗대어 나타내는 비유를 사용해 '해'를 (사람처럼) 표현했다.

채점 기준

채점 요소	채점 기준	배점
내용	의인(비유)이 사용되었음을 밝힘.	2
	의인(비유)의 개념이 드러나도록 서술함.	2
형식	완결된 한 문장으로 서술하지 않음.	-1
	맞춤법에 어긋남(횡수에 상관없이).	-1

10 '이불'(보조 관념)은 '봄눈'(원관념)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인정 답안 '봄눈'을 '이불'에 빗대어 '봄눈'의 포근한 느낌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며 시의 분위기를 형성한다.

채점 기준

채점 요소	채점 기준	배점
내용	원관념과 보조 관념을 밝힘(각 2점).	4
	은유(비유)의 효과를 적절하게 서술함.	2
형식	완결된 문장들의 구성으로 서술하지 않음.	-1
	맞춤법에 어긋남(횡수에 상관없이).	-1

11 별을 손에 쥐고 싶어도 사람들이 참는 이유는 별을 손에 쥐는 순간 본래의 가치를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인정 답안 '별'은 소유하는 순간 생기 없고 하찮은 '돌'로 변하는 것이어서 그 가치를 지켜 주기 위해 참는 것이다.

채점 기준

채점 요소	채점 기준	배점
내용	[C]와 같이 이야기한 까닭을 밝힘.	2
	'별'이 상징하는 의미를 포함함.	2
형식	완결된 한 문장으로 서술하지 않음.	-1
	맞춤법에 어긋남(횡수에 상관없이).	-1

12 (나)에서는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상징을 통해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인정 답안 (나)에는 추상적인 개념(관념)을 구체적인 대상으로 표현하는 상징이 쓰였다. '별'과 '돌'은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소재들이다.

채점 기준

채점 요소	채점 기준	배점
내용	상징적 소재 2가지를 제시함(각 2점).	4
	상징의 개념을 바르게 서술함.	2
형식	완결된 문장들의 구성으로 서술하지 않음.	-1
	맞춤법에 어긋남(횡수에 상관없이).	-1

(2) 산문의 아름다움

소나기

꼭꼭 확인 문제 68-81쪽

01 ①, ⑤ 02 ⑤ 03 ① 04 ③ 05 ③ 06 ④ 07 ③ 08 ③
09 ② 10 ⑤ 11 ④ 12 호두 13 ⑤ 14 ②

- 01 갈대의 꽃인 '갈꽃'과 '가을 햇살'은 계절적 배경이 가을 입을 드러내는 소재이다.
- 02 소년은 소녀가 징검다리에서 비키기를 기다리거나 소녀와 마주칠까 봐 늦게 나오는 등 소녀를 피하려고 노력하지만, 자신에게 조약돌을 던지고 달려가는 소녀를 보기 위해 발돋움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모습으로 보아 소년이 소녀에게 관심이 있으나 소극적이어서 소녀를 의식하고 부끄러워하며 피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 03 (다)에서 소년은 갈꽃을 안고 갈밭을 걸어가고 있는 소녀를 한참 동안 바라보고, 소녀를 갈꽃과 동일시하여 아름답게 인식한다. 이를 통해 소년은 소녀를 바라보며 설레고 두근거림을 느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 04 소년이 물속에 비친 검게 탄 얼굴을 싫어하는 것으로 보

아, 자기 모습에 자신이 없고 열등감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왜 틀렸을까?** ① 소녀가 던지고 간 '조약돌'을 주무르는 행동은 소년이 소녀를 그리워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② 소녀를 따라 징검다리에 앉아 물장난 치는 소년의 행동은 소녀에 대한 관심과 그리움을 느끼게 한다.
 ④ 소년은 자신이 소녀에게 관심이 있고 소녀를 기다리고 있었음을 들킨 것 같아 당황하고 부끄러운 마음에 도망친다.
 ⑤ 소년은 소녀를 피하고 도망치기만 하는 용기 없고 소극적인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워하고 있다.

- 05 소년은 산 너머까지 가 보자는 소녀의 제안에 선뜻 응하지 못하는 자신의 소극적인 성격을 부끄러워하며 자책하고 있다.
- 06 이야기가 전개되고 소년과 소녀가 가까워지면서, 소극적이었던 소년은 점차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다.
- 07 ㉠은 송아지에 올라타 어지러움을 느끼면서 소녀와 소녀가 안고 있는 꽃뭉음이 범벅이 되어 섞인 듯이 느끼는 구절이다. 소녀의 모습을 '꽃'에 비유하여 소녀를 꽃처럼 아름답다고 느끼는 소년의 마음을 짐작하게 한다.
- 08 '소나기'는 비를 피하며 소년과 소녀가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는 소재로, 둘 사이에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다.
- 09 소년과 소녀가 낚은 원두막을 발견한 것은 비극적 결말 암시와는 관련이 없다.
- 10 소녀가 입었던 분홍 스웨터에 든 '검붉은 진흙물'은 소년과 소녀의 잊지 못할 추억을 의미한다.
왜 틀렸을까? ① '개울가'는 소년과 소녀가 만나는 장소이다.
 ② '갈림길'은 소년과 소녀가 헤어져야 하는 장소이다.
 ③ '흰 조약돌'은 소년에 대한 소녀의 관심, 소녀에 대한 소년의 그리움을 나타내는 소재이다.
 ④ '대추 한 줌'은 소녀가 소년을 생각하는 마음을 보여주는 소재이다.
- 11 소년은 소녀에게 주려고 호두를 몰래 찢지만, 소녀에게 개울가에서 만나자는 약속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호두를 전달할 방법이 없어 자책하고 있다.
- 12 (버)에서 소년은 덕쇠 할아버지네 호두밭에서 소녀에게 줄 호두를 몰래 따 돌아오면서 소녀에게 맛있는 호두를 맛보여 주고 싶다는 생각으로 가득하다. 이러한 소년의 모습에서 소녀를 위하고 생각하는 소년의 정성스러운

마음을 느낄 수 있다.

- 13 소년은 부모님의 대화를 통해 소녀의 죽음을 듣게 되는데, 이에 대한 소년의 반응이나 심리를 보여 주지 않고 소설이 마무리된다. 이러한 결말 처리 방식을 통해 인물의 감정을 절제하여 표현하고 주제를 함축적으로 나타낸다.
- 14 소년과 함께 놀던 날 입고 있던 옷을 그대로 입혀 묻어 달라는 소녀의 유언은 소년과의 추억을 간직하고 싶은 소녀의 마음을 짐작하게 한다.

자연은 위대한 스승

꼭꼭 확인 문제 89-91쪽
 01 ③ 02 ④ 03 ③

- 01 '죽음의 뗏'은 잠자리의 가느다란 몸뚱이를 사정없이 옥죄는 거미줄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02 글쓴이는 잠자리를 도와주려다가 오히려 죽게 만든 뒤, 자연에 인위적으로 개입하여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려 했던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반성한다.
- 03 자연은 인간에게 스스로 조화롭게 순환하며 흘러가는 자연의 섭리를 가르쳐 주는 존재임을 깨닫고 있다.

소단원 핵심문제 98-101쪽

01 ④ 02 ⑤ 03 ④ 04 ④ 05 ⑤ 06 ④ 07 소녀를 소녀가 안고 있는 꽃뭉침에 빗대어 표현하며 소년이 소녀를 꽃처럼 아름답게 느끼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08 ③ 09 소나기 10 ④ 11 ③ 12 ⑤ 13 갑작스럽게 찾아와 짧게 끝나 버린 소년과 소녀의 순수한 사랑이라는 주제를 '소나기'를 통해 인상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14 독자에게 깊은 여운과 감동을 남긴다. 그리고 소년과 소녀의 짧고 순수한 사랑이라는 주제를 더욱 강조한다. 15 소년과의 추억이 담긴 옷을 입고 떠나며 소년과 함께했던 추억을 잊지 않고 간직하고 싶어서이다.

- 01 갈밭을 걸어가는 소녀의 모습 등, 이야기에 배경이 되는 농촌 풍경을 서정적이고 낭만적으로 묘사하며 소년과

소녀의 아름다운 사랑을 돋보이게 한다.

- 왜 틀렸을까?** ① 소녀의 말투와 행동에서 향토성은 느껴지지 않는다.
- ② 서울에서 온 소녀와 농촌에서 자란 소년의 이야기이다.
- ③ 초여름이 아닌 초가을이 배경이다.
- ⑤ 이 소설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 02 소년은 소녀의 제안에 흔쾌히 응하지 못하는 소극적인 자신을 자책하고 있다.
- 03 소년은 내향적이고 소극적이며, 순진하고 순박한 성격이다. 소녀는 소년과 달리 외향적이고 당당하며 적극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 04 '조약돌'은 소년과 소녀를 이어주는 매개체로, 소년이 소녀가 던진 조약돌을 간직하는 것 역시 소년이 소녀를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 05 소년은 소녀를 위해 무밭에서 무를 뽑아 소녀에게 건넬는데, 자신이 마음을 담아 건넨 무를 소녀가 맛이 없으며 던지자 씩스럽고 무안한 마음에 소녀보다 더 과장해서 행동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 06 소년은 소녀가 칠펇굴 줄기를 잡고 끊어 보려다 미끄러져 넘어지자 자기가 꺾어다 줄 것을 잘못했다고 뉘우치며 안타까워한다. 미안한 마음에 핏방울이 맺힌 소녀의 무릎을 더욱 정성스럽고 적극적으로 치료해 주는 것이다.
- 07 소년은 송아지에 올라타 어지러운 상태에서 소녀의 모습, 소녀가 안고 있는 꽃이 '모두 하나의 큰 꽃뭉침' 같다고 느낀다. 소녀를 꽃에 빗대어 비유적으로 표현하면서 소년이 소녀를 꽃처럼 아름답다고 느끼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인정 답안 소녀를 '꽃'에 빗대어 표현하며 소년이 소녀를 꽃처럼 아름답게 느끼고 있음을 느끼게 한다.

채점 기준

채점 요소	채점 기준	배점
내용	소녀를 빗댄 대상을 밝힘.	2
	소년의 심리와 표현 효과를 적절히 서술함.	2
형식	완결된 한 문장으로 서술하지 않음.	-1
	맞춤법에 어긋남(횡수에 상관없이).	-1

- 08 소년은 송아지를 타며 자랑스럽고 뿌듯해할 뿐 무서워하지는 않는다.
- 09 '소나기'는 소설에 긴장감과 위기감을 조성하며, 삼시간

에 어두워지는 날씨 묘사와 함께 불길한 사건이 일어나 비극적 결말이 펼쳐질 것을 암시하는 복선이다.

10 소나기를 맞은 뒤 병에 걸려 여러 날 앓다가 약도 변변히 못 써 보고 죽음에 이른 인물은 '소녀'이다.

11 '대추 한 줌'은 소녀가 소년을 위해 가져온 것으로 소년을 위하는 소녀의 마음을 보여 주는 소재이다.

12 소년은 소녀의 집에 가는 아버지에게 더 큰 닭을 가져가 시라고 참견한 뒤 자신이 소녀를 좋아하는 마음을 들킨 것 같아 부끄러운 마음에 괜히 소를 건드리고 있다.

13 소나기는 '갑자기 세게 쏟아지다가 곧 그치는 비'로 이 소설에서는 '갑작스럽게 찾아와 짧게 끝나 버린 소년과 소녀의 순수한 사랑'을 상징한다. 상징은 주제를 더욱 인상적으로 드러내는 효과가 있다.

인정 답안 '갑작스럽게 찾아와 짧게 끝나 버린 소년과 소녀의 순수한 사랑'이라는 주제를 상징을 통해 더욱 아름답게 표현했다.

채점 기준

채점 요소	채점 기준	배점
내용	작품의 주제와 관련하여 '소나기'의 의미를 밝힘.	2
	상징의 표현 효과를 적절히 서술함.	2
형식	완결된 한 문장으로 서술하지 않음.	-1
	맞춤법에 어긋남(횡수에 상관없이).	-1

14 소녀의 죽음이라는 비극적인 결말을 통해 소년과 소녀의 순수한 사랑이라는 주제를 더욱 강조한다. 또한 소년이 소녀의 죽음을 부모님의 대화를 통해 전해 듣게 하고 그에 대한 소년의 반응이나 심리를 보여 주지 않는 결말 처리 방식을 통해 독자도 소년처럼 충격을 받고 애잔한 마음을 가지게 하며, 깊은 여운과 감동을 느끼게 한다.

인정 답안 소녀의 죽음을 소년의 부모님의 대화를 통해 전해 듣는 결말을 통해 독자도 소년처럼 충격을 받고 슬픈 마음을 느끼게 하며, 소년과 소녀의 순수한 사랑이라는 주제를 더욱 강조한다.

채점 기준

채점 요소	채점 기준	배점
내용	독자의 반응과 관련된 효과를 제시함.	3
	주제와 관련된 효과를 제시함.	3
형식	완결된 문장들의 구성으로 서술하지 않음.	-1
	맞춤법에 어긋남(횡수에 상관없이).	-1

15 소녀가 자신과 함께 묻어 달라고 한 '자기가 입던 옷'은 소녀와 함께 놀던 추억이 담긴 옷을 의미한다. 즉, 소녀는 소녀와의 추억을 간직한 채 떠나고 싶었던 것이다.

인정 답안 소녀와의 추억이 담긴 옷을 입혀 달라는 것은 소년을 끝까지 기억하고 싶어 하는 소녀의 마음을 보여 준다.

채점 기준

채점 요소	채점 기준	배점
내용	'자기가 입던 옷(분홍색 스웨터)'가 상징하는 의미를 밝힘.	2
	유언의 의미를 적절하게 서술함.	2
형식	완결된 한 문장으로 서술하지 않음.	-1
	맞춤법에 어긋남(횡수에 상관없이).	-1

대단원 종합 문제

104~109쪽

01 ③ **02** ⑤ **03** ⑤ **04** ④ **05** ④ **06** ㉠ 동경 ㉡ 소유 **07** ④ **08** 바위는 쉽게 변하는 '풀', '꽃'과 달리 변하지 않는 존재로 '끈기'를 상징한다. 작가는 '바위'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끈기 있는 삶의 자세를 강조한다. **09** ④ **10** ⑤ **11** 조약돌 **12** ③ **13** ③ **14** ④ **15** ③ **16** 맑고 청량한 배경 묘사를 통해 소년과 소녀의 맑고 순수한 사랑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17** ① **18** ④ **19** 자기 입던 옷 **20** ③ **21** ① **22** 위대한 스승이 권위 있는 가르침을 주듯이 자연은 인간에게 '자연의 섭리'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을 준다.

01 (가)는 '점심 무렵에는', '산과 들', '~더니 ~다' 등의 구절을 반복하고, (나)는 '따 주세요.', '따 줄 수는 있어', '참았기 때문이야' 등의 비슷한 구절을 반복하며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왜 틀렸을까? ① 평화로운 봄날의 풍경을 그려 내는 것은 (가)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② 두 시 모두 인간과 자연이 교감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④ 대화체를 사용해 친근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은 (나)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⑤ 두 시의 주제 모두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닫는 것'과 거리가 멀다.

02 <보기>는 비유적 표현이나 의도적인 띄어쓰기, 행 구분 없이 시의 내용을 직접적이고 산문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파란 싹'을 '약자지결 일어나 있을 수 있는 존재'처럼 그려 낸 것은 직유가 아닌 의인에 해당한다.

03 (가)에는 은유, 직유, 의인과 같은 비유적 표현들이 쓰였다. ⑤의 구절에서 '약과'는 '나'가 바란 소박한 것을 상징한다.

왜 틀렸을까? ① 직유, ② 은유, ③ 은유, ④ 직유

04 (나)에서 '별'은 멀리 있을 때에는 아름답게 빛나고 사람들의 동경을 받는 존재이지만 소유하는 순간 그 가치를 상실해 '돌'이 되어 버린다.

왜 틀렸을까? ① '엄마'가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은 드러나 있지 않다.

②, ⑤ 기대하고 있던 아이는 '엄마'가 시들어 버린 별(돌)을 건네 주자 실망한다.

③ 하늘에 '별'이 많은 이유는 사람들이 소유하고 싶은 마음을 꼭 참았기 때문이다.

05 (나)에는 추상적인 내용을 구체적인 대상을 통해 나타내는 상징이 쓰였다.

06 '별'은 동경하고 소유하고 싶어 하는 대상, 멀리서 보면 아름답고 가치 있어 보이지만 막상 소유하면 그 가치를 잃는 것, 제자리에 있을 때 아름답고 의미 있는 대상과 같이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07 이 시조는 자연물을 벗 삼아 살아가는 삶의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 시조의 작가가 벗 삼고 있는 자연물은 '물, 바위, 대나무, 소나무, 달'의 다섯 자연물이다.

08 변하지 않는 특성을 지닌 '바위'는 쉽게 변하는 '꽃', '풀'과 대조되는 소재로, 끈기, 굳건하고 의연한 자세, 지조와 절개 등을 상징한다. 이러한 바위에 대한 작가의 긍정적이고 예찬적인 태도는 끈기 있고 굳건하며 의연한 태도로, 지조와 절개를 지키며 사는 삶의 자세에 대한 강조로 이어진다.

인정 답안 바위는 쉽게 변하는 '풀', '꽃'과 달리 변하지 않는 존재로 굳건하고 의연한 자세, 지조와 절개를 상징한다. 작가는 '바위'를 예찬하며 굳건하고 의연한 삶의 자세, 지조와 절개를 지키며 사는 삶의 자세를 강조한다.

채점 기준

채점 요소	채점 기준	배점
내용	'바위'의 특성을 바탕으로 상징적 의미를 적절하게 서술함.	2
	'바위'에 대한 작가의 태도를 밝힘.	2
	'바위'와 대조적인 소재를 제시함.	2
	작가가 강조하고자 하는 삶의 자세를 서술함.	2
형식	완결된 문장들의 구성으로 서술하지 않음.	-1
	맞춤법에 어긋남(횡수세 상관없이).	-1

09 이 소설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작가가 소년과 소녀의 이야기를 서술한다.

왜 틀렸을까? ① 인물 간의 갈등은 두드러지지 않는다.

② 사건은 시간 순서대로 진행되고 있다.

③ 수필의 특성에 대한 내용이다.

⑤ 시의 특성에 대한 내용이다.

10 소년은 소녀의 맑고 검은 눈과 마주치자 수줍은 마음에 얼른 소녀의 손바닥으로 눈을 떨구었다.

11 조약돌은 소녀가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는 소년에게 섭섭함을 표현하기 위해 던진 소재이다. 소년은 그 조약돌을 간직하고 있다가 소녀가 그리울 때마다 주무르는 버릇이 생긴다. 이렇듯 '조약돌'은 소년과 소녀를 이어 주는 매개체로 소년에 대한 소녀의 관심을 보여 주고, 소녀를 향한 소년의 그리움을 보여 주는 소재이다.

12 [A]는 갈밭을 걸어가는 소녀를 갈꽃에 빗대어 표현한 부분으로, 서정적이고 낭만적인 묘사를 통해 소녀를 '갈꽃'과 같이 아름답게 느끼는 소년의 설렘을 함께 느낄 수 있다.

왜 틀렸을까? ① '소녀'와 '갈꽃'을 동일시하고 있다.

② '소녀'를 '갈꽃'에 은유적으로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④ 추상적인 의미를 구체적인 대상을 통해 드러내는 것은 상징에 대한 설명이다.

⑤ 소녀는 '가을 햇살'을 맞으며 걸어가고 있다.

13 (가)에서 소년은 집에 일찍 돌아가 집안일을 도와야 한다는 마음과 소녀와 함께 놀고 싶은 마음 사이에서 내적 갈등을 느끼고 있다.

14 몸이 약한 소녀는 비를 맞자 파랗게 입술이 질리고 어깨를 떠다. 소년은 그런 소녀를 원두막으로 소녀를 들어서 비를 피하게 하고 자기 저고리를 벗어 소녀의 어깨를 싸

주기도 한다. 소녀는 그런 소년의 행동을 순순히 따르며 소년에 대한 믿음을 보여 준다.

15 ㉠은 꽃을 보고 즐거워하는 소녀의 순수한 모습이 드러나는 내용이고 ㉡은 도랑에 물이 불어 있는 상황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모두 비극적인 결말 암시와는 관련이 없다.

16 ㉢는 소년이 소녀를 업고 도랑을 건너는 동안 맑고 청량하게 갠 가을 하늘을 묘사한 구절이다. 이러한 배경 묘사는 소년과 소녀의 순수한 사랑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인정 답안 비가 그친 뒤 깨끗하고 청량한 배경 묘사를 통해 소년과 소녀의 맑고 순수한 사랑을 더 아름답게 보여 주고 있다.

채점 기준

채점 요소	채점 기준	배점
내용	㉡와 같은 배경 묘사의 효과를 밝힘.	2
	소설의 주제와 관련지어서 서술함.	2
	소년과 소녀의 관계와 관련하여 서술함.	2
형식	완결된 한 문장으로 서술하지 않음.	-1
	맞춤법에 어긋남(횡수에 상관없이).	-1

17 (가)에서 소녀의 이사 소식을 들은 소년이 '무어 그리 안타까울 것도 서러울 것도 없었다.'라고 한 것은 반어적인 표현이다. 소년은 소녀가 이사한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아 대추의 맛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안타까워하고 있다.

18 ㉠은 소녀가 소년을 위해 집에서 가져온 '알도 굵'고 '아주 단' 대추로, 소년에 대한 소녀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소재이다. ㉡은 소년이 소녀에게 맛보여 주고 싶어 몰래 딴 맛있는 '호두'로, 소녀를 위하는 소년의 마음과 정성을 알 수 있는 소재이다.

19 소녀는 소년과의 추억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은 마음에, 소년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 입고 있었던 옷을 그대로 입혀서 물어 달라는 유언을 남겼다.

20 글쓴이는 거미줄에 걸린 잠자리가 안타까워서 도와주려다가 오히려 잠자리를 죽게 만들었다.

21 ㉠은 빗방울이 맺힌 거미줄의 아름다운 모습을 직유를 사용해 표현한 것이고, ㉡은 잠자리를 옮아매는 거미줄의 섬뜩한 모습을 은유를 사용해 표현한 것이다.

22 글쓴이는 인간이 개입하지 않아도 스스로 조화롭게 순환하는 자연의 섭리를 깨달은 뒤 '자연'을 '스승'에 빗대어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인정 답안 '스승'처럼 '자연'도 글쓴이에게 자연의 섭리에 대한 가르침을 주었기 때문에 자연을 위대한 스승이라 표현했다.

채점 기준

채점 요소	채점 기준	배점
내용	'자연'과 '스승'의 공통점을 밝힘.	3
	글쓴이의 깨달음이 드러나도록 서술함.	3
형식	완결된 한 문장으로 서술하지 않음.	-1
	맞춤법에 어긋남(횡수에 상관없이).	-1

2 바람직한 언어생활

(1) 어휘의 양상과 쓰임

꼭꼭 확인 문제

117~127쪽

01 ④ 02 (1) ○ (2) × 03 (1) ㉠ (2) ㉡ (3) ㉢ ㉣ 04 ㉠, ㉣ 05 ④ 06 ㉡, ㉢ 07 대화를 나누는 상대가 다르기 때문이다. 08 ㉡ 소통 상대 ㉢ 상황 09 ㉡ 관용 ㉢ 맥락 10 ③ 11 ③, ⑤ 12 뜻이 잘 다가오지 않거나 어감이나 뜻이 좋지 않은 말들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됩니다.

- 01 유행어, 새말, 인터넷 언어를 비교적 많이 사용한다는 설명은 청소년층에서 주로 나타나는 언어 사용의 특징이다.
- 02 전문어는 특정 전문 분야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의사소통하기 위해 사용된다. 향토적인 정서나 느낌, 지방색 등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지역 방언의 특징이다.
- 04 ㉡은 노년층이 주로 사용하는 어휘의 특징이다.
- 05 제시된 인터넷 게시판에서 사용된 인터넷 언어에 한자만을 바탕으로 만든 신조어는 드러나 있지 않다.
- 06 ㉣ 공식적인 상황에서 모든 사람과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한 것은 표준어가 생겨난 까닭에 해당한다.
- 07 (가)에서는 의사가 동료 의사와, (나)에서는 의사가 환자의 보호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 08 전문어를 사용할 때에는 소통 상대와 상황 등 맥락을 고려하여 소통에 참여해야 한다.
- 10 (나)는 공식적인 성격의 문서인데, 줄임말 등 청소년층이 사적 상황에서 주로 사용하는 말들이 쓰여 있어 선생님도 당황하고 있는 상황이다.
- 11 네 번째 문단에서 새말의 도전에 마음의 귀를 좀 더 열어서 그 뜻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말의 주인이 되어 공동체 속에서 그 말의 운명을 자연스럽게 결정해 보자고 권했으므로, ③, ⑤는 적절하다.
- 왜 틀렸을까?** ① 세 번째 문단에서 이런 말들이 나오면 사람들은 퍼 나르기 바쁘나, 이러한 모든 것이 헛된 수고일 뿐이라고 했다.
- ② 네 번째 문단에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말에 큰 거부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했다.

④ 세 번째 문단에서 익숙함과 낯섦의 문제라는 것을 인정할지라도 듣기에 영 거북한 말이 있기는 하다고 했다.

소단원 핵심문제

132~135쪽

01 ② 02 ⑤ 03 ① 04 (1) 세대 (2) 매체 05 ① 06 ③ 07 ④ 08 ③ 09 거부감 10 ⑤ 11 ① 12 ④ 13 손자와 할머니 모두 상대가 사용하는 어휘를 직접 사용해 보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14 소통 상대, 보고서를 제출하려는 소통 의도 및 목적 등 상황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줄임말, 신조어 등을 남발했다. 15 처음 인터넷 말투가 유행한 까닭은 대화창에 글자를 빠르게 입력하려는 목적 때문이다. 인터넷 언어의 주요 사용자인 젊은 세대는 간단하고 간결한 대화를 지향하고, 자기들만의 표현으로 또래 사이의 유대감과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해 인터넷 언어를 사용한다.

- 01 제시된 상황은 주방장과 요리사들이 바쁘게 요리를 하면서 대화하는 상황이며, 밑줄 친 단어들은 요리 분야의 전문적인 개념을 표현하는 전문어이다.
- 02 전문어는 특정 분야에서 전문적인 개념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는 말이다. 정밀한 의사소통이 필요한 상황에서 전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구체적인 개념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어려워진다.
- 03 세대에 따라 사용하는 어휘가 다를 수 있는데 (가)의 ‘파티’, ‘취져’, ‘찐찐’은 각각 (나)의 ‘잔치’, ‘안성맞춤’, ‘막역 지우’와 의미가 비슷한 어휘이다. ‘취져’, ‘찐찐’과 같은 인터넷 언어, 새말에 익숙한 것은 청소년층이 사용하는 언어의 특성으로 적절하다.
- 왜 틀렸을까?** ②, ③ 익숙해진 언어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향이 있고, ‘하계체’ 등의 상대 높임법을 비교적 자주 활용하는 것은 노년층이 주로 사용하는 언어의 특징에 해당한다.
- ④, ⑤ 외래어나 속어를 비교적 쉽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고, 새말에 비교적 민감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청소년층이 주로 사용하는 언어의 특징에 해당한다.
- 04 (1) ‘나’가 ‘국룰’이라고 표현하는 개념을 세대가 다른 할아버지는 ‘정석’이나 ‘불문율’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 (2) 인터넷 게시판에서 영어 단어 ‘스포일러(spoiler)’를 줄여서 ‘스포’라는 한글로 표기하는 것은 문자를 입력하여 소통하는 매체의 특성상 빠르게 소통하기 위함이다.

05 ‘영화(映畵)’는 한자어, ‘줄거리’는 고유어에 해당한다.

06 <보기>의 ‘출화점’과 ‘봉상 주수’는 전문어에 해당하므로 ㉠은 적절한 설명이다. 또한 의사소통을 할 때에는 상황 맥락이나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해야 하므로 ㉡, ㉢은 적절한 설명이다.

왜 틀렸을까? ㉠ 인터넷 매체의 언어 사용상 특징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 <보기>의 상황에 세대별 언어문화 수용의 태도 차이는 드러나지 않는다.

07 (가)에서 의사는 소통 상대가 전문어를 알고 있는 의사이므로 전문어를 사용한다. (나)에서 의사는 전문어를 모르는 보호자와 소통하며 일상적인 단어로 쉽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의사가 사용한 어휘가 달라진 까닭은 대화를 나누는 상대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08 (가)에서는 주로 의학 분야의 전문어가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사람들이 일상적인 상황에서 사용하는 말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09 제시된 글의 마지막 문단에서, 뜻이 잘 다가오지 않거나 어감이나 뜻이 좋지 않은 말들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될 것이므로 새롭게 만들어지는 말에 큰 거부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했다.

10 두 번째 문단에서 뜻이 너무도 잘 통하고 받음도 정겨워서 모든 이의 입에 착 감기니 많은 사람이 아무런 거부감 없이 쓰게 되었다고 했다.

왜 틀렸을까? ㉠ 사전에 등재된 것은 오래도록 살아남은 결과에 해당한다.

㉡ 첫 번째 문단에서 쫄깃한 면의 머리 글자를 따서 만든 단어인 것은 분명하나 자연스럽게 지었다고 했다.

㉢ 두 번째 문단에서 단어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의 문제나 그 구성에 관해서 따지는 이도 없다고 했다.

㉣ 첫 번째 문단에서 ‘쫄’을 떼어 낸 뒤 한자 ‘면(麵)’과 결합시킨 것은 자연스럽게 지었다고 하고, 두 번째 문단에서 새로이 만들어지는 줄임말에 불만이 있다면 이는 어법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11 네 번째 문단에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말에 큰 거부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했으므로 ‘새말을 관용적인 태도로 대해야 한다.’가 적절하다.

왜 틀렸을까? ㉡ 첫 번째 문단에서 ‘쫄면’이라는 단어에 의심을 품어 본 적이 있냐고 물었을 뿐, 주변의 익숙한

단어들을 낯설게 바라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 두 번째 문단에서 새로이 만들어지는 줄임말에 불만이 있다면 어법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언급했을 뿐, 줄임말에 불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 세 번째 문단에서 퍼 나르지 않아도 퍼질 말은 퍼지고 사라질 말은 갑자기 쑥 사라진다고, 새말을 퍼 나르는 행위를 헛된 수고라고 했다.

㉤ 세 번째 문단에서 익숙함과 낯섦의 문제는 인정해도 듣기에 거북한 말이 있다고 언급했을 뿐, 새말 때문에 소통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는 않았다.

12 ㉠의 ‘감기다’는 ‘음식 따위가 감칠맛이 있게 착착 달라붙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13 <보기>에서 할머니와 손자는 각각 ‘혼밥’이라는 말과 ‘시장하다’라는 말을 처음에는 알아듣지 못했지만, 설명을 들은 뒤 직접 사용해 보면서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인정 답안 손자와 할머니 모두 상대가 사용하는 어휘를 직접 사용해 보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채점 기준

채점 요소	채점 기준	배점
내용	할머니와 손자의 어휘에 대한 반응이나 태도를 분석하여 구체적으로 서술함.	4
형식	완결된 한 문장으로 서술하지 않음.	-1
	맞춤법에 어긋남(횡수에 상관없이).	-1

14 <보기>는 ‘핵인싸’, ‘갓생 오브 갓생’ 등의 줄임말, 신조어를 사용한 학생의 보고서이다. 학생은 보고서가 공식적인 성격의 문서임을 고려하지 못하고 적절하지 않은 어휘를 사용하여 보고서를 작성했다.

인정 답안 공식적인 성격의 문서인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읽는 이, 소통 의도 및 목적 등 상황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독서 토론과 부합하지 않는 내용으로 작성했으며 줄임말과 신조어 등의 어휘를 남발했다.

채점 기준

채점 요소	채점 기준	배점
내용	상황 맥락 중 소통 의도 및 목적, 읽는 이를 고려해야 함을 서술함.	2
	어휘 사용상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서술함.	3
형식	완결된 한 문장으로 서술하지 않음.	-1
	맞춤법에 어긋남(횡수에 상관없이).	-1

15 제시된 글에서는 온라인 게임의 유행과 함께 인터넷 말투가 등장하고,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널리 퍼지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 언어의 주 사용층에 대한 전문가의 분석도 제시하고 있다.

인정 답안 처음 인터넷 말투가 유행한 까닭은 대화창에 글자를 빠르게 입력하려는 목적에 있다. 인터넷 언어의 주요 사용자인 젊은 세대는 간단하고 간결한 대화를 지향하고, 자기들만의 표현으로 또래 사이의 유대감과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해 인터넷 언어를 사용한다.

채점 기준

채점 요소	채점 기준	배점
내용	처음 인터넷 말투가 유행한 까닭을 구체적으로 서술함.	3
	사용 동기 2가지를 분석하여 적절하게 서술함(각 2점).	4
형식	완결된 문장들의 구성으로 서술하지 않음.	-1
	맞춤법에 어긋남(횃수에 상관없이).	-1

(2) 매체로 소통하기

꼭꼭 확인 문제 139~149쪽

01 ① 02 (1) × (2) ○ 03 ㉠, ㉡, ㉢ 04 (1) × (2) ○ (3) ×
 05 (1) × (2) ○ (3) ○ 06 언어폭력 07 ㉠, ㉡ 08 (1) 사회 관계망 서비스 (2) 격려하기 (3) '나', 초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던 친구
 (4) 중학교 생활에 대한 응원 09 ② 10 (1) ㉠ (2) ㉠, ㉡ (3) ㉠
 11 초보자

01 상호 작용적 매체는 주로 인터넷에 기반하여 쌍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매체로, 누리집, 사회 관계망 서비스, 온라인 대화, 블로그 등이 있다. 서적, 신문, 텔레비전 등은 한 방향으로만 소통할 수 있다.

02 상호 작용적 매체는 소통이 쌍방향으로 이루어지며, 문자, 사진이나 그림, 소리, 동영상 등을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03 상호 작용적 매체는 일대일 대화뿐만 아니라 일대다의 대화도 가능하다.

04 제시된 온라인 대화에서 아름이와 정우는 실시간으로 일대일 소통을 하고 있으며, 사적인 상황에서 개인의 생각이나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있다.

05 언어폭력은 부정적인 언어 표현으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히는 일로, 물리적 폭력에 비해 약한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폭력적인 언어 사용은 단순히 말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관계를 해치고 한 개인의 삶을 파괴할 수도 있다. 언어폭력의 피해자는 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의 정서적 고통을 경험하며, 언어폭력을 지속적으로 당한 경우에는 대인 관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06 부정적인 언어 표현으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일을 '언어폭력'이라고 한다.

07 ㉠, ㉡은 언어폭력의 유형이다.

09 제시된 글에서 주은이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안부를 여쭙고, 자신의 근황을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②는 적절하지 않다.

11 '달인'은 '학문이나 기예에 통달하여 남달리 뛰어난 역량을 가진 사람'을 말하고, '고수'는 '바둑이나 장기 따위에서 수가 높음. 또는 그런 사람.'을 말한다.

소단원 핵심문제

154~157쪽

01 ① 02 ② 03 ① 04 (나) 05 ④ 06 ③ 07 ② 08 ⑤
 09 ⑤ 10 ② 11 ② 12 ㉠: 반소매 ㉡: 엄지장갑(또는 손모아장갑)
 13 '반팔', '병어리장갑'과 같은 단어는 각각 선천적 또는 후천적으로 팔이 짧은 이들이나 언어 장애인에게 장애를 비하하는 차별적인 단어로 느껴질 수 있기 때문이다. 14 언어폭력이란 부정적인 언어 표현으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히는 일을 말한다. 언어폭력의 가해자는 그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지만, 피해자는 심각한 정서적 고통을 경험한다. 단기적으로는 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을 경험하고, 장기적으로는 대인 관계에 어려움을 겪거나 자기 비하에 빠지게 되고, 또 다른 형태의 언어폭력을 불러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15 상대를 존중하는 표현은 상대방의 관점에서 생각하며 상대방의 입장, 감정 등을 고려하여 말하는 표현으로, 공감과 관심 표현하기, 격려와 응원하기 등의 방법으로 실천할 수 있다.

- 01 인터넷 게시판과 같은 상호 작용적 매체는 시간이나 공간의 제약 없이 다양한 사람과 일대다로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다는 특성이 있다.
- 02 (나)에서 '아르밍'은 사회 관계망 서비스에 체육 대회를 준비하며 느낀 감정과 친구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려는 사적인 목적으로 글을 썼기 때문에, 반말 투로 친근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 03 온라인 대화는 여러 사람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실시간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다는 특성이 있다.
- 04 사적인 목적으로 개인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고,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도 소통이 가능한 상호 작용적 매체는 (나)와 같은 사회 관계망 서비스이다.
- 05 상호 작용적 매체는 인터넷 환경을 기반으로 하므로, 시간이나 공간의 제약을 극복하며 소통할 수 있고, 게시글에 댓글을 다는 방식으로 소통할 수 있다.
- 왜 틀렸을까?** ㉠ 상호 작용적 매체는 일대일 대화뿐만 아니라 일대다 대화도 가능하다.
㉡ 상호 작용적 매체는 소통이 쌍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 06 <보기>에서는 공적인 정보 공유가 목적인 상황에서 무심결에 평소 친구들과 대화하는 말투로 글을 쓴 점을 반성하고 있으므로, 상황에 맞게 적절한 어휘를 사용해야 한다는 조언이 적절하다.
- 왜 틀렸을까?** ㉠ 온라인 단체 대화방이라는 상호 작용적 매체의 소통 방식을 고려할 때, 문자와 함께 사진이나 그림, 소리, 동영상 등을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 '친구들과 소통하는 상황이지만, 공적인 공간'이라고 했으므로, 소통 공간을 고려할 때 '존댓말'과 같은 격식을 갖춘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 소통 참여자는 '학급 친구들'이지만, 온라인 단체 대화방의 특성상 시간적 제약을 받지 않으므로, 시간적 제약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없다.
㉣ '학급 온라인 단체 대화방'이라는 소통 공간을 고려할 때, 대화 참여자는 학급 친구들이므로 평소에 모르던 사람과 댓글을 주고받으며 소통해야 한다는 조언은 적절하지 않다.
- 07 <보기>의 소통 목적은 학급 누리집에 전학 가는 친구를 위해 준비한 작별 기념 모임을 공지하는 것이다. 공적인 정보를 공유하는 상황에서 줄임말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08 <보기>의 소통 목적은 오랜만에 할아버지, 할머니께 안부를 여쭙는 것이다. 노년층인 할아버지, 할머니가 읽을 글을 쓰는 상황이므로 최근 유행하는 신조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렵다.
- 09 언어폭력은 신체적 폭력과 마찬가지로 상대방에게 정신적으로 심각한 상처를 입힐 수 있다. 언어폭력도 신체적 폭력만큼이나 위험하므로 일상생활에서 폭력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상대를 배려하며 말하는 태도를 길러야 한다.
- 10 언어폭력이란 부정적인 언어 표현으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히는 일로, 다른 사람에 관한 험담에 동조하는 표현 또한 언어 폭력에 해당한다.
- 11 제시된 대화에서 학생 2는 학생 1이 한 다른 사람에 관한 험담에 동조하는 표현을 했다. 이는 언어폭력에 해당한다.
- 13 제시된 글에서는 일상생활에 흔히 쓰이는 차별 표현을 찾아 이것이 차별 표현인 이유를 설명하고, 대체 표현을 제시하고 있다.

인정 답안 '반팔'은 선천적 또는 후천적으로 팔이 짧은 이들에게, '병어리장갑'은 언어 장애인에게 장애를 비하하는 차별적인 단어로 느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채점 기준

채점 요소	채점 기준	배점
내용	차별 표현의 문제점을 서술함.	3
	2가지 예시를 모두 언급함(각 1점).	2
형식	완결된 한 문장으로 서술하지 않음.	-1
	맞춤법에 어긋남(횡수에 상관없이).	-1

- 14 제시된 글에서는 언어폭력에 대하여 가해자들이 가볍게 여기는 데에 반해 피해자들은 심각한 고통을 경험하며, 단기적 측면뿐 아니라 장기적 측면에서도 피해를 겪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 인정 답안** 언어폭력은 부정적인 언어 표현으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히는 일을 말한다. 언어폭력 가해자는 이를 가볍게 여기기도 하지만, 언어폭력 피해자는 심각한 정서적 고통을 겪는다. 단기적으로는 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을 경험하고, 장기적으로는 대인 관계에 어려움을 겪거나 자기 비하에 빠질 수도 있다. 그리고 피해자가 다른 형태의 가해자가 되어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채점 기준

채점 요소	채점 기준	배점
내용	언어폭력의 문제점을 피해자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서술함.	2
	언어폭력의 피해를 단기적 측면과 장기적 측면에서 적절하게 서술함(각 2점).	4
형식	완결된 문장들의 구성으로 서술하지 않음.	-1
	맞춤법에 어긋남(횡수에 상관없이).	-1

15 바람직한 언어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폭력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말하기 태도를 길러야 한다.

인정 답안 상대를 존중하는 표현은 상대방의 관점에서 생각하며 상대방의 입장, 감정 등을 고려하여 말하는 표현이다. 이는 칭찬하기, 공감과 관심 표현하기, 격려와 응원하기 등의 방법으로 실천할 수 있다.

채점 기준

채점 요소	채점 기준	배점
내용	상대를 존중하는 표현의 의미를 서술함.	2
	상대를 존중하는 표현의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서술함.	3
형식	완결된 한 문장으로 서술하지 않음.	-1
	맞춤법에 어긋남(횡수에 상관없이).	-1

대단원 종합 문제

160~165쪽

01 ④ 02 ④ 03 의사는 소통 상대가 전문어를 알고 있는 의사인 (가)에서는 전문어를 사용하고, 전문어를 모르는 보호자와 소통하는 (나)에서는 일상적인 단어로 쉽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전문어를 사용할 때에는 대화 상대나 상황을 고려하여 맥락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04 ② 05 ② 06 ③ 07 ② 08 ① 09 ① 10 뜻이 잘 다가오지 않거나 어감이나 뜻이 좋지 않은 말들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됩니다. 11 ⑤ 12 ① 13 ④ 14 ④ 15 ⑤ 16 ①, ③ 17 ③ 18 ① 19 초보자 20 ⑤ 21 장애에 빚댄 차별 표현이 장애에 관한 편견을 심어 줄 수 있고, 이러한 언어 습관이 지속되다 보면 장애가 희화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22 상대방을 조롱하거나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했다. 상대를 향한 비속어를 사용했다. 다른 사람에 관한 험담에 동조하는 표현을 사용했다. 23 인터넷에서 연예인을 험담하는 게시 글을 보고 동조하는 댓글을 단 경험이 있다. 험담에 동조하는 표현도 언어폭력에 해당하므로, 앞으로는 상대를 존중하며 댓글을 달아야겠다.

01 전문어는 전문 분야에서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어휘를 말한다. 보통 다른 어휘들로 대체하기 어려운 개념을 표현하며, 전문 분야에서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사용한다. ④의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고 숨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은어'의 특성에 해당한다.

02 (가)에서 주방장과 요리사들은 신속한 의사소통이 필요한 상황에서 전문어를 활용함으로써 서로 빠르고 정확하게 전문적인 개념을 전달할 수 있다.

03 (가), (나) 모두 환자의 상태를 설명하려는 대화 목적을 가졌으나 (가)는 의사끼리, (나)는 의사와 보호자가 대화하는 상황을 보여 주고 있다.

인정 답안 (가)의 의사는 소통 상대가 전문어를 알고 있는 의사이므로 전문어를 사용하고, (나)의 의사는 전문어를 모르는 보호자와 소통하며 일상적인 단어로 풀어서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전문어를 사용할 때에는 대화 상대나 상황을 고려하여 맥락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채점 기준

채점 요소	채점 기준	배점
내용	(가), (나)의 대화 상대를 밝혀 서술함.	2
	의사가 사용한 어휘의 특징을 각 대화 상대 별로 구체적으로 서술함.	2
	전문어 사용 시 고려할 요소를 적절하게 서술함.	2
형식	완결된 문장들의 구성으로 서술하지 않음.	-1
	맞춤법에 어긋남(횡수에 상관없이).	-1

04 '단짠'은 '단맛'과 '짠맛'의 앞 글자를 결합하여 줄여서 표현한 말로, ㉠에 해당하는 예이므로 적절하다.

왜 틀렸을까? ① '고고'는 '가다'의 의미를 지닌 영어 'go'를 한글로 표기한 예로, ㉡에 해당한다.

③ '땡땡이'는 '땡'과 모양이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자모음으로 이루어진 글자 '땡'을 이용하여 표현한 예로, ㉢에 해당한다.

④ '꿀잼'은 '꿀처럼 재미있음'을 줄여서 표현한 예로, ㉣에 해당한다.

⑤ 'ㅇ스'은 '인정'을 초성만으로 표기한 예로, ㉤에 해당한다.

05 기성세대는 비교적 기존에 쓰던 어휘를 그대로 사용하고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다. 반면 청소년층은 기성세대

보다 인터넷, 휴대 전화, 사회 관계망 서비스 등 매체 사용에 익숙하고 유행이나 새로운 문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새말이나 새로운 언어문화를 더 잘 수용하는 경향이 있다. 이처럼 세대의 차이에 따라 어휘 사용 양상이 달라지기도 한다.

- 06** 상황 맥락은 담화나 글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관련되는 요인으로, 말하는 이, 듣는 이, 시간과 장소, 소통 의도와 목적 등이 이에 해당한다. 사회·문화적 맥락은 특정한 공동체에서 사회적, 문화적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어진 맥락으로, 세대나 성별, 문화, 지역과 같은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 07** <보기>에 따르면 입력이 간단하고 의미 전달이 빠른 초성체의 예시처럼 인터넷 언어는 간결하게 대화하기 위해 생겨났다고 볼 수 있다.
- 왜 틀렸을까?** ① 단어의 초성만 표기하는 ‘초성체’는 글자를 정확하게 입력하기 위한 것과는 거리가 멀다.
- ③ 전 국민이 원활하게 의사소통하기 위한 목적으로 규정한 어휘는 ‘표준어’이다. ‘인터넷 언어’는 세대차를 불러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 ④ 세대 간의 유대감이나 결속력 강화와 관련된 내용은 드러나 있지 않다.
- ⑤ 인터넷 언어의 특성상 상호 작용적 매체에서 주로 쓰여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잘 받지 않는다.
- 08** <보기>는 ‘핵인싸’, ‘갓생 오브 갓생’ 등의 신조어와 줄임말을 사용한 학생의 보고서이다. 제시된 독서 토론 보고서에서 띄어쓰기가 잘못된 부분은 없으므로 ①은 적절하지 않다.
- 09** 제시된 글에서 ‘졸면’은 구성이 자연스럽게 않은 단어이지만, 뜻이 너무도 잘 통하고 발음도 정겨워서 사람들이 거부감 없이 쓰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흠쭈무’, ‘뜰보잡’, ‘지못미’와 같은 ‘갑툭튀’ 단어들은 듣기에 거북한 말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 10** ㉠의 바로 앞에, 글쓴이가 ㉡과 같이 생각하는 근거가 제시되어 있다.
- 11** 글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졸면’도 말을 줄여 구성하여 새로 만들어진 말이므로, 새로이 단어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말을 줄여 구성한 것을 쓰지 말아야겠다는 기준은 적절하지 않다.
- 12** 상호 작용적 매체는 주로 인터넷에 기반하여 쌍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매체이므로, 대면 환경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13** <보기>는 체육 대회와 관련하여 전달할 내용을 학급 누리집에 올려서 반 친구들에게 알리기 위한 글로, 안내 사항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작성했다.
- 14** <보기>에서 정우는 우는 얼굴의 이모티콘이나 손을 흔드는 토끼 이모티콘을 활용하여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시각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따라서 표현할 내용을 방어적으로 전달하고 있다는 서술은 적절하지 않다.
- 15** (가)에는 도서관 누리집 게시판에, (나)에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에 글을 작성한 경험이 드러나 있다. (가), (나) 모두 상호 작용적 매체에 해당하며, 게시 글에 댓글을 다는 방식으로 소통할 수 있으므로 ⑤는 적절하다.
- 왜 틀렸을까?** ① (가), (나) 모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 ② (가), (나) 모두 소통이 쌍방향으로 이루어진다.
- ③ (가)는 공적인 정보 공유에 초점을 둔 공간이나, (나)는 개인의 생각, 의견, 감정 등을 비교적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는 개방적인 공간이다.
- ④ (가), (나) 모두 모르는 사람과도 소통이 가능하다.
- 16** 언어폭력에는 욕설, 헐박, 조롱 등이 있으며, 언어폭력을 지속적으로 당한 경우에는 대인 관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①, ③이 적절하다.
- 17** <보기>는 할머니와 부모님 등 온 가족이 함께 있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 단체 대화방에서, 친구들끼리 사용하는 줄임말과 유행어의 의미를 할머니께서 이해하지 못해 의사소통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대화를 할 때에는 소통 참여자의 특성(세대, 지역, 문화 등)을 고려해야 한다.
- 18** <보기>에서는 ‘저출산’이 출산율 감소 및 인구 문제의 책임이 여성에게 있다는 인식을 심어 줄 수 있으며, ‘유모차’ 역시 육아 관련 문제는 ‘여성’ 중심이라는 사고가 담겨 있어 대체 표현이 제안되었다고 했으므로, 성차별의 의미가 담긴 언어를 순화해 표현했다는 반응이 적절하다.
- 19** 학문이나 기술 따위를 익힐 때의 그 처음 단계나 수준에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초보자’가 대체 표현으로 적절하다.
- 20** <보기>에서는 네 손가락이 붙어 있는 장갑을 뜻하는 ‘병어리장갑’이 장애인 비하 발언이라는 이야기가 퍼지면서 ‘엄지장갑’, ‘손모아장갑’으로 대체하게 되었다고 했으므로, ⑤의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21 <보기>에서는 부정적인 내용을 장애에 빗대고 있는 차별 표현들의 예를 들고, 이에 대한 대체 표현을 제시하고 있다.

인정 답안 장애에 빗댄 차별 표현이 장애에 관한 편견을 심어 줄 수 있고, 이러한 언어 습관이 지속되다 보면 장애가 희화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채점 기준

채점 요소	채점 기준	배점
내용	차별 표현에 담긴 차별적 요소를 적절하게 서술함.	3
	차별 표현이 일으킬 수 있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서술함.	3
형식	완결된 한 문장으로 서술하지 않음.	-1
	맞춤법에 어긋남(횡수에 상관없이).	-1

22 제시된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게임을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비하 표현, 비속어, 험담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에 동조하는 표현도 드러나 있다.

인정 답안 다른 사람을 비하하는 표현과 비속어를 사용했다.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데 동조했다.

채점 기준

채점 요소	채점 기준	배점
내용	제시된 상황에서 드러나는 언어 사용의 문제점을 2가지 이상 제시함(각 2점).	4
형식	완결된 문장들의 구성으로 서술하지 않음.	-1
	맞춤법에 어긋남(횡수에 상관없이).	-1

23 제시된 상황과 비슷한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언어생활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찾아서 서술한다.

인정 답안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팀원들이 음성 채팅으로 내게 욕을 한 적이 있다. 한동안 그 말이 계속 떠올라 힘들었다. 앞으로 언어폭력의 심각성을 인지하며 나도 배려하며 말해야겠다.

채점 기준

채점 요소	채점 기준	배점
내용	자신의 구체적인 경험을 제시함.	2
	제시된 상황과 비슷한 언어 사용의 문제점을 서술함.	2
	자신의 언어생활을 점검함.	2
형식	완결된 문장들의 구성으로 서술하지 않음.	-1
	맞춤법에 어긋남(횡수에 상관없이).	-1

3 세상을 이해하는 힘

(1) 요약하며 읽기

꼭꼭 확인 문제

172~181쪽

- 01 과학 시간에 종자 보관소의 개념과 특징을 발표하려고 한다.
 02 ④ 03 ⑤ 04 야생 식물이 활용되는 구체적인 예 05 ④
 06 ② 07 ④ 08 ⑤ 09 ⑤ 10 ⑤ 11 ⑤ 12 ⑤ 13 ② 14 ③

01 준호의 말로 보아 준호가 이 글을 읽는 목적이 과학 시간에 종자 보관소의 개념과 특징을 발표하기 위해서임을 확인할 수 있다.

02 ④는 요약하기 방법 중 일반화에 관한 설명이다. 글 (가)와 (나)를 요약하는 데 일반화의 방법은 사용하지 않았다.

03 (마)에서 노르웨이의 종자 보관소가 식량난에 대비해 작물 종자만 보관하는 것과 달리, 한국의 종자 보관소는 야생 식물의 종자를 보관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04 준호는 (바)를 요약하기 위해 야생 식물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는 부분을 삭제하여 중심 문장을 만들었다.

05 준호는 (사)를 요약하기 위해 중심 내용이 뚜렷하게 드러나 있는 문장을 선택하고 있다. 한국의 종자 보관소에 서는 야생 식물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 선택된 내용에 해당한다.

06 (사)에서 야생 식물에 관한 연구가 부족한 이유로 야생 식물의 종류가 많고, 기후, 토질 등 수많은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야생 식물이 자라는 데 적합한 기후와 토질에 대한 설명은 확인할 수 없다.

07 이 글에서 한국 종자 보관소의 설립 과정을 설명하는 부분은 나타나 있지 않다.

08 지현이의 “종자 보관소는 전 세계에 두 곳밖에 없는데 그 가운데 한 곳이 우리나라에 있다니 신기해. 이 글에서 두 종자 보관소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볼까?”라는 말에서 지현이의 읽기 목적이 두 종자 보관소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09 (마)에서는 부정적인 감정을 없애려고만 하지 말고, 보

살펴 주며 기분이 나아지기를 기다려 주자고 말하고 있다. 부정적 감정을 소홀히 대할 때 발생하는 문제가 제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중심 내용은 아니다.

- 10 (다)에서는 사람들은 친한 친구가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면 친구의 감정을 위로하고 신경 써 주지만, 자신의 부정적 감정에는 스스로를 탓하며 엄격히 대한다고 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타인의 부정적 감정에 엄격하다는 설명은 잘못되었다.
- 11 이 글에서는 부정적인 감정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것을 잘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부정적 감정들이 들 때 그것을 긍정적 감정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 12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부정적인 감정을 없애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글에서는 그러한 행동의 문제점을 제시한 뒤 올바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13 일반적으로 글의 구조를 파악하여 중심 내용을 체계적으로 요약할 수는 있으나, 요약할 때 원글의 구조를 그대로 따라 할 필요는 없고 읽기 목적에 맞게 글의 구조를 설정해야 한다.
- 14 교과서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는 것은 요약하기와 상관이 없는 활동이다.

소단원 핵심문제

186~189쪽

01 ① 02 ② 03 ① 04 ㉠: (나), (다), (라) ㉡: (마), (바), (사) ㉢: (아) 05 일반화 06 종자 보관소는 지구 차원의 위기로부터 씨앗을 보호하는 저장고이다. 07 필요한 문단은 (다)와 (라)이다. (다)에서는 '종자 보관소는 전 세계에 단 두 곳밖에 없으며 그중 하나가 노르웨이의 국제종자보관소'라는 점, (라)에서는 '노르웨이 종자 보관소는 외부 충격으로부터 안전하게 설계되어 종자를 최적의 상태로 보관한다.'라는 점을 포함하여 요약할 수 있다. 08 ⑤ 09 ③ 10 ⑤ 11 ② 12 (1) (나) (2) (다), (라) 13 근거 14 ③ 15 우리는 부정적인 감정을 피하려고 한다. 하지만 부정적인 감정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감정이다. 건강한 마음을 위해서는 부정적인 감정도 자연스럽게 생성되고 사라지게 해야 한다. 그러므로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힐 때에는 부정적인 감정을 없애려고만 하지 말고 보살펴 주며 기분이 나아지기를 기다려 주자.

01 이 글은 종자 보관소와 종자 은행을 비교하여 종자 보관소의 특징을 설명하고, 한국의 종자 보관소와 노르웨이의 종자 보관소를 비교하여 한국 종자 보관소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 왜 틀렸을까? ② 이 글에는 특정한 주장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 ③ 이 글에서 종자 보관소의 발전 과정, 앞으로의 전망에 관한 내용은 찾을 수 없다.
- ④ (가)에서 스스로 묻고 대답하는 자문자답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지만, 중심 소재인 종자 보관소가 지닌 문제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 ⑤ 종자 보관소의 다양한 견해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02 보관된 종자를 수시로 다시 꺼낼 수 있는 곳은 종자 은행이다.

- 왜 틀렸을까? ① (다)에서 종자 보관소는 전 세계에서 단 두 곳뿐이라 말하고 있다.
- ③ (아)에서 미래에 발생할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종자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 말하고 있다.
- ④ (바)에서 야생 식물이 앞으로 의약품과 식량 등 중요 자원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야생 식물의 종자를 저장한다고 말하고 있다.
- ⑤ (나)에서 식물 종자를 보관하는 기관은 크게 '종자 은행'과 '종자 보관소'로 분류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03 일반적으로 요약할 때에는 중심 내용만 남기고 세부적인 내용과 구체적인 예시는 삭제하는데, ①에서는 종자 보관소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과 구체적인 예시를 남겨야겠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요약 방법이 아니다.

04 (나), (다), (라)에서는 종자 보관소의 일반적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이후 (마), (바), (사)에서 한국 종자 보관소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아)에서는 종자 보관소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당부하고 있다.

05 '야생 식물'이라는 상위어를 사용하여 '광릉요강꽃, 세뿔투구꽃, 구상나무'와 같은 하위어를 묶어 표현하고 있으므로 '일반화'에 해당한다.

06 (가)를 종자 보관소를 중심으로 요약하면 "종자 보관소는 지구 차원의 위기로부터 씨앗을 보호하는 저장고이다."라고 요약할 수 있다.

인정 답안 종자 보관소는 씨앗을 보호하는 저장고이다.

채점 기준

채점 요소	채점 기준	배점
내용	중심 문장을 바탕으로 요약함.	2
	선택의 방법으로 요약함.	2
형식	완결된 한 문장으로 서술하지 않음.	-1
	맞춤법에 어긋남(횡수에 상관없이).	-1

07 노르웨이의 종자 보관소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문단은 (다)와 (라)이다.

인정 답안 종자 보관소는 전 세계에 두 곳밖에 없는데 그중 하나가 노르웨이에 있다는 점, 노르웨이의 종자 보관소는 종자를 최적의 상태로 보관할 수 있도록 외부 충격으로부터 안전하게 설계되었다는 점이 제시되어 있는 (다)와 (라)가 필요하다.

채점 기준

채점 요소	채점 기준	배점
내용	요약에 필요한 문단 2개를 정확히 제시함 (각 1점).	2
	읽기 목적을 고려하여 각 문단의 내용을 적절히 요약함.	4
형식	완결된 한 문장으로 서술하지 않음.	-1
	맞춤법에 어긋남(횡수에 상관없이).	-1

08 식물 자원의 멸종에 대비한 시설임은 한국의 종자 보관소와 노르웨이의 종자 보관소 모두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이는 (나)에 나타나 있다.

09 <보기>의 요약 내용 중 '종자 보관소는 지구 차원의 위기로부터 씨앗을 보호하기 위한 저장고'라는 내용은 (가)를 요약한 내용이다. '외부 충격으로부터 안전하게 설계되었고, 종자를 최적의 상태로 보관하고 있다.'는 (라)를 요약한 내용이다. '한국의 종자 보관소에서 야생 식물 종자들을 보관하고 있다.'는 (바)를 요약한 내용이다. '야생 식물 종자들은 앞으로 중요 자원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고 야생 식물에 관한 연구에도 도움이 된다.'는 (사)를 요약한 내용이다.

10 (다)에서 사람들은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 일반적으로 잠을 통해 잊거나 자신의 행동을 후회한다고 말하고 있다. 타인의 행동을 탓한다고 언급하지는 않았다.

왜 틀렸을까? ① (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가)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나)에서 확인할 수 있다.

11 이 글에서는 부정적인 감정을 없애려고만 하지 말고 그것을 잘 다루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즉, 부정적인 감정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에 대해 말하고 있다.

12 (나)에서는 부정적인 감정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다), (라)에서는 부정적인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13 이 글은 '도입-근거-주장'의 구조로 부정적인 감정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14 (나)는 부정적인 감정의 역할을 소개한 뒤,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을 요약할 때에는 구체적인 예를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

15 각 문단의 중심 내용을 요약한 뒤, 이것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면 전체 글을 요약할 수 있다.

인정 답안 각 문단의 중심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연결한 답안은 모두 정답으로 인정된다.

채점 기준

채점 요소	채점 기준	배점
내용	각 문단의 중심 내용을 적절히 요약함.	4
	문단별 요약 내용을 자연스럽게 연결하여 요약문을 완성함.	2
	요약 방법을 효과적으로 사용함.	3
형식	완결된 문장들의 구성으로 서술하지 않음.	-1
	맞춤법에 어긋남(횡수에 상관없이).	-1

(2) 정보를 전달하는 글 쓰기

꼭꼭 확인 문제

192-203쪽

- 01 학교 학생들에게 조선 시대의 모자에 대해 알려 주기 위해
 02 ⑤ 03 ① 04 ④ 05 ④ 06 ② 07 ① 08 시각 09 ④
 10 ① 11 ④ 12 ③ 13 ⑤

01 현지는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도 조선 시대의 모자를 알

려 주고 싶어.’라고 말하며 글쓰기 목적을 밝히고 있다.

- 02 현지는 ‘우리 학교 학생들’을 예상 독자로 하여, 조선 시대 모자의 역할과 종류를 주제로 설명하는 글을 작성하려 한다. 또한 조선 시대의 모자를 알려 주기 위함이라는 목적으로 글을 쓰려 한다. 글의 구조에 대한 계획은 확인할 수 없다.
- 03 ‘자료 3’은 조선 시대 모자의 사회적 역할을 알 수 있는 책이고, ‘자료 4’는 모자의 역할을 알 수 있는 인터넷 동영상이다. 따라서 주제인 모자의 역할을 설명하기 위해 ‘자료 3’과 ‘자료 4’를 활용할 수 있다.
- 04 현지는 ‘자료 7’을 수집하면서, 모자의 역할과 종류에 관한 내용은 아니지만 친구들에게 조선 고유의 모자를 쓰지 않게 된 까닭을 알려 주면 흥미로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것으로 보아 현지는 ‘자료 7’을 수집할 때 독자의 관심과 흥미를 중요하게 생각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05 표현의 참신함과 풍부함은 개요를 작성할 때보다 실제 글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고려할 요소이다.
- 06 (라)에 따르면 양반층은 갓을, 신분이 낮은 역졸이나 보부상은 패랭이를 썼다.
- 07 글의 시작 부분에 시각 자료인 풍속화를 추가하면 독자의 관심과 흥미를 끌 수 있고, 독자가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 08 글을 쓸 때 다양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데, 그림, 도표, 사진 등은 모두 시각 자료에 해당한다.
- 09 조사 보고서 작성하기 과정에서 조사 계획서를 작성할 때에는 조사 목적, 대상, 기간, 조사 내용과 역할 분담 등을 계획한다. 아직 실제로 조사하기 전이므로 조사 자료 출처는 계획 내용에 포함할 수 없다.
- 10 조서 보고서를 작성할 때, 보고서에는 조사 목적을 밝히고 조사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 또한 조사하고 알게 된 점이나 느낀 점을 소개하고, 인용한 자료의 출처를 밝힌다. 다만 조사 비용은 필수적으로 밝혀야 하는 정보는 아니다.
- 11 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양한 매체에서 수집한 자료를 적절하게 활용해야 한다.
- 12 기사문에서 글쓴이는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 측과 학생들이 협력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 13 기사문을 작성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발생한 사실을 정

확하고 객관적으로 소개해야 한다. 글쓴이의 주관적인 판단 과정을 논리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소단원 핵심문제

208~211쪽

01 ① 02 ① 03 ⑤ 04 ③ 05 ⑤ 06 ① 07 ③ 08 ③ 09 ②
 10 협력 11 다양한 매체의 자료들을 통해 객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다양한 매체의 자료들을 통해 글의 내용을 풍부하게 구성할 수 있다. 12 다른 사람이 작성한 자료나 글을 그대로 베껴서는 안 되며, 인용할 때에는 출처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13 우리 학교 학생들의 여가 생활 실태라는 주제로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려고 한다. 학교 학생들이 여가 시간에 주로 무엇을 하는지 종류와 비율을 효과적으로 알려 주기 위해서 설문 조사 결과를 원그래프로 정리하여 시각 자료로 제시할 것이다.

- 01 이 글을 조선 시대의 모자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조선 시대 모자의 역할 두 가지를 소개한 뒤, 모자의 종류를 밝히고, 이후 서양식으로 복식 문화가 바뀐 이유를 소개하고 있다. 즉, 조선 시대 모자와 관련된 정보를 주제별로 제시하고 있다.
- 02 <보기>에서 교지에 글을 실으려는 의도가 드러나 있다. 교지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책자를 말한다.
- 03 ‘자료 4’에서 조선 시대에 모자보다 옷으로 사람의 신분을 더 쉽게 파악할 수 있었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 04 <보기>에서 학생은 인터넷 동영상의 내용이 모자의 역할을 설명하는 데 필요한 자료라 말하고 있다. 이것은 자료가 글의 목적과 주제와 관련되는지를 고려하고 중요도를 판단한 것이다.
- 05 글의 내용을 고려할 때 ㉠에 들어갈 적절한 단어는 ‘패랭이’이다.
- 06 <서양인이 그린 조선의 풍속화>는 시각 자료에 해당한다. 시각 자료를 활용하면 독자의 관심과 흥미를 끌 수 있고, 독자에게 내용을 쉽게 전달할 수 있다.
- 07 글쓴이 개인의 의견을 근거를 들어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글은 논설문으로, 기사문의 특성과는 거리가 멀다.
- 08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전거 통학과 관련한 찬반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찬성 의견이 가장 많았다. 이는 <표 1>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09 이 글에서는 사진과 표를 활용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이것은 자료를 활용하여 사건을 효과적으로 전달한 방법에 해당한다.

왜 틀렸을까? ① 전문가를 인터뷰한 영상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③ 사고 현장을 다녀온 글쓴이 경험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④ 표제 쓰기는 자료 활용 문제와 관련이 없다.

⑤ 학생 회장의 의견을 녹음한 음성 자료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10 글쓴이는 더 이상 피해 학생이 나오지 않도록 모두가 협력하여 만족할 만한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11 글을 쓰려고 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다양한 매체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좋다. 그 이유는 다양한 매체의 자료들을 통해 객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글의 내용을 풍부하게 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정 답안 객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글의 내용을 풍부하게 구성할 수 있다.

채점 기준

채점 요소	채점 기준	배점
내용	정보 수집의 효과를 2가지 제시함(각 2점).	4
형식	각각 완결된 한 문장으로 서술하지 않음.	-1
	맞춤법에 어긋남(횡수에 상관없이).	-1

12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쓸 때에는 다른 사람이 작성한 자료나 글을 그대로 베껴서는 안 되며 인용할 때 출처를 분명히 밝혀 쓰기 윤리를 지켜야 한다.

인정 답안 다른 사람이 만든 자료를 그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서 쓰기 윤리를 지킨다.

채점 기준

채점 요소	채점 기준	배점
내용	자료의 출처를 밝혀야 함을 언급함.	2
	'쓰기 윤리'라는 말을 포함함.	2
형식	완결된 한 문장으로 서술하지 않음.	-1
	맞춤법에 어긋남(횡수에 상관없이).	-1

13 독자가 이해하기 쉽게 도표, 그림, 사진 등의 자료를 적절하게 활용하여 보고서(정보를 전달하는 글)를 작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 본다.

인정 답안 글의 주제와 활용하고 싶은 자료, 자료를 활용하고 싶은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으면 답안으로 인정한다. 다만 자료를 활용하고 싶은 이유가 적절하지 않으면 감점한다.

채점 기준

채점 요소	채점 기준	배점
내용	글의 주제를 분명하게 제시함.	2
	활용하고 싶은 자료를 밝힘.	2
	자료 활용의 까닭을 밝힘.	2
형식	완결된 문장들의 구성으로 서술하지 않음.	-1
	맞춤법에 어긋남(횡수에 상관없이).	-1

대단원 종합 문제

214~219쪽

01 ⑤ **02** ⑤ **03** 빈칸에는 '야생 식물'이 들어가고, 일반화를 사용하여 요약했다. **04** ④ **05** 한국 종자 보관소 **06** ③ **07** ③ **08** 부정적인 감정도 자연스럽게 사라져야 마음이 건강할 수 있다. **09** ② **10** ④ **11** ㉠: 선택 ㉡: 재구성 **12** ④ **13** 조선 시대 모자를 알려 주고자 함. **14** ① **15** ⑤ **16** 독자의 관심과 흥미를 끌고, 내용을 더 쉽게 전달할 수 있다. **17** ① **18** ③ **19** 사진, 그래프

01 (라)에 따르면 노르웨이의 종자 보관소는 종자의 손상을 막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외부 충격에도 안전하다.

왜 틀렸을까? ① (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아)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바)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마)에서 확인할 수 있다.

02 (바)는 '한국의 종자 보관소가 야생 식물 종자를 저장하는 까닭은 야생 식물이 앞으로 중요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로 요약할 수 있다.

03 '광릉요강꽃, 세뿔투구꽃, 구상나무'는 모두 '야생 식물'로 묶을 수 있다. 이렇게 하위어를 상위어로 묶어 요약하는 방법을 '일반화'라 한다.

인정 답안 빈칸에 '야생 식물'이 들어가고, 개별적인 내용을 포괄할 수 있는 상위 개념으로 일반화하는 방법이 사용됐다.

채점 기준

채점 요소	채점 기준	배점
내용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밝힘.	2
	요약 방법 중 무엇이 사용되었는지 밝힘.	2
형식	완결된 한 문장으로 서술하지 않음.	-1
	맞춤법에 어긋남(횡수에 상관없이).	-1

04 (아)에서는 '그러므로' 뒤에 글쓴이가 말하고 싶은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결론 내용을 바탕으로 (아)를 요약하면 '우리 모두 종자 보관소가 열리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가 된다.

05 (마), (바), (사)에서는 노르웨이 종자 보관소와 다른 한국 종자 보관소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06 <보기>를 통해 읽기 목적이 두 종자 보관소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글에서 두 종자 보관소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부분은 (다), (라), (마)이다.

07 부정적인 감정을 보살핀다고 해도 자연스럽게 사라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내용은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없다.

왜 틀렸을까? ① (가)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마)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나)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08 (다)에서는 부정적인 감정도 자연스럽게 사라져야 마음이 건강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인정 답안 부정적인 감정이 자연스럽게 사라질 수 있어야 마음이 건강할 수 있다.

채점 기준

채점 요소	채점 기준	배점
내용	부정적인 감정이 자연스럽게 사라져야 함과 그렇게 되면 마음이 건강해진다는 내용을 모두 서술함.	4
형식	완결된 한 문장으로 서술하지 않음.	-1
	맞춤법에 어긋남(횡수에 상관없이).	-1

09 <보기>에서는 부정적인 감정을 다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부정적인 감정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알고 싶다고 말하고 있다. 부정적인 감정을 다루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설명된 문단은 (가)와 (다)이다.

10 <보기>에서는 부정적인 감정을 다루는 방법을 중심으로

이 글을 요약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1 글을 요약할 때에는 글의 중심 내용이 분명하게 드러난 부분을 선택해야 한다. 또한, 중심 문장이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중심 문장을 재구성해야 한다.

12 (가)에서는 조선을 찾은 서양인들이 조선을 '모자의 나라'로 인식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조선 시대 우리 선조들이 조선을 '모자의 나라'로 인식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왜 틀렸을까? ① (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가)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나)에서 확인할 수 있다.

13 <보기>에서는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조선 시대 모자의 역할과 종류를 알려 주고 싶다고 쓰기 목적을 밝히고 있다.

14 (가)에서는 <보기>의 자료를 활용하여, 조선에서는 예의를 갖추려고 모자를 썼음을 설명하고 있다.

15 <보기>의 자료는 '갓'과 '패랭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백과사전의 내용이다. 조선 시대 모자의 종류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로 주요 내용과 관련이 있어서 중요도가 높은 자료로 판단하였다.

16 지폐 사진과 같은 시각 자료를 활용하면 독자의 관심과 흥미를 끌 수 있고 내용을 쉽게 전달할 수 있게 된다.

인정 답안 독자의 관심을 유발하고 독자가 글의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채점 기준

채점 요소	채점 기준	배점
내용	시각 자료를 활용했을 때의 효과를 2가지 서술함(각 2점).	4
형식	완결된 한 문장으로 서술하지 않음.	-1
	맞춤법에 어긋남(횡수에 상관없이).	-1

17 이 글은 기사문으로, 보고 들은 사실을 신속하게 전달하는 글이다.

왜 틀렸을까? ② 시에 대한 설명이다.

③ 소설에 대한 설명이다.

④ 논설문에 대한 설명이다.

⑤ 보고서에 대한 설명이다.

18 이 글에서 글쓴이는 더 이상 피해 학생이 나오지 않도록

모두가 협력하여 만족할 만한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왜 틀렸을까? ① 자전거 사고 건수가 해마다 증가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② 관공서와 협의하여 학교 주변 도로를 정비하기를 요구한 것은 학생들이다.

④ 자전거 통학을 자제할 것을 요구한 것은 학교 측이다.

⑤ 1학년 학생은 다른 학교의 학생이 아닌 자동차와 부딪혔다.

19 이 글에서는 독자의 관심과 흥미를 끌고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진, 그래프와 같은 시각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4 갈등을 넘어

(1) 갈등을 담은 문학

먹고 싶다, 수박

꼭꼭 확인 문제

227-244쪽

01 ④ **02** ② **03** ④, ⑤ **04** ② **05** ('그건 울지 않아.'라고 서슬 푸르게 손을 때 버리는 그) 결단성 **06** ⑤ **07** ② **08** 수박 처리 **09** ①, ④ **10** ① **11** ① **12** ① **13** ③ **14** ⑤ **15** 양심을 속이는 일이기 때문에 / 작은 잘못에 대한 징벌을 피하기 위해 더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기 때문에 **16** ③ **17** ② **18** 은비의 손을 잡고 음악실로 걸어가는 발걸음은 날아가는 것 같았다. 등에 멘 가방이 날개로 변한 것인지도 몰랐다.

01 지원이는 앞뒤 따지지 않고 수박을 판 뒤, 친구들이 놀라고 당황하자 그제야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을 깨닫고 걱정하고 있다.

02 은비는 수박 문제에 대해서 자신은 관계가 없음을 명확히 밝히고 자신은 사건에 연관되지 않을 것임을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이성적이고 결단력 있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03 '나'는 수박을 들킬 위기에 처하자 수박을 안고 이리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지원이를 도와주기 위해 신발주머니를 가져와 수박을 숨겨 주었다.

04 '나'는 친구들과 비밀을 공유한 짜릿함과 공범자로서의 사명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사람의 손길이 닿은 게 분명한 수박의 모습에 남의 것을 훔친 것 같아 불편함도 느끼고 있다. 또한 수박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하는 자신의 모습과 달리 평온한 은비를 보며 서운함과 부러움을 동시에 느끼고 있다. 수박을 따서 가져온 것을 자랑스럽게 느끼지는 않는다.

05 '나'는 자신의 생각을 명확히 밝히고 단호하게 손을 떼는 은비의 결단력 있는 태도를 부러워하고 있다.

06 '나'는 수박을 몰래 먹는 것이 비겁한 일이며 또 다른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수박을 판 잘못을 보상하기 위해서는 수박을 공명정대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반 아이들과 나누어 먹자고 하고 있다.

07 '나'는 수박을 판 사실을 고백하고 수박을 공명정대하게

처리하자는 제안에 반대하는 친구들을 답답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자신도 이 일에서 빠져 버릴까 고민하고 있다.

- 08** 친구들은 수박을 화장실에 가서 몰래 먹자고 하고 ‘나’는 담임 선생님께 말해서 다른 아이들과 함께 먹자고 하여 수박 처리와 관련하여 의견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
- 09** ‘나’가 이야기를 할 마음의 준비도 하기 전에 담임 선생님이 바람처럼 다녀갔다고 했으며,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용기가 없어 말을 꺼내지 못했다고 했다.
- 10** ‘나’는 수박을 판 사람은 지원이니까 지원이에게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며, 일을 저지른 지원이가 수박 처리도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 11** 세영이와 인정이 먼저 집에 가 버리고, 수박 처리에 큰 책임이 있는 지원이까지 먼저 집에 가겠다고 하여 ‘나’가 수박 처리를 떠맡게 되었다.
- 12** 계속 가방을 만지고 수박을 먹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아 지원이가 수박에 집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13** 지원이는 고마워서 그러냐는 ‘나’의 질문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으응, 그렇지 뭐. 그래, 고맙다고 해야 되냐?” 하며 마치 못해 대답하고 있다. 이런 태도로 보아 지원이는 ‘나’가 수박을 대신 처리해 주는 것을 고마워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14** ‘나’가 수박을 집으로 가져가서 처리하기로 했으나, 민아에게서 수박이 교장 선생님이 정성스럽게 가꾼 것임을 알게 된 뒤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하고 있다.
- 15** ‘나’는 수박을 원래 있던 자리에 가져다 두라는 민아의 말에 양심을 속이는 일이라고 하면서, 이 행동이 작은 잘못의 징벌을 피하기 위해 더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 16** ‘나’는 지원이가 화를 내고 가고 민아도 합창실로 떠나자 속상함과 부담감, 외로움에 주저앉고 있다.
- 17** 은비는 수박 문제가 자신과 관련이 없다며 단호하게 선을 그었지만, ‘나’가 수박 때문에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알고 ‘나’를 도와주려고 한다.
- 18** ‘나’는 혼자 남겨졌다는 부담감과 속상함에 가방이 바윗덩어리처럼 무겁게 느껴졌지만 은비의 도움으로 수박을 처리하고 난 뒤에는 마음이 홀가분해져서 가방이 날개로 변해 날아가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다.

내일은 내일에게

꼭꼭 확인 문제

250~258쪽

01 ② 02 ⑤ 03 ⑤ 04 ④, ⑤ 05 편지 06 ⑤ 07 ③ 08 ②
09 ④

- 01** 엄마가 공과금 고지서를 보고 한숨을 쉬는 것을 통해 공과금을 어떻게 내야 할지 고민할 정도로 연두네 경제적 상황이 넉넉하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다.
- 02** 엄마는 연두가 생활비에 보태라며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을 내놓자, 자신의 능력이 부족해서 연두가 아르바이트를 하며 고생하고 있다는 생각에 비참함을 느끼고 있다.
- 03** 녹두는 휴대 전화를 훔치지 않았다는 자신의 말을 믿지 않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추궁하는 엄마의 말에 화가 나 소리를 치고 있다.
- 04** 마농은 고민하는 연두를 위로하고 엄마에게 다가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껏 표현하라고 하며, 사랑하는 사람들이 기뻐할 일을 찾아볼 것을 권유하고 있다.
- 05** 연두는 마농의 조언에 떠올리며 편지를 써서 부치고, 엄마는 편지를 읽은 뒤 연두와 서로 마음을 확인하고 갈등을 해소하게 된다.
- 06** 연두와 엄마가 서로를 이해하면서 갈등이 해소되기는 했으나 연두네 형편이 변한 것은 아니므로 엄마의 고생이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 07** 녹두와 엄마의 다툼을 연두가 말린 것은 맞지만 이를 통해 녹두와 엄마가 갈등을 해소하지는 않았다.
- 08** 연두가 아르바이트 한 돈으로 녹두의 휴대 전화를 사 준 것을 통해 둘의 사이가 좋음을 알 수 있으며, 엄마가 녹두가 휴대 전화를 훔쳤다고 오해하며 녹두의 말을 믿어 주지 않아 녹두와 갈등을 일으켰다.
- 09** 연두가 자신의 마음을 담아 편지를 쓰고 이를 읽은 엄마가 오디션장에 찾아와 연두와 엄마가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화해하게 되었다.

01 ㉓ 02 일단 일을 저질러 놓고 보는 지원이었다. 03 ㉓ 04 ㉓ 05 ① 06 ② 07 ④ 08 수박을 우리끼리 먹는 것은 비겁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09 '나'는 인정이와 세영이처럼 지원이에게 수박 처리를 맡기고 갈지 말지를 고민하며 내적 갈등을 하고 있다. 10 수박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하던 '나'는 은비의 도움으로 수박을 원래 있던 곳에 가져다 둬으로써 갈등을 해결했다.

01 수박을 따 버린 상황에서 학생들이 각기 다르게 대응하는 모습, '담임 쌤', '울트라 쿨녀' 등의 표현에서 실제 아이들이 하는 행동이나 언어 표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소설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주인공 '나'의 심리와 갈등이 직접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02 (가)에서 지원이는 뒷일은 생각하지 않고 수박을 따 버리는 충동적이고 생각보다 행동이 앞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지원이에 대해 '일단 일을 저질러 놓고 보는' 성격이라며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03 (다)에서 친구들은 수박을 우리끼리 몰래 먹자고 하고 '나'는 수박을 딴 행동이 잘못이나 처리할 때만이라도 공명정대하게 하자고 하고 있다. 공명정대하게 수박을 처리한다는 것은 공정하게 반 아이들과 다 같이 나누어 먹을 것을 말한다.

04 은비가 수박 사건에서 빠지겠다고 하는 것은 친구의 잘못된 행동에 이성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일 뿐, 계산적이거나 자기중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마)에서 은비가 수박을 처리하는 '나'를 돕는 것에서도 은비가 이기적인 인물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왜 틀렸을까? ① 은비는 모두 당황하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의견을 똑부러지게 밝히고 있다.

② (라)에서 '나'는 자신도 수박을 지원이에게 맡기고 가야 하는지 말지를 결정하지 못하고 계속 고민만 하고 있다.

④ 지원이는 수박을 먹고 싶다는 생각에 누구의 수박인지 알아보지도 않고 말릴 새도 없이 수박을 따 버렸다.

⑤ 은비가 자신은 빠지겠다고 한 상황에서 수박을 안고 어쩔 줄 모르는 지원이를 도와주는 일이 먼저라며 신발 주머니를 가져오고 있다.

05 은비는 ㉓에서 자신은 수박과 관련이 없다며 수박 사건에서 자신은 빠지겠다고 말하고 있다. 결국 수박 문제를 함께 책임져야 하는 상황은 인정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06 '나'는 지원이가 수박을 따기 때문에 그것을 처리할 책임도 지원이에게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원이가 집에 가겠다고 하자 정말 뜻밖이라고 느끼고 있다. 따라서 ㉓을 듣고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라 놀라고 당황했을 것이다.

07 ㉓는 수박을 화장실에서 몰래 먹는 것에 찬성하지 않는 '나'의 마음이 드러난 행동이다.

왜 틀렸을까? ① 수박을 따는 지원이의 모습을 '오랜 세월 농사를 지은 농부'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② 지원이의 행동에 놀라 아무도 말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그려져 있다.

③ 수박 문제에서 빠지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기 위한 발자국 몰러서고 또박또박 말하고 있다.

⑤ 은비의 도움으로 수박을 돌려놓은 뒤 가벼워진 마음을 드러낸 표현이다.

08 '나'는 수박을 화장실에 숨어서 먹는 것도 잘못이라고 생각하며, 누군가 정성껏 가꾼 수박을 딴 잘못을 보상하기 위해서 수박의 처리 문제는 공명정대해야 하기 때문에 반 친구들과 다 같이 먹자고 제안하고 있다.

인정 답안 수박을 몰래 먹는 것은 잘못에 또 하나의 잘못을 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수박을 숨어서 먹는 것보다 다 같이 먹는 것이 수박을 공명정대하게 처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채점 기준

채점 요소	채점 기준	배점
내용	친구들이 제안한 내용을 포함함.	1
	'나'가 수박을 다 같이 먹자고 한 이유를 제시함.	2
형식	제시된 형식을 따르지 않음.	-1
	맞춤법에 어긋남(횡수에 상관없이).	-1

09 (라)에서 '나'는 자신도 인정이와 세영이처럼 수박 처리를 지원이에게 맡기고 가야 할지 말지 고민하고 있다.

인정 답안 '나'가 지원이에게 수박을 처리하라고 하고 가야 할지 내적으로 갈등하고 있다.

채점 기준

채점 요소	채점 기준	배점
내용	(라)에 나타난 갈등이 내적 갈등임을 밝힘.	2
	'나'가 고민하는 갈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서술함.	2
형식	완결된 한 문장으로 서술하지 않음.	-1
	맞춤법에 어긋남(횡수에 상관없이).	-1

10 <보기>에는 수박 처리로 인해 고민하는 ‘나’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마)에서 ‘나’는 은비의 도움으로 수박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인정 답안 수박 처리 방법에 대해 갈등하던 ‘나’는 은비의 말에 따라 수박을 제자리에 놓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했다.

채점 기준

채점 요소	채점 기준	배점
내용	<보기>에 드러난 갈등의 내용을 제시함.	2
	갈등을 해결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함.	2
	은비가 갈등 해소에 도움을 주었음을 밝힘.	2
형식	완결된 문장들의 구성으로 서술하지 않음.	-1
	맞춤법에 어긋남(횡수에 상관없이).	-1

(2) 문제를 해결하는 토의

꼭꼭 확인 문제 268~281쪽

01 학교의 아기 고양이를 도울 방법을 함께 찾아보고자 한다. 02 ① 03 절충안 04 ①, ③ 05 ⑤ 06 ③ 07 ① 08 ④ 09 ⑤ 10 근거 11 ⑤ 12 ③ 13 최근 배달 음식 주문이 늘어나면서 일회용 포장 용기의 배출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14 시민 대표

- 01 학교에서 지내는 아기 고양이가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토의를 하려고 하고 있다.
- 02 이다빈은 김예준의 의견 중 담당자를 정하는 것에 찬성하고 생태 분과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급별로 당번을 지정해 먹이를 주자고 하고 있다.
- 03 토의에서 의견을 나눈 결과, 토의자들이 생태 분과 학생들이 담당자가 되자는 의견과 학급별로 당번을 정하자는 의견을 절충하여 생태 분과 학생들과 자원한 학생들이 함께 먹이를 주는 것에 동의했다.
- 04 토의에서 사회자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토의를 진행하는 역할을 한다. [A]에서 사회자는 토의를 통해 모아진 의

견을 요약하여 정리하고 앞으로 논의할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 05 사회자의 마지막 발언 내용을 고려할 때 이 토의에서는 고양이 먹이 주기 당번과 사료를 마련할 방법을 정하고 고양이를 장기적으로 도울 방법으로 고양이를 입양할 가정을 찾는 문제에 대해 논의했음을 알 수 있다.
- 06 토의자는 주제와 관련된 의견을 근거와 함께 제시하고 의견을 조정하며 해결 방안을 찾는 역할을 한다. 토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거나 주제를 중심으로 일관된 토의를 진행하는 것은 사회자, 토의를 듣고 질문을 하는 것은 청중의 역할이다.
- 07 제시된 발언을 한 토의자는 상대의 의견을 비난하며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러한 토의 태도는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아서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다.
- 08 고하영이 고양이 사료 마련 방법과 관련하여 모금을 하자고 했다가, 이다빈과 김예준의 의견을 듣고 기부를 받는 방법으로 자신의 의견을 조정하고 있다.
- 09 토의는 주제와 관련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서로 의견을 조정하며 최선의 해결 방법을 찾아 나가는 말하기이므로, 객관적인 사실만 다룬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10 토의에 참여하여 자신의 의견을 발언할 때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적절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 11 토의는 여러 사람이 의견을 교환하여 최선의 해결책을 찾는 말하기이므로 자신의 의견만 고집하지 말고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 12 일회용 포장 용기 문제라는 토의의 주제에 대한 토의자들의 의견을 정리해 본다. 1인분 음식을 포장할 때 9.2개의 플라스틱이 사용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플라스틱을 적게 쓰는 용기를 개발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 13 토의의 처음 부분에서 사회자가 토의를 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배달 음식 주문이 늘어나면서 일회용 포장 용기의 배출이 늘어나고 있는 문제에 대해 토의할 것임을 이야기했다.
- 14 환경 단체 관계자나 지역 자치 단체 관계자, 음식점 사장은 모두 다회용기 배달을 해결 방안으로 생각하고 이와 관련한 개선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시민 대표는 음식을 배달할 때 일회용품 안 받기를 선택하는 방법을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01 ⑤ 02 ① 03 ② 04 ③ 05 ①, ② 06 ③ 07 (1) 기부받음 (2) 입양할 가정 08 토의에서는 자신의 의견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에서는 의견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09 모금하려면 선생님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모금한 돈의 관리가 쉽지 않다. 10 토의는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사람이 의견이나 생각을 주고받는 협력적인 말하기이다. 학교의 고양이 문제는 공동의 문제이므로, 토의와 같은 방식을 통해 여러 사람이 함께 결정하면 보다 좋은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어 유용하다.

01 토의에서 주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맞지만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조정하며 최선의 해결책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이 목적인 말하기는 토론이다.

02 이 토의에서는 학교에 있는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당번, 사료를 마련할 방법, 장기적으로 도울 방법 등을 논의하고 있다. 이를 고려할 때 토의의 주제는 '학교의 아기 고양이를 어떻게 도울까?'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왜 틀렸을까? ②, ④ 길고양이 문제 해결과 고양이의 수명 증가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

③ 고양이를 도울 방법과 관련하여 먹이 주는 당번, 사료를 마련할 방법을 논의했을 뿐, 어떤 먹이를 주어야 하는지와 관련된 내용은 찾을 수 없다.

⑤ 먹이를 주는 당번을 결정하는 문제를 논의하기는 했지만 이는 토의의 일부일 뿐, 어떻게 먹이를 주어야 하는지가 전체 토의 내용을 포괄하지는 못한다.

03 이 토의에서 사회자는 절차에 따라 토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했고, 토의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해 주었다. 또한 발언 기회를 골고루 주기 위해 노력했다.

왜 틀렸을까? ⑥는 청중, ㉠, ㉡는 토의자의 역할이다.

04 최지호는 상대방의 의견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며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는 발언을 하고 있다. 토의에서는 참여자들이 협력하여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야 하므로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05 고양이에게 다양한 음식을 먹이로 주는 것과 관련된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으며, ㉠의 절충안은 학교 구성원의 참여를 늘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06 ㉠에서 고하영은 다른 토의자들의 의견을 듣고 자신의 의견을 수정하여 제시하고 있다.

07 토의를 통해 사료를 기부받는 방법으로 고양이 사료를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고양이를 장기적으로 돕기 위해 입양 보내기로 했다.

08 ㉠에는 모금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의견만 드러나 있을 뿐 그 근거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인정 답안 의견을 뒷받침할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이라는 주장을 믿게 하는 근거가 없어 설득력이 떨어진다.

채점 기준

채점 요소	채점 기준	배점
내용	의견과 함께 근거를 제시해야 함을 서술함.	2
	근거가 없는 문제점을 제시함.	2
형식	완결된 한 문장으로 서술하지 않음.	-1
	맞춤법에 어긋남(횡수에 상관없이).	-1

09 이다빈은 모금하는 경우의 어려움들을 지적하고 사료를 기부받는 것이 실천 가능성이 높음을 근거로 들어, 모금보다 사료 기부가 낫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인정 답안 돈 관리가 쉽지 않다. 사료를 기부받는 것이 학생 수준에서 실천하기 쉬운 방법이다.

채점 기준

채점 요소	채점 기준	배점
내용	2가지 근거를 제시함(각 2점).	2
형식	각각 완결된 한 문장으로 서술하지 않음.	-1
	맞춤법에 어긋남(횡수에 상관없이).	-1

10 학교의 고양이 문제는 공동의 문제이다. 그러므로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사람이 의견을 주고받는 말하기인 토의를 통해 문제 해결 방식을 찾을 수 있다.

인정 답안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사람의 의견을 주고받는 말하기인 토의를 통해 문제 해결 방식을 찾으면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아 최선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채점 기준

채점 요소	채점 기준	배점
내용	여러 사람이 의견을 교환하는 토의의 특성을 제시함.	2
	토의로 문제를 해결할 때의 장점을 밝힘.	3
형식	완결된 문장들의 구성으로 서술하지 않음.	-1
	맞춤법에 어긋남(횡수에 상관없이).	-1

01 ③ 02 ⑤ 03 ④ 04 민아 05 (라)에서는 수박을 제자리에 가져다 놓으려는 지원이와 이를 거절하는 '나'가 외적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마)에서는 '나'가 수박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하며 내적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06 ③ 07 ④ 08 ④ 09 ④ 10 ③ 11 공공대지 말고 수박을 있던 데 가져다 두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명쾌한 성격이다. 수박 문제로 고민하는 '나'를 돕는 것으로 보아 친구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는 성격이다. 12 ③ 13 ③ 14 연두는 고생하는 엄마를 돕고 싶어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엄마는 자신이 부족해 연두가 고생한다는 생각에 화를 내었다. 15 마농 16 ③ 17 ② 18 ② 19 ③ 20 많은 인원이 돌아가면서 먹이를 주면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21 고양이 사료를 마련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사료를 기부받는 것 22 ⑤ 23 ④ 24 환경 단체 관계자는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배달 제도를 제안했다. 이를 위해 시민들에게 다회용기 배달을 홍보하고, 음식점이 다회용기 배달을 확대해야 한다. 25 배달 음식을 주문할 때 '일회용품 안 받기'를 선택하는 것

01 이 글에는 수박 처리를 둘러싼 친구들과 '나'의 갈등, 수박 처리에 대해 고민하는 '나'의 내적 갈등이 드러나 있다. 이러한 갈등은 모두 지원이가 교장 선생님이 가꾸는 수박을 따 버려서 일어난 것들이다.

왜 틀렸을까? ① '나'와 친구들이 수박을 몰래 따다는 비밀을 공유하며 짜릿함과 연대감 등을 느꼈지만, 이로 인해 갈등이 일어나지는 않는다.

②, ④ 이 글에서 일어나지 않은 사건이다.

⑤ 수박 처리에서 손을 뗄지 고민했을 뿐 실제로 손을 떼려고 하지는 않았다. 또한 고민하는 상황이 내적 갈등에 해당하지만 갈등의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02 '나'는 수박을 집에 가져가 부모님과 먹는 상상을 하면서도 이를 어찌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수박 문제와 관련하여 부모님의 조언을 얻고자 하는 생각은 드러나지 않는다.

03 '나'는 교장 선생님이 무서워서 잘못을 사과하지 않고 수박을 몰래 돌려놓는 것은 양심을 속이는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왜 틀렸을까? ① 수박 처리에 대한 친구들과의 의견 차이로 수박 문제에서 손을 떼 버릴지 고민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냉철함이나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우유부단한 자신에 대한 자책이 드러나 있다.

② 초연하고 평온한 은비를 부러워하며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자신을 자책하고 있을 뿐, 생각보다 행동이 앞서는 모습은 드러나지 않는다.

③ 지원이에게 가방을 빼앗기지 않으려 한 것을 수박을 몰래 돌려놓는 일이 잘못이기 때문이다. 양심적으로 행동하려는 모습일 뿐 결단력과는 거리가 있다.

⑤ 수박에 대해 선생님께 이야기하고 잘못을 반성하려는 모습을 보일 뿐 자신의 의견만 옳다고 고집하는 것은 아니다.

04 민아는 지원이가 딴 수박이 교장 선생님이 가꾸는 것이라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수박 처리와 관련하여 새로운 문제를 제시했다. 또한 수박을 제자리에 가져다 두라고 함으로써 '나'와 지원이가 갈등을 일으키는 계기를 제공했다.

05 (라)에서는 수박 처리를 둘러싸고 '나'와 지원이가 갈등하고 있으며, (마)에서는 '나'가 수박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인정 답안 (라)에서는 수박을 원래 있던 데 가져다 두는 문제로 '나'와 지원이가 외적 갈등을 겪고 있다. (마)에서는 '나'가 수박을 먹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며 내적 갈등을 겪고 있다.

채점 기준

채점 요소	채점 기준	배점
내용	(라), (마)에 나타난 갈등의 종류를 밝힘(각 1점).	2
	(라), (마)에 나타난 갈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함(각 2점).	4
형식	각각 완결된 한 문장으로 서술하지 않음.	-1
	맞춤법에 어긋남(횡수에 상관없이).	-1

06 (가)에서 친구들이 눈빛 교환을 하며, 들통나면 비난받을 비밀을 공유하고 있다는 짜릿함과 이로 인한 연대감, 공범자로서 서로를 지켜 줘야 한다는 사명감 등을 느꼈다고 했다.

07 '나'는 수박 문제에서 손을 떼 버릴지 고민하다가 지원이가 수박을 따올 때 자신도 쾌감을 느꼈음을 떠올리며 수박 사건에 책임감을 느끼고 마음을 고쳐먹었다.

08 수박 처리를 둘러싸고 일어난 갈등은 '나'가 은비의 도움으로 수박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갈등이 원인이었던 수박을 처리하기는 했으나 친구들과 화해하고 있지 않으므로 친구들과의 갈등이 해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왜 틀렸을까? ① (가)의 첫 부분을 고려할 때 서술자 '나'가 이미 일어난 사건을 회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라)의 '욕하기 대장, 지원이답다.'와 같은 표현을 통해 인물의 성격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③ (가)에서 '나'는 수박 때문에 갈등을 겪다 결국 수박을 돌려놓은 사건을 '한바탕 꿈을 꾸는 것 같기도' 하다고 했다.

⑤ (나)에서는 수박을 화장실에서 몰래 먹자는 친구들과 선생님께 말씀 드리고 다 같이 먹자는 '나'가 갈등하고 있으며 (라)에서는 수박을 돌려놓자는 지원이와 이를 거절하는 '나'가 갈등하고 있다.

09 ㉠은 '나'의 고민, ㉡, ㉢은 누군가 가꾼 수박을 딴 것, ㉣은 수박을 우리끼리 몰래 숨어서 먹는 것, ㉤은 벌을 피하기 위해 수박을 돌려놓는 것을 의미한다.

10 ㉠은 줄지에 홀로 남겨져 수박 문제를 혼자 해결해야 하는 부담감과 외로움에 짓눌린 '나'의 마음을 나타내고, ㉡은 은비의 도움으로 수박 문제를 마무리짓고 가벼워진 '나'의 마음을 나타낸다.

11 (마)에서 은비는 고민하는 '나'에게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수박을 처리하는 것을 도와주고 있다.

인정 답안 망설이는 '나'의 손을 잡아 이끄는 것으로 보아 결단력 있고 시원한 성격이다. 어려움에 빠진 '나'를 외면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의리 있는 성격이다.

채점 기준

채점 요소	채점 기준	배점
내용	은비의 성격을 보여주는 부분을 두 가지 드러냄(각 1점).	2
	(마)에 드러난 은비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설명함(각 2점).	4
형식	완결된 한 문장으로 서술하지 않음.	-1
	맞춤법에 어긋남(횡수에 상관없이).	-1

12 이 글은 연극 공연을 전제로 하는 희곡이다. 희곡은 인물의 대사와 행동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기 때문에 서술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개념-원리 체크

희곡의 구성

- 해설: 글의 첫머리에서 인물과 배경 및 무대 장치 등을 소개함.
- 대사: 등장인물이 하는 말.
- 지시문: 인물의 표정이나 행동, 음향, 카메라 위치 등을 지시하는 말.

13 (나)에서 엄마는 휴대전화와 관련하여 녹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녹두는 엄마가 자신의 말을 믿어

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서 갈등하고 있다.

14 연두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내민 월급봉투를 돌려싸고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연두가 아르바이트를 한 이유와 이를 알게 된 엄마의 마음을 정리해 본다.

인정 답안 연두는 엄마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엄마는 그 마음은 알아주지 않고 자신의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여 연두를 고생시켰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채점 기준

채점 요소	채점 기준	배점
내용	연두의 입장을 적절히 서술함.	3
	엄마의 입장을 적절히 서술함.	3
형식	완결된 한 문장으로 서술하지 않음.	-1
	맞춤법에 어긋남(횡수에 상관없이).	-1

15 마농은 엄마와의 문제로 고민하는 연두를 위로하고 감정을 표현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을 찾아보라는 조언을 하고 있다. 또한 마농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직진하고 오늘을 잘 살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16 연두는 엄마에 대한 감정을 표현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을 찾아보라는 마농의 말을 듣고 편지를 썼다.

17 ㉠ (라)에서 연두가 선물을 직접 전달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연두가 아르바이트를 그만두려고 하는 것을 짐작할 단서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18 토의에서 근거와 함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토의자이다. 사회자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토의를 진행해야 하므로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

19 ㉠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부정적으로 평가하여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는 발언이다. ㉡ 적절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아 설득력이 떨어지는 발언이다.

개념-원리 체크

토의에 참여하는 바람직한 태도

- 공동의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협력적인 태도로 임한다.
- 자신의 의견을 조리 있고 분명하게 표현하되, 예의 바른 태도로 이야기한다.
- 다른 참여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며,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발언을 삼간다.

20 이다빈 학생은 학급별로 담당자를 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인원이 많으면 부담이 줄어든다는 근거를 들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21 (다)에서 토의자들이 고양이 사료 살 돈을 모금하자는 의견과 사료를 기부받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토의에서는 고양이의 사료를 마련할 방법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의견을 교환한 결과 토의자들은 모두 사료를 기부받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

인정 답안 고양이에게 줄 사료를 마련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료를 살 돈을 모금하는 것보다 사료를 기부받는 것

채점 기준

채점 요소	채점 기준	배점
내용	(다)에서 논의하고 있는 문제를 제시함.	2
	논의를 통해 결정된 해결 방법을 제시함.	2
형식	제시된 형식을 따르지 않음.	-1
	맞춤법에 어긋남(횡수에 상관없이).	-1

22 토의에서 청중이 토의 주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기는 하지만 (라)에서는 궁금한 점을 질문하고 있을 뿐이다.

왜 틀렸을까? ① 사회자는 ‘학교의 아기 고양이를 어떻게 도울까?’라는 주제를 소개하고, 토의자들의 의견 교환, 청중과의 질의응답 순서로 토의가 진행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다.

② 이다빈은 학생회 생태 분과 학생들이 고양이 먹이 담당자가 되면 부담이 너무 커진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③ 모금을 하자고 한 고하영은 모금의 문제점에 대한 이다빈의 의견을 듣고, 기부를 받아 사료를 마련하는 것으로 자신의 의견을 조정하고 있다.

④ 최지호는 길고양이의 수명이 집고양이보다 많이 짧다는 수의사의 의견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23 토의자들이 음식을 배달할 때 일회용 포장 용기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24 환경 단체 관계자는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음식을 배달할 때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것을 제안하고, 지방 자치 단체 관계자와 음식점 사장은 다회용기 배달 제도를 개선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인정 답안 다회용기 배달을 정책적으로 지원한다.

채점 기준

채점 요소	채점 기준	배점
내용	환경 단체 관계자의 제안을 밝힘.	2
	다회용기 배달 제도에서 개선해야 할 점을 적절히 서술함(각 2점).	4
형식	완결된 한 문장으로 서술하지 않음.	-1
	맞춤법에 어긋남(횡수에 상관없이).	-1

25 음식을 배달할 때 일회용기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환경 단체 관계자는 다회용기 배달을 제안했으며 이와 관련하여 지방 자치 단체 관계자와 음식점 사장은 다회용기 배달 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이야기했다. 시민 대표는 이들과 달리 배달 음식을 주문할 때 일회용품 받지 않는 방법을 제안했다.

1 문학과이 만남

(1) 시의 표현

대표 유형 문제

301~302쪽

01 ① 02 ③ 03 ③ 04 ② 05 ① 06 (1) (하얀) 이불 (2) (잠자리에서 뛰어 나온) 아이들 07 별, 돌 08 ④ 09 아름답거나 가치 있는 대상은 제자리에 있을 때 의미가 있다. 10 ①

01 (가)는 ‘아침’, ‘점심’과 같은 시어를, (나)는 ‘별’, ‘초승달’과 같은 시어를 제시하여 시간적 배경을 짐작할 수 있으며, (가)와 (나) 모두 일상에서 사용하는 쉬운 말로 이루어져 있다.

왜 틀렸을까? ② 봄눈이 내린 산과 들의 풍경을 그려 내어 공간적 배경을 알 수 있게 하는 (가)에만 해당하는 특징이다.

④ 엄마와 아이의 대화로 시상이 전개되는 (나)에만 해당하는 특징이다.

⑤ 전반부의 고요한 분위기에서 후반부의 활기찬 분위기로 바뀌는 (가)에만 해당하는 특징이다.

02 (가)에서는 ‘점심 무렵에는, 산과 들’ 등, (나)에서는 ‘따주세요, 따 줄 수는 있어, 참았기 때문이야’ 등의 구절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03 1~3연에서는 봄눈이 하얗게 덮인 산과 들의 모습, 골짜기를 흐르는 시냇물 소리 등을 통해 조용하고 고요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고, 4연에서 다시 해가 떠오르고 눈이 녹은 자리에 새싹이 돋아나면서 활기 넘치는 분위기가 드러난다.

04 ㉠에는 ‘봄눈’을 ‘이불’에 빗댄 은유와 산과 들에 눈이 내린 것을 이불을 덮었다고 사람처럼 표현한 의인이 사용되었다. ㉡에는 ‘파란 싹’을 ‘아이들처럼’으로 표현한 직유와 파란 싹이 난 것을 아이들이 왁자지껄 일어난 것으로 표현한 의인이 사용되었다.

왜 틀렸을까? ① 상징, ③ 은유, ④ 직유, ⑤ 반어

05 ㉠에서 원관념은 ‘물소리’, 보조 관념은 ‘자장가’이다. 물소리를 자장가에 빗낼 수 있었던 공통점은 작고 나직한 소리라는 점이다.

06 봄눈이 내린 산과 들을 하얀 이불을 덮은 것으로, 파란 싹이 돋아난 것을 아이들이 잠자리에서 뛰어나온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07 하늘에서 반짝이던 ‘별’이 땅에 내려오면 시들어 ‘돌’이 된다고 한 것으로 보아 아름다운 동경의 대상을 의미하는 ‘별’과 생기를 잃어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돌’이 대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8 ㉢ 별이 땅으로 내려오면 시든다고 한 것으로 보아 어떤 상황에서도 가치가 변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 많은 사람이 별을 갖고 싶어 하지만 참는다고 했을 뿐 별에 호불호가 있음을 짐작하게 하는 내용은 없다.

09 엄마는 별을 따 달라는 아이에게 ‘별’은 하늘에 있을 때는 아름답지만 땅에 내려오면 시든다며 갖고 싶어도 참아야 한다고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원하는 것을 손에 넣으면 그 가치가 사라질 수 있다는 의미를 전하고 있다.

인정 답안 동경하거나 갖고 싶어 하는 대상은 그것을 소유하는 순간 훼손되거나 그 가치를 잃을 수 있다.

채점 기준

채점 요소	채점 기준	배점
내용	‘별’의 상징적 의미를 고려하여 서술함.	3
	(나)를 통해 전하고자 하는 생각을 적절히 서술함.	3
형식	완결된 한 문장으로 서술하지 않음.	-1
	맞춤법에 어긋남(횡수에 상관없이).	-1

10 <보기>는 형식적 특성을 통해 운율이 드러나는 정형시이다. 각 행은 4음보로 끊어 읽을 수 있으며 일정한 글자 수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으나, 같은 글자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지는 않다.

01 ④ 02 잠자리에서 뛰어나온 / 아이들처럼 // 파란 싹들이 / 왓
 자지껓 / 일어나 있다. 03 ④

01 (가)는 봄눈이 왔다가 녹은 이른 봄의 풍경을 그려 내고 있을 뿐, 이를 통해 삶의 교훈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보기>가 '바위'를 통해 굳건한 삶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왜 틀렸을까? ① (가)에서는 산과 들에 봄눈이 내린 것을 이불을 덮었다고 하거나 파란 싹이 돌아난 것을 잠자리에서 뛰어나온 아이들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보기>에서는 '물, 바위, 소나무, 대나무, 달'을 벗이라고 하여 사람처럼 표현하고 있다.

② (나)에서는 '별', <보기>에서는 '바위'에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여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③ (나)는 '별'을 동경하는 대상으로 그리고 있지만 땅에 내려오면 시든다면서 예찬하지 않은 데 반해 <보기>에서는 변하지 않은 덕성을 지닌 바위를 예찬하고 있다.

⑤ <보기>는 자신의 벗들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면서 화자 혼자 이야기하는 데 반해, (나)에서는 엄마와 아이의 대화 형식으로 따뜻하고 친근한 느낌을 주고 있다.

02 7~8연에서 봄눈이 녹은 자리에 새싹이 돌아나는 모습을 그려 내어 봄날의 생동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 '파란 싹들'을 '잠자리에서 뛰어나온 아이들처럼'이라고 표현하여 직유, 의인을 확인할 수 있다.

고난도 심화 문제 해법

1 <보기>에 제시된 내용 이해하기

- 이른 봄날의 생동감 넘치는 풍경을 나타냄.
- 직유와 의인을 활용하여 생생하게 표현함.



2 <보기>의 의도 파악하기

- 원관념이 이른 봄날의 생동감 넘치는 풍경과 관련된 비유 표현이 드러나는 부분
- 직유와 의인을 활용하고 있는 부분



3 시에서 적절한 구절을 찾기

03 (나)에서 엄마는 '별'을 갖고 싶어서 따 버리면 시들어 버린다고 하고 있다. 이것은 원하는 것을 소유하면 그 아

름다움이나 가치를 잃을 수도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소유하는 것이 반드시 긍정적인 것은 아니라는 관점이 드러난다.

왜 틀렸을까? ②, ③ 별을 따 달라는 아이를 만류하며 사람들이 별을 갖고 싶어도 참았기에 하늘에 별이 많다고 하고 있다. 소유하는 것 자체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

⑤ 별을 따서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라는 것이 아니라 별을 하늘에 그대로 두라고 하고 있다.

(2) 산문의 아름다움

대표 유형 문제

01 ③ 02 소나기 03 ⑤ 04 소녀의 죽음을 암시한다. 05 ① 06 갑자기 내리고 금방 그치는 '소나기'처럼 찾아와 짧게 끝난 사랑을 상징한다. 07 ① 08 ③ 09 ② 10 글쓴이는 자연의 섭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고, 자연이 자신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었다고 생각하여 '자연'을 '위대한 스승'에 빗대어 표현했다.

01 잠깐 소나기를 맞은 것으로도 파랗게 질려서 떠는 것으로 보아 소녀는 몸이 약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소녀가 자신의 주장만 고집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02 소나기가 오면서 불길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소년과 소녀는 위기에 처한다. 또 소나기로 불어난 물 때문에 소년이 소녀를 업고 개울을 건너며 두 사람은 가까워지게 된다.

03 송아지가 경충거리면서 소녀의 모습이 뒤섞여 보이고 어지러움을 느끼는 상황만 드러났을 뿐 소녀로부터 거

리가 멀어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04** 이 글에서 '꽃'은 소녀를 나타내므로, 꺾이고 일그러진 꽃을 버리는 것은 소녀에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임을 암시하는 복선으로 볼 수 있다. (마)의 내용을 고려할 때 소녀에게 일어날 비극적인 사건은 죽음이다.
- 05** 소녀가 소년에게 '바보'라고 한 것은 소년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소년이 자신의 기대와 달리 말을 걸지 않았기 때문이다.
- 06** 짧고 금세 그치는 '소나기'의 일반적인 특성이 소년, 소녀의 관계와 어떤 유사점이 있는지 생각해 본다.

인정 답안 이 글의 제목인 '소나기'는 짧게 내리고 그치는 비처럼 짧았지만 강렬한 소년과 소녀의 사랑을 상징한다.

채점 기준

채점 요소	채점 기준	배점
내용	'소나기'의 일반적인 특성을 고려함.	3
	'소나기'의 상징적 의미를 설명함.	3
형식	제시된 형식을 따르지 않음.	-1
	완결된 한 문장으로 서술하지 않음.	-1
	맞춤법에 어긋남(횡수에 상관없이).	-1

- 07** 소녀의 스웨터에는 소년과 놀러 갔던 추억의 증거가 남겨져 있다. 따라서 소녀는 이러한 추억을 간직하고 싶은 마음에서 입던 옷을 그대로 입혀서 묻어 달라는 유언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08** 글쓴이는 거미줄에서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쓰는 잠자리를 발견하고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칠수록 거미줄이 잠자리를 죄어 오는 것을 보고 공포를 느껴 잠자리를 도와 주려고 했다.
- 09** 글쓴이는 처음에는 잠자리를 도우려다가 결과적으로 거미와 잠자리 둘 다를 망친 것 때문에 후회하다가, 잠자리 시체에 몰려오는 개미들을 보고 순환하는 자연의 섭리를 깨달았다.
- 10** 글쓴이는 위대한 스승이 권위 있는 가르침을 주듯이, 자연이 자신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었다고 생각하여 자신의 경험과 깨달음을 바탕으로 수필을 썼다.
- 인정 답안** 글쓴이는 원관념 '자연'을 보조 관념 '위대한 스승'에 빗대어 자연은 스스로 순환하기 때문에 인간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깨달음을 표현했다.

채점 기준

채점 요소	채점 기준	배점
내용	원관념 '자연'을 제시함.	2
	보조 관념 '위대한 스승'을 제시함.	2
	글쓴이의 깨달음을 서술함.	2
형식	완결된 한 문장으로 서술하지 않음.	-1
	맞춤법에 어긋남(횡수에 상관없이).	-1

고난도 심화 문제

308쪽

01 ③ 02 ① 03 ④

- 01** 소년이 소녀가 이사 간다는 소식을 듣고 '무어 그리 안타까울 것도 서러울 것도 없었다.'라고 한 것은 안타깝고 서운한 마음을 반어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소녀가 이사 간다는 말을 수없이 되뇌고 대추알의 단맛을 모르는 것에서 이러한 소년의 마음을 알 수 있다.
- 02** ㉠은 호두 서리라는 잘못을 저지르는 상황에서 들킬까 봐 조마조마한 마음을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지은 죄가 있으면 자연히 마음이 조마조마하여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 '도둑이 제 발 저리다.'가 어울린다.

고난도 심화 문제 해법

① ㉠의 상황 파악하기

소년이 밤에 남몰래 호두밭에 가서 호두를 따고 있는 상황임. 호두 송이가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놀람.



② 선지에 제시된 속담의 의미 파악하기

- 도둑이 제 발 저리다: 지은 죄가 있으면 자연히 마음이 조마조마하여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일이 잘못된 뒤에는 손을 써도 소용이 없음을 비꼬는 말
- 사흘 굶어 도둑질 아니할 놈 없다: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몹시 궁하게 되면 못하는 것이 없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자식을 많이 둔 어버이에게는 근심, 걱정이 끊일 날이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 어떤 사물에 몹시 놀란 사람은 비슷한 사물만 보아도 겁을 냄을 이르는 말



③ ㉠의 상황에 적절한 속담 고르기

03 (다)에 비유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으며, 주제와 관련된 소년의 말이나 행동도 드러나 있지 않다.

왜 틀렸을까? ㉠, ㉡ 이 글에서는 소녀의 죽음에 대한 소년의 반응이나 심리를 제시하지 않아 여운을 주는 한편, 소년의 반응에 대해 상상해 보게 한다.

㉢ 이 글에서는 소년이 부모의 대화를 통해 소녀의 죽음을 알게 함으로써 독자에게 충격과 애잔한 느낌을 준다.

단원 종합 문제

309~313쪽

01 ① 02 다시 아침이 오고 / 해가 떠오르더니 03 ⑤ 04 ③
 05 ④ 06 <제3수>에서는 변하지 않는 바위를 예찬하고 있다. 그것으로 보아 작가는 변하지 않는 바위처럼 의연하고 끈기 있는 삶의 태도를 바라고 있다. 07 ⑤ 08 ④ 09 ④ 10 소녀는 조약돌을 던져 말을 걸지 않는 소녀에 대한 원망과 답답함을 드러내었다. 소년은 조약돌을 주무르는 행동을 통해 소녀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었다. 11 ① 12 ③ 13 ② 14 ③ 15 ② 16 '자연'을 '위대한 스승'에 비유하여 자연의 섭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깨달음을 쉽고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01 (가), (나)는 같은 단어나 구절의 반복을 통해, (다)는 일

정한 호흡으로 끊어 읽기를 통해 운율을 느낄 수 있다.

왜 틀렸을까? ② (가)에서는 '파란 싹'을 '아이들'에 빗대고 있으며 (다)에서는 '물, 바위, 소나무, 대나무, 달'을 벗이라고 하여 사람처럼 표현했는데 (나)에는 의인이 사용된 표현을 찾을 수 없다.

③ (나)에서는 '별'과 '돌'을, (다)에서는 '꽃, 풀'과 '바위'를 대비하고 있으나 (가)에서는 대조적인 속성을 지닌 소재를 대비하고 있지 않다.

④ 한 행을 일정하게 끊어 읽을 수 있는 것은 (다)이다.

⑤ 시간의 흐름에 따른 풍경의 변화가 나타나 있는 것은 (가)이다.

02 1~4연은 봄눈이 내린 산과 들의 모습과 봄눈이 녹아 고요히 흐르는 골짜기의 물소리를 통해 조용한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으며 5연에서 다시 해가 뜬 후 6~8연에서는 새싹들이 아이들이 왁자지껄 떠드는 것처럼 돌아났다고 하여 활기 넘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03 ㉠ 아이들이 뛰어노는 풍경을 그린 것이 아니라 새로 돌아난 파란 싹을 아이들에 빗대어 표현한 것이다. ㉢ 봄눈이 내린 풍경과 새싹이 돌아난 생동감을 드러내고 있을 뿐 새싹의 모습을 통해 삶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04 <보기>에는 강아지의 털을 '구름'에 빗댄 직유가 사용되었다. ⑥는 '물소리'를 '자장가'에, ⑦는 하늘에서 별을 따는 것을 나무에서 열매를 따는 것에 '처럼', '듯이' 등을 활용하여 빗대고 있다.

05 엄마는 별이 땅에 내려오면 시들어 버린다고 하면서 별을 따서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즉, 별은 제자리인 하늘에 있을 때 그 아름다움과 가치가 있는 것임을 일깨워 주고 있다.

06 (다)의 <제3수>에서 화자는 변하지 않는 바위를 예찬하고 있다.

인정 답안 변하지 않는 바위처럼 어려움에도 포기하지 않는 굳건한 삶의 태도를 바라고 있다.

채점 기준

채점 요소	채점 기준	배점
내용	작가가 바라는 삶의 태도를 상징하는 소재와 그 특성을 제시함.	3
	작가가 바라는 삶의 태도를 설명함.	2
형식	완결된 한 문장으로 서술하지 않음.	-1
	맞춤법에 어긋남(횡수에 상관없이).	-1

07 (다)의 <제1수>에서 화자는 다섯 자연물을 벗으로 소개하고 더 필요하지 않다고 하고 있다. 다섯 자연물을 벗삼아 살아가는 삶에 만족하는 태도가 드러나 있다.

08 이 글에서 인물 사이의 갈등은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다.

왜 틀렸을까? ① '징검다리, 갈밭, 개울가, 수숫단' 등 향토적인 느낌을 주는 소재가 많이 사용되었다.

② 소년과 소녀의 짧고 순수한 사랑을 상징하는 '소나기'를 통해 주제를 드러내었다.

③ '청량한 가을 햇살 아래 빛나는 갈꽃뿐.'과 같은 시적인 표현과 감각적인 언어를 찾아볼 수 있다.

⑤ 소녀의 죽음을 부모님의 대화를 통해 전달하면서 소년의 반응을 생략하여 깊은 여운을 주고 있다.

09 ㉠ 윤 초시네가 전답을 모두 팔고 집마저 남에게 넘기게 되었다는 것으로 보아 형편이 안 좋아져서 집을 넘기고 이사를 감을 알 수 있다. ㉡ 소나기를 피한 뒤 불어난 도랑물을 건널 때 소녀가 소년에게 순순히 업히는 것으로 보아 소년과 소녀 사이가 친밀해졌음을 알 수 있다.

왜 틀렸을까? ㉠ 소녀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다행이라고 반응하는 것으로 보아 소녀를 피하기 위해 개울가에 늦게 나왔음을 알 수 있다.

㉢ 소녀는 입고 있던 옷을 입혀 묻어 달라는 유언을 통해 소년을 기억하고 싶은 마음을 드러냈을 뿐, 소년에게 자신의 죽음을 숨기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 징검다리에서 소녀의 행동을 따라 하다가 들키자 당황하며 도망치는 것으로 보아 소녀에게 보이기 위해 한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

10 '조약돌'은 소년과 소녀가 서로에 대한 마음을 드러내는 소재이다. 소년, 소녀가 조약돌로 한 행동이 무엇인지, 어떤 상황에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살펴본다.

인정 답안 소녀는 조약돌을 던져 소년에 대한 관심과 기대를 드러내었다. 소년은 소녀를 보고 싶은 마음에 조약돌을 주무르는 행동을 했다. / 소녀는 말을 걸지 않는 소년이 답답하여 조약돌을 던졌다. 소년은 모습이 보이지 않는 소녀가 궁금하여 조약돌을 주물렀다.

채점 기준

채점 요소	채점 기준	배점
내용	조약돌과 관련된 소년, 소녀의 행동을 제시함(각 1점).	2
	행동에 담긴 소년과 소녀의 심리를 설명함.	4
형식	완결된 문장들의 구성으로 서술하지 않음.	-1
	맞춤법에 어긋남(횡수에 상관없이).	-1

11 [A]~[C]의 배경 묘사는 글에 맑고 깨끗한 느낌을 주며 이를 통해 소년과 소녀의 사랑이 더욱 순수하게 느껴지는 효과를 지닌다.

12 ㉠ 소년은 소녀가 자신의 행동을 보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라고 당황하여 징검다리를 헛디디고 있다. ㉡ 소년은 소녀를 보고 싶고 그리운 마음에 소녀네 집이 있는 쪽을 서성이고 있다.

13 ㉢는 소녀가 물장난을 하던 일이 아니라 소녀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허전함을 느끼는 것을 말한다.

14 글쓴이는 거미줄에 걸린 잠자리를 구하려다 잠자리도 구하지 못하고 거미의 먹이도 잃게 만든 뒤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려 한 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있다.

15 글쓴이는 처음에 거미줄의 정교한 솜씨와 아름다움에 감탄하고 있었다. '신비로움과 아름다움의 대상'은 거미줄을 말하는 것이다.

16 글쓴이는 자연을 관찰하고 얻은 통찰을 비유적 표현을 통해 전달하고 있다.

인정 답안 '자연'을 '(위대한) 스승'에 비유하여, 스승이 제자에게 가르침을 주듯이 자연이 인간에게 자연의 섭리를 가르쳐 주는 존재라는 사실을 공감할 수 있도록 표현하고 있다.

채점 기준

채점 요소	채점 기준	배점
내용	비유적 표현임을 밝힘.	2
	표현하고자 한 내용을 적절하게 밝힘.	2
	비유적 표현의 효과를 서술함.	2
형식	완결된 한 문장으로 서술하지 않음.	-1
	맞춤법에 어긋남(횡수에 상관없이).	-1

2 바람직한 언어생활

(1) 어휘의 양상과 쓰임

대표 유형 문제

315~316쪽

01 ② 02 ④ 03 ⑤ 04 전문어 05 ② 06 ⑤ 07 세대에 따라 어휘가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남을 이해하고, 듣는 이를 고려하며 소통해야 한다. 08 ① 09 관용

- 01 (가)와 (나)에 쓰인 어휘는 전문어이며 대부분 고유어가 아닌 외국어를 차용하고 있다.
- 02 <보기>는 (가)에 쓰인 전문어를 풀어서 사용하는 장면이다. 전문어는 구체적이고 정확한 개념을 표현하기 위한 어휘로 빠르고 정확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해 준다. 이를 <보기>처럼 풀어서 설명하면 설명에 시간이 더 걸리게 되고 의사소통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 03 (나)와 (다)는 모두 환자의 상태를 설명하려는 대화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나)에서는 의사와 의사가, (다)에서는 의사와 보호자가 대화하고 있다. 대화를 나누는 상대에 따라 전문어를 알고 있는 의사끼리는 전문어를 사용하고, 전문어를 모르는 보호자에게는 일상적인 단어로 쉽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다.
- 04 (가)와 (나)에 쓰인 어휘는 특정 분야에서 전문적인 개념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는 말인 전문어이다.
- 05 익숙해진 언어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경향은 청소년층보다 노년층에게서 주로 나타나는 특징이다.
- 06 <보기>는 인터넷 언어를 사용해 소통하는 장면이다. '고고', '스포'는 각각 'go'와 'spoiler'에서 따온 말로, 한자어가 아닌 외국어(영어)를 바탕으로 만든 단어이다.
- 07 <보기>는 세대가 다른 할아버지와 손녀가 서로 사용하는 어휘가 달라서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보여 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맥락을 고려하여 소통 상대와 상황에 맞는 어휘를 선택하며 사용해야 한다.
- 인정 답안** 세대에 따라 어휘가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이해하고 듣는 이의 세대를 고려하며 소통해야 한다.

채점 기준

채점 요소	채점 기준	배점
내용	맥락을 구성하는 요소(세대 / 말하는 이와 듣는 이)를 활용함.	3
	바람직한 어휘 사용 태도를 밝힘.	3
형식	완결된 한 문장으로 서술하지 않음.	-1
	맞춤법에 어긋남(횡수에 상관없이).	-1

- 08 (가)에서 손자는 할머니의 '시장하다'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할머니는 손자의 '훈밥'이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 09 (나)에서는 꼭 필요한 말인데 그보다 정확한 표현이 없다면 살아남을 것이고 뜻이 잘 다가오지 않거나 어감이나 뜻이 좋지 않은 말들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될 것이므로 새롭게 만들어지는 말에 큰 거부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며 관용적인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고난도 심화 문제

317쪽

01 ⑤ 02 ③ 03 '쫄면'은 우리말 '쫄깃하다'의 '쫄'과 한자 '면(麵)'이 결합한 이상한 단어이다. 그러나 뜻이 잘 다가오고 어감이 좋아서 살아남게 되었다.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글쓰이는 뜻이 잘 다가오지 않거나 어감이나 뜻이 좋지 않은 말들은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니 새롭게 만들어지는 말에 큰 거부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 01 <보기>는 모두 독서 토론 보고서이다. 보고서는 공식적인 성격을 가진 글로, 소통 목적과 소통 상대 등의 상황 맥락을 고려하여 격식을 갖추어 작성해야 한다.

고난도 심화 문제 해법

① <보기>의 내용 파악하기

- 소통 목적: 독서 토론 보고서 제출
- 소통 상대: 선생님



② <보기>의 문제점 분석하기

소통 상대와 상황에 맞는 어휘를 사용하지 않음.



③ 분석한 문제점과 관련 있는 선지 찾기

02 제시된 글에서 뜻이 잘 다가오지 않거나 어감이나 뜻이 좋지 않은 말들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므로 새말에 거부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했다.

03 (가)에서 글쓴이가 단어 '졸면'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까닭을, (나)에서 '졸면'이 거부감 없이 쓰이는 까닭을 찾아볼 수 있다. (라)에서 글쓴이는 새롭게 만들어지는 말에 거부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정 답안 '졸면'이라는 단어는 '졸깃하다'의 '졸'과 '면(麵)'이 결합해 만들어진 단어로 어법상으로는 어색하지만, 뜻이 잘 통하고 발음이 정겨워 살아남게 되었다. 글쓴이는 새로 만들어진 말 중에서도 이런 말들은 살아남고, 그렇지 않은 말들은 사라지니 새말에 너무 거부감 가질 필요 없이 관용적인 자세를 가지라고 주장하고 있다.

채점 기준

채점 요소	채점 기준	배점
내용	글쓴이가 '졸면'이라는 단어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까닭을 제시함.	2
	'졸면'이 거부감 없이 쓰이는 까닭을 밝힘.	2
	글쓴이의 주장을 이끌어 냄.	2
형식	완결된 문장들의 구성으로 서술하지 않음.	-1
	맞춤법에 어긋남(횡수에 상관없이).	-1

(2) 매체로 소통하기

대표 유형 문제

319~320쪽

01 ③ 02 ⑤ 03 ④ 04 ④ 05 ② 06 ④ 07 부정적(차별적)

01 (가)는 학교 누리집으로 공적인 정보를 공유하며, 특정 집단의 구성원이 소통에 참여하고, 격식을 갖춘 표현을 사용한다는 특징이 있다. (나)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로 사적인 생각을 표현하고,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도 소통이 가능하며, 친근한 표현을 사용해 소통한다. (가)와

(나) 모두 인터넷에 기반하여 쌍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상호 작용적 매체이다.

02 (가)와 (나) 매체에서 맥락에 맞는 의사소통을 했는지 점검하기 위해서는 소통 목적을 고려했는지, 소통 참여자의 특성을 고려했는지, 상황에 맞는 언어로 소통했는지, 소통 참여자를 존중하고 배려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03 온라인 대화는 실시간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매체이다.

왜 틀렸을까? ① 문자 외에도 사진, 이모티콘 등을 활용해 소통하고 있다.

② '정우'라는 친구와 일대일로 소통하고 있다.

③ '정함', '감'과 같이 명사형으로 문장을 끝맺고 있다.

⑤ 사적 상황에서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하고 있다.

04 (가)는 온라인 단체 대화 중 언어폭력이 일어난 상황이다. 상대방을 조롱하고 비하하는 표현은 상대의 인격을 깎아내리며 기분을 상하게 하고, 우울, 분노 등의 정서적 고통을 느끼게 하기도 한다. 이러한 언어폭력은 장기적으로는 대인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사회 공동체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지니므로 신체적인 폭력에 비해 고통이 덜하다고 볼 수 없다.

05 언어폭력을 사용하지 않으려면 상대방을 존중하는 표현을 생활화해야 한다. 공감과 관심 표현하기, 격려와 응원하기 등 상대방의 관점에서 생각하며 상대방의 입장과 감정을 고려하여 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자신의 언어생활을 성찰하여 폭력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06 '병어리장갑'은 언어 장애인의 성대와 혀가 붙어 있다고 믿은 옛사람들이 장갑의 형태를 보고 부르게 된 단어로 장애인을 비하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왜 틀렸을까? ① (나)에서 패션업계는 차별·혐오 표현을 쓰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반소매'는 팔이 짧은 이들에게 차별적인 단어로 느껴질 수 있는 '반팔'의 대체 표현이다.

③ '반팔', '긴팔'은 각각 '반소매'와 '긴소매'로 표현을 대체할 수 있다.

⑤ '병어리장갑'을 '손모아장갑', '엄지장갑'으로 바꾸어 부르고 있다.

07 '요리를 잘 못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요리'의 '요'와 '어린이'의 '-린이'를 합쳐 만든 '요린이'와 같은 표현은 어린이를 부정적, 차별적으로 인식하게 하는 표현이다.

01 ④ 02 ④ 03 상대의 글을 '노잼'이라 비방하며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있다. 온라인에서도 상대의 기분을 고려하여 존중하는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04 '반팔'은 선천적 또는 후천적으로 팔이 짧은 이들에게 차별적인 단어로 느껴질 수 있다. 그러므로 짧은 소매라는 의미의 '반소매'라는 단어를 사용해야 한다. '병어리장갑'은 언어 장애인의 성대와 혀가 붙어 있다고 믿은 옛사람들이 네 손가락이 붙어 있는 장갑을 병어리장갑으로 부르면서 쓰기 시작했다. 그러므로 장애인 비하의 의미가 담겨 있지 않은 '엄지장갑', '손모아장갑' 등의 단어로 대체할 수 있다.

01 도서관 누리집 게시판과 사회 관계망 서비스는 주로 인터넷에 기반하여 쌍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상호 작용적 매체에 속한다. 상호 작용적 매체는 시·공간의 제약 없이 다양한 사람들과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특성을 지닌다.

왜 틀렸을까? ㉠, ㉡ 방송 매체에 대한 설명이다.

㉢ 인쇄 매체에 대한 설명이다.

02 (나)의 마지막 문장에서 어렸을 때부터 언어폭력을 겪은 사람은 성인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동일한 형태의 언어폭력을 하거나 감정 조절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고 말하고 있다.

03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한 것일 뿐이더라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폭력적으로 느끼고 기분이 상한다면 언어폭력이 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표현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인정 답안 상대의 기분을 고려하지 않고 직설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했다.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더라도 상대의 기분을 살피며 우회적으로 배려하며 표현할 필요가 있다.

채점 기준

채점 요소	채점 기준	배점
내용	'작성자'의 관점에서 문제점을 밝힘.	2
	해결 방안을 적절하게 서술함.	3
형식	완결된 한 문장으로 서술하지 않음.	-1
	맞춤법에 어긋남(횡수에 상관없이).	-1

04 '반팔'과 '병어리장갑'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차별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말이다. 최근에는 이러한 단어들을 각각 '반소매', '엄지장갑/손모아장갑' 등으로 대체하여 표현하고 있다.

1 제시된 언어 표현의 문제점 파악하기

- 반팔: 선천적 또는 후천적으로 팔이 짧은 이들에게 차별적으로 느껴질 수 있음.
- 병어리장갑: 언어 장애인의 성대와 혀가 붙어 있다고 믿은 옛사람들의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차별적 표현임.



2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적절한 대체 표현 고민하기

- 반팔 → 반소매
- 병어리장갑 → 엄지장갑, 손모아장갑



3 앞서 작성한 내용을 합하여, 완결된 문장들의 구성으로 서술하기

인정 답안 '반팔'과 '병어리장갑'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차별적인 단어로 느껴질 수 있다. 그러므로 '반팔'은 '반소매', '병어리장갑'은 '엄지장갑' 또는 '손모아장갑'과 같은 대체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채점 기준

채점 요소	채점 기준	배점
내용	2가지 언어 표현의 문제점과 그 까닭을 서술할 것.	4
	적절한 대체 표현을 제시할 것(각 1점).	2
형식	완결된 문장들의 구성으로 서술하지 않음.	-1
	맞춤법에 어긋남(횡수에 상관없이).	-1

01 ④ 02 대화를 나누는 상대가 의사에서 보호자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03 ②, ④ 04 ⑤ 05 ① 강추/꿀잼 ③ 평작 06 ③ 07 ④ 08 뜻이 잘 다가오지 않거나 어감이나 뜻이 좋지 않은 말들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기 때문이다. 09 ④ 10 ⑤ 11 ② 12 ④ 13 ④ 14 ② 15 ① 16 언어폭력은 피해자에게 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의 정서적 고통을 준다. 언어폭력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듣는 이의 입장을 고려하며 말해야 한다.

01 <보기>는 '알 텐테'의 뜻을 풀어서 설명한 것이다. 전문

어는 구체적이고 정확한 개념을 압축적으로 표현하며 정밀한 의사소통이 필요한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게 해 준다.

02 (가), (나) 모두 환자의 상태를 설명하는 대화 목적을 지니고 있으나 (가)는 의사가 동료 의사에게, (나)는 의사가 보호자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두 상황에서 각기 다른 어휘가 사용되는 이유는 대화를 나누는 상대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인정 답안 말하는 이와 듣는 이가 의사와 의사에서 의사와 보호자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채점 기준

채점 요소	채점 기준	배점
내용	대화를 나누는 상대(듣는 이)가 달라졌음을 서술함.	4
형식	완결된 한 문장으로 서술하지 않음.	-1
	맞춤법에 어긋남(횡수에 상관없이).	-1

03 (다)에서 할머니와 손자는 세대에 따라 사용하는 어휘가 달라 원활하게 소통하지 못하고 있다. 할머니는 ‘배가 고프다’라는 의미로 ‘시장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했으나 손자는 ‘시장(여러 가지 상품을 사고파는 일정한 장소)’으로 이해했다. 손자가 사용한 ‘혼밥’은 ‘혼자서 밥을 먹는 다’라는 말을 줄인 것으로 할머니는 이 줄임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04 서로 다른 세대끼리 의사소통할 때에는 서로의 언어를 존중하는 관용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세대에 따라 어휘가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남을 이해하고, 맥락을 고려하여 소통 상대와 상황에 맞는 어휘를 사용해야 한다.

05 (마)에 사용된 인터넷 어휘 중 말을 줄여서 표현한 말로는 ‘강추’, ‘꿀잼’이 있으며, 모양이 비슷한 다른 글자를 넣어서 만든 말은 ‘땡작’이다.

06 (라)에 의하면 온라인 게임이 유행하던 2000년대 대화창에 글자를 빠르게 입력하며 초성체가 유행하기 시작했고, 초성체가 일상 대화의 영역까지 진출하게 된 것은 스마트폰이 널리 퍼진 2010년 전후이다.

07 글에서는 새말의 도전에 마음의 귀를 좀 더 열어서 그 뜻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말의 주인이 되어 공동체 속에서 그 말의 운명을 자연스럽게 결정해 보는 것을 권유하고 있다. 이를 통해 ‘말의 주인’이 가져야 할 태도는 새말에 대한 관용적이고 열린 자세임을 알 수 있다.

왜 틀렸을까? ①, ② 글쓴이는 공동체 속에서 새말의 운명을 자연스럽게 결정하기를 바라고 있다. 새말을 능동적으로 만들거나 토론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③, ⑤ 글쓴이는 비판하거나 퍼 나르지 않아도 퍼질 말은 퍼지고 사라질 말은 사라진다는 입장이다.

08 글쓴이는 새말은 그 뜻을 가리키기에 그보다 더 정확한 표현이 없다면 살아남고, 뜻이 잘 다가오지 않거나 어감이나 뜻이 좋지 않으면 알아서 사라질 것이므로 새말에 너무 거부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인정 답안 새말은 그 뜻이 잘 통해 말하는 이와 듣는 이가 소통이 잘 되고 발음도 정겨우면 살아남고 그렇지 않으면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채점 기준

채점 요소	채점 기준	배점
내용	글쓴이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2가지 이상 찾아서 서술함(각 2점).	4
형식	완결된 한 문장으로 서술하지 않음.	-1
	맞춤법에 어긋남(횡수에 상관없이).	-1

09 누리집은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상호 작용적 매체로, 대체로 댓글을 통해 소통이 가능하다.

10 주제별 게시판은 누리집이나 블로그와 같은 상호 작용적 매체의 특성이다.

11 (다)에서는 반 티셔츠를 정하느라 늦게 집에 가는 정우에게 수고했다고 격려하며 소통 참여자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말하고 있다.

12 (가)~(다)와 같은 상호 작용적 매체를 활용할 때에는 매체의 특성, 소통 목적, 소통 참여자와 같은 맥락을 고려하며 소통해야 한다.

13 (가)는 게임을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한 사람에게 언어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온라인 단체 대화 장면으로, ‘초성체’와 ‘줄임말’을 쓰고 있지만 이러한 언어 표현이 상대에 대한 친밀감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14 (나)에서는 실제 언어폭력의 가해자들은 ‘장난이었다.’, ‘가벼운 마음이었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표현을 가볍게 생각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 장난으로 툭 던지는 정도의 말이라도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표현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15 ‘반소매’는 팔이 짧은 이들에게 차별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반팔’이라는 단어를 대체한 단어로 차별·혐오 표현

으로 볼 수 없다.

왜 틀렸을까? ② ‘눈먼 돈’은 ‘애쓰지 않고 공짜로 번 돈’을 가리키는 말로 부정적인 의미를 장애에 빗대어 표현하며 자칫 장애에 대한 편견을 심어 줄 수 있다.

③ 평등 육아를 지향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유아차’로 바꾸어 표현하고 있다.

④ ‘결정 장애’는 ‘결정을 잘 못 내리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자칫 장애에 대한 편견을 심어 줄 수 있는 표현이다.

⑤ (다)에 의하면 ‘병어리장갑’은 장애인 비하 발언이라는 인식이 퍼지며 ‘엄지장갑’, ‘손모아장갑’으로 바꾸어 부르고 있다.

16 언어폭력은 듣는 이의 기분을 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울, 분노 등의 정서적 고통을 느끼게 하며 장기적으로는 대인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비롯하여 사회 공동체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언어폭력을 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상대방의 관점에서 생각하며 상대방의 입장, 감정 등을 고려하여 말할 수 있도록 늘 노력해야 한다.

인정 답안 언어폭력을 지속적으로 당하면 대인 관계에 어려움을 겪거나 자기 비하에 빠지게 된다. 언어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말하기 태도를 길러야 한다.

채점 기준

채점 요소	채점 기준	배점
내용	언어폭력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피해자의 입장에서 서술함.	3
	언어폭력을 방지하는 방법을 듣는 이의 입장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서술함.	3
형식	완결된 문장들의 구성으로 서술하지 않음.	-1
	맞춤법에 어긋남(횡수에 상관없이).	-1

3 세상을 이해하는 힘

(1) 요약하며 읽기

대표 유형 문제

327~328쪽

01 ③ 02 종자 보관소 **03 ⑤ 04 ③ 05 ④ 06 ⑤ 07** (나)의 내용으로 보아 부끄러움, 불안함, 두려움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은 우리가 생활하면서 느끼는 소중한 감정이고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감정이다.

01 이 글은 종자 보관소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 설명문이다. 설명문은 객관적인 정보를, 그 정보를 모르는 대상에게 알려 주기 위한 글로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한다.

왜 틀렸을까? ① 독자의 행동 변화를 촉구하는 글은 논설문에 해당한다.

② 인물, 사건, 배경을 구성 요소로 하는 것은 소설에 해당한다.

④ 글쓴이의 일상생활이 진솔하게 드러나는 것은 수필에 해당한다.

⑤ 글쓴이의 정서를 함축적인 언어로 표현하는 것은 시에 해당한다.

02 각 문단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단어와 글의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짐작해 볼 때, 글의 중심 소재는 ‘종자 보관소’임을 알 수 있다.

03 (라)에서 한국의 종자 보관소에 관해 설명하는 부분에서 한국의 종자 보관소는 낮은 온도와 건조한 환경을 유지하여 식물 종자의 상태를 보존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왜 틀렸을까? ① (나)를 통해 미래를 대비하는 저장 시설은 종자 은행이 아닌 종자 보관소임을 알 수 있다.

② (다)를 통해 세계 곳곳에 1,700여 개가 있는 것은 종자 보관소가 아닌 종자 은행임을 알 수 있다.

③ (라)를 통해 종자 보관소는 외부 충격에도 안전함을 알 수 있다.

④ (나)를 통해 종자를 수시로 꺼내어 종자 증식과 연구에 활용하는 것은 종자 은행임을 알 수 있다.

04 ‘선택’은 중심 내용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을 찾아 요약하는 것이다. 따라서 종자 보관소를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부분만 선택하여 ‘종자 보관소는 지구 차원의 위기로부터 씨앗을 보호하는 저장고이다.’로 요약할 수 있다.

왜 틀렸을까? ①, ⑤ 어원, 예시와 같은 세부 내용은 중심 내용 요약에 적합하지 않다.

②, ④ 종자 보관소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에 대한 설명이므로 중심 내용 요약에 적합하지 않다.

05 (라)는 ‘부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킨 경험을 이해하고 자신을 위로하며 다독여 준다면 부정적인 감정이 사라질 것이다.’라고 요약할 수 있다. 또한 (라)에서 우리 자신이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 친구에게 해 주는 것처럼 위로하고 다독여 줘야 한다고 했으므로 ④는 적절하지 않다.

06 같은 반 친구와 다툰 뒤 오랫동안 속상해하고 후회하는 친구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잘 다스리는 방법을 알려 주기 위한 목적으로 요약하려면, 부정적인 감정이 자연스럽게 사라져야 마음이 건강할 수 있는데 우리는 부정적인 감정을 잘 다루지 못함을 언급하고 있는 (다), 부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킨 경험을 이해하고 자신을 위로하고 다독여 준다면 부정적인 감정이 사라진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라)가 필요하다.

07 부정적인 감정의 역할에 대해서는 (나)에서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나)의 중심 문장을 활용하여 요약할 수 있다.

인정 답안 (나)에서는 부정적인 감정은 우리가 생활하면서 느끼는 소중한 감정이고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어 꼭 필요한 감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채점 기준

채점 요소	채점 기준	배점
내용	필요한 정보가 담긴 문단이 (나)임을 밝힘.	1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감정임을 밝힘.	3
형식	완결된 한 문장으로 서술하지 않음.	-1
	맞춤법에 어긋남(횡수에 상관없이).	-1

고난도 심화 문제

329쪽

01 야생 식물(의) 종자 **02** ① **03** ④ **04** ③

01 (가)에서 ‘광릉요강꽃, 세뿔투구꽃, 구상나무 등’을 ‘야생 식물의 종자’로 묶어서 표현할 수 있다.

02 (나)에서는 야생 식물 팔각이 의약품으로 쓰이고, 야생 식물을 개량해서 벼, 보리와 같은 식량을 얻은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03 (가)에서는 한국의 종자 보관소는 야생 식물 종자를 보관하고 있음을, (나)에서는 한국의 종자 보관소가 야생 식물 종자를 저장하는 까닭으로 야생 식물이 앞으로 중요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임을, (다)에서는 한국의 종자 보관소에서는 야생 식물에 관한 연구도 하고 있음을 중심 내용으로 삼고 있으므로, (가)~(다)를 공통적으로 묶을 수 있는 중심 화제로는 ‘한국의 종자 보관소의 특징’이 적절하다.

04 (다)에서는 중심 문장인 ‘한국의 종자 보관소에서는 ~야생 식물에 관한 연구도 하고 있다.’를 선택하고 앞 문단과 겹치는 내용은 삭제하며 요약했다. (라)에서는 접속어 ‘그러므로’ 뒤에는 일반적으로 앞의 내용에 관한 주장이나 결론이 이어지므로 이에 주목하여 뒷부분의 내용을 선택하고 접속어 ‘그러므로’를 삭제하며 요약했다.

고난도 심화 문제 해법

① (다), (라)를 읽고 내용 이해하기



② 제시된 요약문을 살펴보고 공통된 요약 방법 파악하기

- (다): 중심 내용이 뚜렷이 드러난 문장 선택, 불필요한 내용 삭제
- (라): 접속어를 고려하여 중심 내용을 선택, 불필요한 내용 삭제



③ 공통된 요약 방법에 대한 설명을 <보기>에서 찾기

(2) 정보를 전달하는 글 쓰기

대표 유형 문제

331~332쪽

01 ① 02 조선의 모자가 말해 주는 것들 03 ① 04 정보 전달
05 ④ 06 ⑤

01 자료 수집하기는 글을 쓰는 전 과정에서 할 수 있으며, 글을 쓰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수집한 자료들을 활용하여 글의 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

02 (나)의 개요를 보면, 조선 시대 모자에 관해 정보를 전달하려고 쓰는 글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제목에는 조선 시대 모자와 관련하여 무엇인가를 소개하거나 알려 주겠다는 의도가 반영되어야 한다. 개요를 참고하여 조선 시대 모자의 종류와 역할에 관해 설명할 것임을 구체적으로 밝혀 제목을 지을 수도 있다.

인정 답안 조선 시대 모자의 종류와 역할

03 [자료 1]은 모자의 사전적 의미를 보여 주는 자료이므로 조선 고유의 모자를 쓰지 않게 된 까닭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04 작문 맥락에서 조선 시대 모자의 역할과 종류를 설명한다는 쓰기 목적을 알려 주었으므로, 글의 목적은 '정보 전달'로 볼 수 있다.

05 <보기>에서는 조선 시대 모자인 '갓(흑립)'과 '패랭이'에 대한 정보를 도표로 제시하고 있다. (라)에서 조선 시대의 모자의 종류로 갓과 패랭이를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으므로 <보기>의 자료를 활용하여 독자들이 한눈에 정보를 파악하게 할 수 있다.

왜 틀렸을까? ① 갓(흑립)과 패랭이는 독자인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친숙한 예시가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나)에서는 상투 위에 모자를 써 예의를 갖추었다는 모자의 역할을 제시하여 <보기>와 관련이 없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③ (다)에서 언급된 모자와 <보기>에 언급된 모자는 서로 다른 종류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⑤ (마)에서는 조선 고유의 모자를 점차 쓰지 않게 된 까닭을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보기>의 자료와 부합하지 않는다.

06 타당하고 논리적인 근거를 활용하여 독자를 설득하는

것은 논설문의 특징이다. 이 글은 자료를 바탕으로 독자에게 정보를 전달하려는 목적으로 쓴 글이다.

고난도 심화 문제

333쪽

01 ④ 02 ③ 03 <보기>의 자료는 (라)에 활용할 수 있다. <보기>의 그래프와 같은 시각 자료를 적절히 활용하면, 독자가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01 학생 회장인 장서찬 군의 진술을 인용했지만, 글쓴이의 주장은 더 이상 피해 학생이 나오지 않도록 학교 측과 학생들이 협력하여 만족할 만한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중립적인 내용이므로, 학생 회장의 진술이 글쓴이의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02 기사문의 표제는 기사 내용 전체를 간결하게 나타내는 제목으로, 사건의 핵심을 압축적으로 표현한 어구나 문장, 독자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문장으로 작성해야 한다. 또 <보기>에서는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드러내라고 조건을 덧붙였으므로, 자전거 통학 문제에 대한 중심 내용을 담고 있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제목을 구성함이 적절하다.

고난도 심화 문제 해법

① 조건 분석하기

- 글 전체의 내용을 파악하여 간결하게 나타내야 함.
-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드러내야 함.



② 조건을 고려하여 지문 내용 파악하기

- 학교 앞에서 일어난 사고와 관련하여, 자전거 통학과 관련된 논란을 다룸.
- 학교 측은 자전거 통학 자제를 당부하고 있지만 대다수 학생들은 자전거 통학을 위해 주변 도로 정비를 바라고 있음.
- 모두가 만족할 만한 대안이 필요함.



③ 선지에서 적절한 제목 선택하기

03 <보기>는 자전거 통학 관련 찬반 설문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보기>의 자료를 활용한다고 할 때, 학

생들의 자전거 통학 희망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 (라)에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또 <보기>와 같은 그래프 등의 시각 자료를 적절히 활용하면, 독자가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하여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인정 답안 (라)를 설명할 때 그래프를 활용할 수 있다. 그래프와 같은 시각 자료를 사용하면, 학생들이 자전거 통학에 찬성함을 한눈에 볼 수 있어 독자가 정보를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채점 기준

채점 요소	채점 기준	배점
내용	자료를 활용할 부분의 문단 기호를 적절하게 밝혀 씀.	2
	자료 활용의 효과를 독자의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진술함.	3
형식	완결된 문장들의 구성으로 서술하지 않음.	-1
	맞춤법에 어긋남(횡수세 상관없이).	-1

단원 종합 문제

334-339쪽

01 ① 02 ③ 03 ④ 04 ② 05 ② 06 ② 07 ④ 08 ⑤ 09 ④ 10 ① 11 부정적인 감정을 없애려고만 하지 말고, 보살피 주며 자연스럽게 사라지기를 기다려 주자. 12 ② 13 ② 14 ② 15 ① 16 글의 '처음' 부분에 <서양인이 그린 조선의 풍속화>를 추가하여 조선 시대 사람들이 모자를 많이 쓴다는 내용을 시각적으로 보여 줄 수 있다. '처음' 부분에 시각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독자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 17 ㉠-㉡-㉢-㉣ 18 ② 19 ④ 20 ② 21 ② 22 ② 23 자전거 통학을 하면서 더 이상 다치는 학생이 나오지 않도록 학교 측과 학생들 모두가 협력해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01 글을 요약할 때 글의 구조나 읽기 목적을 고려하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요약할 수 있다.

왜 틀렸을까? ㄷ. 글을 요약하면 중심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ㄹ. 글을 요약할 때에는 세부적인 내용이나 구체적인 예시 등은 삭제하고 중심 내용을 간추려서 정리해야 한다.

02 (마)에서 한국의 종자 보관소에서는 야생에서 직접 수집한 종자와 다른 나라나 기관에서 맡긴 야생 식물 종자를 함께 보관하고 있다고 했다.

03 (라)에는 노르웨이의 종자 보관소와 한국의 종자 보관소의 공통점이 드러나 있다. 두 종자 보관소 모두 외부 충격으로부터 안전하게 설계되었고, 일정한 환경을 유지하여 종자를 최적의 상태로 보관하는 특징이 있다.

왜 틀렸을까? ① 식량난에 대비해 작물 종자만 보관하는 것은 노르웨이의 종자 보관소에 대한 설명이다.

② 종자를 수시로 꺼낼 수 있는 것은 종자 은행에 대한 설명이다.

③ 미래의 재앙을 대비하는 중요한 시설인 종자 보관소는 전 세계에 단 두 곳밖에 없다.

⑤ 전기 공급이 끊겨도 영구 동토층 덕분에 일정 온도 이하로 유지되는 것은 노르웨이의 종자 보관소에 대한 설명이다.

04 이 글은 종자 보관소의 개념을 나타내는 처음 부분인 (가)와, 중간 부분 중에서도 종자 보관소의 일반적 특징을 설명하는 (나), (다), (라), 한국의 종자 보관소의 특징을 설명하는 (마), (바), (사)로 나눌 수 있다. 끝 부분은 종자 보관소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당부하는 (아)로 구성된다.

05 (가)에서는 종자 보관소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종자 보관소의 어원을 설명한 세부적인 내용은 중심 내용이 아니므로 삭제하며 요약해야 한다.

06 제시된 읽기 목적에 따라 요약한 글을 살펴보면, 종자 보관소는 지구 차원의 위기로부터 씨앗을 보호하기 위한 저장고라는 것과 관련된 내용은 (가)에서, 외부 충격으로부터 안전하게 설계되어 종자를 최적의 상태로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은 (라)에서 활용한 것이다. 한국의 종자 보관소에서 보관하는 야생 식물 종자들은 앞으로 중요 자원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은 (바)에서, 해당 종자들이 야생 식물에 관한 연구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은 (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07 ㉠의 뒷부분에는 앞의 내용에 관한 주장 및 결론이 제시되고 있으므로, '그러므로'가 적절하다.

왜 틀렸을까? ① '한편'은 어떤 일에 대하여, 앞에서 말한 측면과 다른 측면을 말할 때 사용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하지만'은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상반되는 사실을 나타내는 두 문장을 이어 줄 때 사용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그리고'는 단어, 구, 절, 문장 따위를 병렬적으로 연결할 때 사용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08 (다)에서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일 때 자신의 행동을 후

회하고 스스로를 탓하는 경우가 많지만 (라)에서는 그런 자신을 위로해 주어야 한다고 했다.

09 (다), (라)에서는 부정적인 감정을 보살피 주면 그 감정이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는 중심 내용을, 친한 친구가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와 자신이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의 사례 등과 같이 일상생활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상황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다.

10 <보기>에서는 부정적인 감정의 역할을 알고 싶어 하므로 관련 문단인 (나)를 요약하여 '부정적인 감정은 우리를 보호하는 고마운 감정이다.'라고 요약할 수 있다.

11 글쓴이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는 (마)에 잘 드러나 있다. (마)의 중심 내용을 재구성하여 요약해 볼 수 있다.

인정 답안 부정적인 감정은 우리에게 필요한 감정이라도, 없애려고만 하지 말고 보살피 주자.

채점 기준

채점 요소	채점 기준	배점
내용	글쓴이가 전달하고자 하는 중심 내용이 구체적으로 잘 드러남.	4
형식	제시된 형식을 따르지 않음.	-1
	완결된 한 문장으로 서술하지 않음.	-1
	맞춤법에 어긋남(횡수에 상관없이).	-1

12 자료를 수집할 때에는 다양한 매체에서 자료를 수집한 뒤 글의 주제와 목적에 맞는 내용을 선정해야 한다. 주제와 관련이 없는 자료들은 글의 통일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반영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

13 '자료 수집하기' 단계에서는 다양한 매체에서 자료를 수집한 뒤 글의 주제와 목적에 맞는 내용을 선정한다. 또 수집한 자료에서 중에서 자신과 독자의 흥미와 수준에 맞는 내용을 선정한다. 이때 참고할 자료의 출처를 알아두어야 한다.

왜 틀렸을까? ㄴ. 글의 주제, 예상 독자 등을 정하는 것은 '계획하기' 단계에서 한다.

ㄷ, ㄹ. 자료 활용 계획을 바탕으로 개요를 작성하고, 조직된 내용이 글의 각 부분에 알맞게 구성되었는지 살펴보는 것은 '내용 조직하기' 단계에서 한다.

14 자료를 수집하면서 자료의 중요도를 판단할 때 글의 목적이나 주제와의 관련성이 높은 것, 독자의 관심과 흥미를 끌 수 있는 것, 독자의 수준이나 배경지식을 고려한 것, 독자가 알아 두면 가치 있는 자료들은 중요도가 높

다. 그러나 독자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은 자료 활용의 측면에서 중요도가 낮다.

15 국어사전에 수록된 모자의 뜻 정도는 학생들도 다 알고 있으며, 새롭게 전달할 만한 정보가 추가적으로 제시되고 있지 않다.

16 <보기>는 서양인이 그린 조선의 풍속화로 그림에서 많은 조선인이 모자를 쓰고 있는 모습이 나타난다. 따라서 글의 '처음' 부분에 <보기>를 제시하여 독자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

인정 답안 글의 '처음' 부분에 <서양인이 그린 조선의 풍속화>를 추가하여, 독자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

채점 기준

채점 요소	채점 기준	배점
내용	<보기>의 자료 활용 부분을 개요에서 찾아 적절하게 서술함.	3
	<보기>의 자료 활용 방안과 그 효과를 구체적으로 서술함.	3
형식	완결된 문장들의 구성으로 서술하지 않음.	-1
	맞춤법에 어긋남(횡수에 상관없이).	-1

17 보고서는 어떤 대상에 관해 조사, 연구, 실험, 관찰한 것을 보고하려는 목적으로 그 과정과 결과를 정리하고 기록한 글이다. 조사 보고서 쓰기 활동은 '㉠ 조사 계획 세우기-㉡ 자료 조사하고 분석하기-㉢ 보고서 작성하기-㉣ 보고서 발표하고 평가하기' 순서로 이루어진다.

18 조사 방법의 예로는 문헌 조사, 현장 조사, 설문 조사, 면담 조사 등이 있다. 동네에서 가 볼 만한 곳을 직접 방문하여 사진을 찍고 살펴보는 활동은 현장 조사이다.

왜 틀렸을까? ① 동네의 역사처럼 사실 위주의 정보를 인터넷 등을 통해 찾아보는 것은 문헌 조사에 해당한다.

③ 동네를 잘 아는 사람을 찾아가 직접 질문하며 생생한 정보를 담아내는 것은 면담 조사에 해당한다.

④ 동네의 이용 시설 현황을 각종 통계 자료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비교해 보는 것은 문헌 조사에 해당한다.

⑤ 맛집 선호도에 대한 여러 사람의 의견을 알기 위해 설문지를 만들어 결과를 정리하는 것은 설문 조사에 해당한다.

19 조사 보고서를 작성한 뒤에는 조사 목적과 주제에서 벗어난 내용은 없는지, 조사의 절차와 결과가 잘 드러나는지, 독자가 이해하기 쉽게 명확하고 간결한 표현을 사용

했는지, 다양한 매체에서 수집한 자료를 적절하게 활용했는지 등을 점검해야 한다. ‘글쓴이의 깨달음을 바탕으로 독자에게 교훈을 전달했는가?’는 수필 쓰기와 관련된 점검 질문이다.

20 기사는 사건이나 사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려고 쓰는 글이다. 기사문에서 다루는 사건이나 사실은 사실 관계의 오류나 왜곡 없이 정확해야 하며, 글쓴이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관점, 감정을 배제한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누가, 언제, 어디서, 왜, 무엇을, 어떻게’의 육하원칙을 따라 쓰며 간결하고 명료한 언어를 사용한다.

21 부제는 표제를 보충하는 제목으로, ㉠에서는 문제를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을 뿐 비유적인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다.

22 제시된 글에서는 ‘학생 회장 장서찬 군’의 발화가 인용되어 있기는 하나, 이를 전문가와의 면담 자료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적절하지 않다.

23 주요 사건인 ‘자전거 통학 문제’와 관련하여 글쓴이는 ‘더 이상 피해 학생이 나오지 않도록 모두가 협력하여 만족할 만한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 문장을 활용하되, <조건>에서 문제 해결의 주체를 구체적으로 모두 밝히라고 하였으므로, ‘학교 측’과 ‘학생들’의 주체를 넣어 글의 주요 내용을 구성해야 한다.

인정 답안 더 이상 피해 학생이 나오지 않도록 대안을 찾기 위해 학교 측과 학생들 모두가 협력해야 한다.

채점 기준

채점 요소	채점 기준	배점
내용	주요 사건에 대한 글쓴이의 의견을 활용하여 적절하게 서술함.	4
	문제 해결의 주체를 구체적으로 모두 밝힘(각 1점).	2
형식	완결된 한 문장으로 서술하지 않음.	-1
	맞춤법에 어긋남(횡수에 상관없이).	-1

4 갈등을 넘어

(1) 갈등을 담은 문학

대표 유형 문제

341~342쪽

01 ① **02** ④ **03** ⑤ **04** 답임 선생님께 사실대로 말하지는 ‘나’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음을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05** ④ **06** ⑤ **07** ④ **08** 월급봉투

01 제시된 글은 인물들의 말과 행동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인물의 성격과 생각을 생생하게 드러내고 있어 현실감을 더한다.

왜 틀렸을까? ② 이 글은 과거에 일어난 일을 회상하는 방식으로 사건이 전달되고 있다.

③ 글 속에 등장하는 공간은 주로 교실이나 학교 주변으로 매우 일반적인 공간이며, 특별히 세밀하게 묘사된 부분은 없다.

④ 이 글은 친구들 간의 갈등과 내적 고민을 다루고 있으며, 아름다운 추억보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

⑤ 글 속의 인물들은 특정한 사건을 통해 뚜렷한 성격 변화를 보여 주기보다는 각자의 성격을 유지하며 상황에 대처하는 모습을 보인다.

02 ‘나’는 자신과 친구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수박 처리 문제는 공명정대해야 할 것 같다고 느낀다. 이러한 모습은 ‘나’가 공정하고 양심적인 성격임을 보여 준다.

왜 틀렸을까? ① ‘나’는 자신의 생각을 당당하게 말하며 친구들을 설득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므로 겁이 많고 소심하지는 않다.

② ‘나’는 잘못을 저지른 것에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므로 무책임하고 경솔하지는 않다.

③ ‘나’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며, 충동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⑤ ‘나’는 자신의 이익보다는 자신과 친구들과의 잘못에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므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지는 않다.

03 ‘나’는 수박을 딴 행위 자체가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한다. 화장실에서 몰래 먹는 것은 잘못에 대한 잘못을 더하는 행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에 반대하는 것이다.

왜 틀렸을까? ①, ②, ④ '나'가 화장실에서 수박을 먹는 것을 꺼리는 부분적인 이유일 수 있지만, '나'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에 대한 책임감이다.

③ '나'는 친구들과의 의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잘못된 행동을 묵인하기보다는 바른 행동을 선택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04 세영이는 '나'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음을 표현하기 위해 침을 모아 소리를 낸 것이다.

인정 답안 담임 선생님이 수박을 딴 일을 웃으며 넘어가 줄 것이라는 '나'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음을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채점 기준

채점 요소	채점 기준	배점
내용	'나'의 의견을 포함하여 서술함.	2
	①이 '나'의 의견에 반대되는 입장을 표현하는 것임을 서술함.	2
형식	완결된 한 문장으로 서술하지 않음.	-1
	맞춤법에 어긋남(횡수에 상관없이).	-1

05 연두가 어려운 가정 형편에 엄마를 돕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는 내용은 앞부분의 줄거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왜 틀렸을까? ① 친엄마를 찾고 있는 것은 마놓이며, 연두가 친엄마를 찾고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② 엄마는 연두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공과금을 대신 내 주길 바란다고 볼 수 없다.

③ 엄마가 아버지를 그리움을 잊으려 하고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⑤ 연두가 카페 개업의 꿈을 꾸고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06 연두는 엄마가 오기 전에 월급봉투와 선물을 드리는 연습을 하고, 그냥 들어가려다가 용기를 내어 봉투를 내미는 등 긴장감을 느끼고 있다. 또한 엄마의 반응을 예측할 수 없어 걱정스러운 마음도 가지고 있을 것이다.

07 엄마는 자신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연두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는 사실에 속상함을 느끼고, 연두가 아르바이트하는 것을 보고 자식을 고생시킨다는 생각에 비참함이 지 느끼고 있다.

왜 틀렸을까? ① 연두가 돈을 무절제하게 사용하고 있음

은 확인할 수 없다.

② 연두가 집안일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음은 확인할 수 없다.

③ 연두는 엄마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⑤ 엄마는 생활비를 보태려는 연두의 모습을 보고, 자신이 부족해 고생했을 연두에게 속상한 마음을 드러낸 것이지 연두가 자신과 점차 거리를 두려는 행동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

08 연두는 엄마에 대한 고마움을 전하고자 자신이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한 노력의 결과물인 월급봉투를 엄마에게 건넨다. 하지만 엄마가 월급봉투를 받지 않으면서 연두와 엄마가 갈등하는 계기가 된다.

인정 답안 월급, 아르바이트비, 봉투, 돈

고난도 심화 문제

343쪽

01 ④ 02 양심 03 ④ 04 ①

01 '나'는 민아한테 가방에 든 수박을 들켜 당황하고, 이후 민아에게서 그 수박이 교장 선생님의 수박임을 듣고는 깜짝 놀란다. 민아와 지원이는 수박을 제자리에 돌려놓을 것을 제안하는데, '나'는 제안을 받아들일지 망설인다. 따라서 '나'의 심리는 '당황 → 놀람 → 망설임'으로 변화된다고 할 수 있다.

고난도 심화 문제 해법

① 지문 내용 분석하기

- 민아가 가방을 열어서 수박을 발견함.
- 민아가 수박의 주인이 교장 선생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줌.
- 민아가 수박을 원래 있던 데 갖다 놓으라고 하지만 '나'는 고민함.



② 분석한 지문 내용에 따라 '나'의 심리 변화 파악하기

- 민아가 수박을 발견하여 당황함.
- 수박 주인의 정체를 듣고 놀람.
- 수박을 돌려놓을지 말지 망설임.



③ 적절한 선지 선택하기

02 지원이는 수박을 원래 자리로 돌려놓자고 제안했으나, '나'는 그것이 양심을 속이는 일이라고 생각해 동의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나'와 지원이 사이의 외적 갈등이 발생했다.

03 지원이와 민아는 수박을 제자리에 돌려놓자는 해결 방법을 제안하지만, '나'는 양심을 속이는 일이므로 그렇게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의견과 태도의 차이가 나는 까닭은 인물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04 ㉠에서 '나'는 강력 접착제로 발이 붙어 있는 것처럼 느낀다. 이는 죄책감 때문에 쉽게 행동하지 못하는 '나'의 심리를 함축하고 있다.

왜 틀렸을까? ㉡ 실제로 다리가 움직이지 않는 상황을 표현한 것이 아니다.

㉢ '나'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 ㉠은 친구들과 쌓아 왔던 우정이 무너질까 봐 두려워해서 생긴 심리는 아니다.

㉤ 친구들에게 분노를 느끼고 있지는 않다.

02 토의자들은 고양이 먹이를 주는 역할을 어떻게 분담할지에 대해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다. 생태 분과 학생들이 담당하기, 학급별로 당번 정하기, 관심 있는 학생들의 신청 받기 등을 언급하며 역할 분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있다.

03 고하영의 의견은 생태 분과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먹이를 주되, 관심 있는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방안은 생태 분과 학생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04 김예준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두 가지 근거를 제시했다. 첫 번째는 학생들이 고양이가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을 줄 수 있다는 점, 두 번째는 담당 학생이 없으면 휴일에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인정 답안 고양이가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을 주어 고양이가 아플 수 있고 주말과 같이 학교를 나오지 않는 날에는 고양이가 먹이를 먹지 못해 굶을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채점 기준

채점 요소	채점 기준	배점
내용	학생들이 고양이가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을 줄 수 있다는 문제점을 제시함.	2
	학생들이 휴일에는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지 못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제시함.	2
형식	완결된 한 문장으로 서술하지 않음.	-1
	맞춤법에 어긋남(횡수에 상관없이).	-1

(2) 문제를 해결하는 토의

대표 유형 문제

345~346쪽

01 ⑤ **02** ④ **03** ① **04** 학생들이 고양이가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을 줄 수도 있고 담당자가 없으면 휴일에는 고양이 먹이를 주지 못한다. **05** ⑤ **06** ④, ⑤ **07** ③

01 사회자는 토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고, 토의자들이 골고루 발언할 수 있도록 발언 기회를 조절해야 한다. 잘못된 발언을 한 토의자에게 주의를 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당 토의자의 이후 발언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 위 토의에서도 사회자가 최지호에게 주의를 주고 있지만, 그렇다고 이후 모든 발언을 금지하지는 않았다.

05 환경 단체 관계자는 일회용 포장 용기 사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회용기를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덧붙여 이 방법은 다회용기로 음식을 배달하면 전문 업체가 용기를 수거하고 세척하여 다시 가게에 돌려주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왜 틀렸을까? ① 배달 음식 1인분을 포장할 때 평균 9.2개의 일회용 플라스틱을 사용한다고 설명했지만 그 수치를 평균 5개까지 줄이자고 하지는 않았다.

② 환경 단체 관계자는 다회용기를 사용하면 전문 업체가 그릇을 수거하고 세척하는 것이지 손님은 그릇을 따로 씻을 필요가 없다고 했다.

③ 다회용기 배달 시행과 관련해서는 지역 차지 단체 관계자가 이야기했고, 이용 건수가 늘어날 것이 아니라 적다고 말했다.

④ 배달 음식을 포장할 때 일회용품이 많이 사용하는 것에 환경 단체 관계자는 ‘과도하게 사용하는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다.

06 음식점 사장은 다회용기의 부피가 커서 자리를 많이 차지하는 문제가 있고, 기존의 방식도 용기를 되돌려받는 것이 번거롭다고 했다. 따라서 다회용기를 크게 만드는 것과 다회용기를 돌려받는 방식을 다양화하는 것은 효과적인 방안이 아니다.

07 시민 대표는 배달 음식을 주문할 때 ‘일회용품 안 받기’를 선택하고, 특히 ‘반찬 안 받기’를 선택하여 일회용 포장 용기의 사용을 줄이자고 제안했다. 이는 개인의 작은 실천이 환경 문제를 개선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고난도 심화 문제

347쪽

01 ④ 02 이다빈의 의견은 고양이 사료 마련을 위해 모금보다는 사료를 기부받는 방법이 낫다는 것이다. 그 근거로는 모금하기가 쉽지 않고, 사료를 기부받는 것이 학생 수준에서 실천하기 쉬운 방법이라는 것이다. 03 ④ 04 ④

01 위 토의에서는 고양이 사료를 마련하는 방법과 고양이의 장기적인 돌봄 방안에 대해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왜 틀렸을까? ① 토의에서는 모금보다는 사료 기부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② 고양이 건강 관리보다는 사료 마련과 장기적 돌봄에 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진행되었다.

③ 질 좋은 사료 마련하는 방법보다는 사료를 마련할 방법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었다.

⑤ 고양이 평균 수명에 관한 논의는 이루어졌지만, 주요 안건은 아니었다.

02 이다빈은 모금보다는 사료를 기부받는 것이 더 실용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의견을 뒷받침하기 위해,

모금하는 것은 선생님께 허락을 받아야 하고 돈 관리가 어려워서 실천하기 어렵다는 점과 사료를 기부받는 것이 학생 수준에서 실천하기에 쉽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인정 답안 사료를 기부받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 근거로 모금을 하면 선생님께 허락을 받아야 하고 돈을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사료를 기부받는 것은 학생 수준에서도 실천하기 쉬운 방법이라는 점을 제시했다.

채점 기준

채점 요소	채점 기준	배점
내용	의견을 찾아서 제시함.	2
	근거를 찾아서 2가지 이상 적절하게 제시함 (각 2점).	4
형식	완결된 문장들의 구성으로 서술하지 않음.	-1
	맞춤법에 어긋남(횡수에 상관없이).	-1

03 고양이를 입양할 가정을 학교에서 찾자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04 토의자들은 각자의 의견을 제시한 뒤 서로의 의견을 듣고 최선의 대안을 찾아 합의했다. 이는 상호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다.

고난도 심화 문제 해법

1 제시된 토의 과정 살펴보기

- 고양이 사료를 마련할 방법: 전교생 대상으로 모금해야 한다는 의견, 모금할 경우 여러 문제가 있으므로 고양이 사료를 기부받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 → 사료를 기부받기로 함.
- 장기적으로 고양이를 돌볼 방법: 고양이를 입양해서 키울 가정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 학교 안에서도 고양이를 입양할 가정을 찾을 수 있다는 의견, 사회 관계망 서비스에도 입양 가정을 찾는 글을 올리자는 의견 → 동의



2 토의에서 해결책을 찾아가는 방식 살펴보기

- 제시된 의견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최선의 해결책을 찾음.
- 제시된 의견에 의견을 보충하여 최선의 해결책을 찾음.



3 적절한 선지 선택하기

왜 틀렸을까? ① 투표를 통한 결정 방식은 사용되지 않았다.

② 전문가 의견은 제시되지 않았고, 토의자들 간의 논의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③ 근거의 양으로 해결 방안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견을 교환하며 가장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찾았다.

⑤ 사회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아닌 토의자들이 서로의 의견을 검토하면서 최선의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했다.

단원 종합 문제

348-352쪽

01 ⑤ **02** ② **03** 친구들은 수박을 화장실에서 먹자고 하고 '나'는 수박을 딴 사실을 담임 선생님에게 알리자고 하여 외적 갈등을 빚고 있다. 또한 '나'는 은비처럼 수박 처리 문제에 빠질지 말지 내적 갈등을 겪고 있다. **04** ④ **05** ④ **06** 바윗덩어리 **07** ④ **08** ④ **09** ④ **10** ⑤ **11** ①, ④ **12** ④ **13** 길고양이는 질병에 쉽게 노출되고 신선한 먹이를 구하기 어려워 평균 수명이 짧기 때문이다. 길고양이는 생태계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14** 객관적, 해결책 **15** ⑤ **16** ④ **17** ⑤

01 '나'는 지원이가 수박을 딴 것에 슬며시 쾌감을 느꼈던 것을 희미하게 기억하고 있으므로, 처음부터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02 '나'는 친구들의 의견에 쉽게 마음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 준다. 특히 '지원이가 내 이름 다정이를 정말 다정하게 부르면서 말했다. 난 마음이 흔들렸다.'라는 부분에서 '나'의 우유부단한 성격이 잘 드러난다.

왜 틀렸을까? ① '나'는 은비의 재빠른 판단을 부러워하며, 이것이 '나'의 우유부단한 성격을 보여 주지는 않는다.

③ 담임 선생님에게 모든 사실을 고백하려 하는 것은 결단력 있는 행동을 보여 주는 것으로 우유부단함과는 반대되는 행동이다.

④ 마음을 고쳐먹고 친구들을 설득하려 노력하는 것은 결단력을 보이는 행동으로, 우유부단함을 극복하려는 모습을 보여 준다.

⑤ 세 친구에게 애절하게 눈빛을 보내는 것은 자신의 주장을 들어줄 것을 호소하는 모습으로, 우유부단함보다

는 친구들을 설득하려는 의지가 드러나는 모습이다.

03 외적 갈등은 친구들 간의 의견 차이로 나타난다. '나'는 담임 선생님께 사실을 고백하고 벌을 받자는 입장이고, 다른 친구들은 수박을 넷이서 몰래 화장실에서 먹자는 입장을 보여 갈등을 빚는다. 내적 갈등은 '나'가 친구와의 우정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은비처럼 수박 처리 문제에서 빠질지 고민하는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정 답안 '나'는 벌을 받게 되더라도 수박 문제를 담임 선생님께 말씀드려 해결하고자 하지만, 친구들은 우리끼리 몰래 먹자고 하는 점에서 외적 갈등이 나타난다. '나'는 은비처럼 수박 처리 문제를 외면할지 말지 고민한다는 점에서 내적 갈등이 나타난다.

채점 기준

채점 요소	채점 기준	배점
내용	'나'와 친구들 사이의 외적 갈등을 바르게 서술함.	3
	'나'가 겪는 내적 갈등을 바르게 서술함.	3
형식	완결된 문장들의 구성으로 서술하지 않음.	-1
	맞춤법에 어긋남(횡수에 상관없이).	-1

04 지원이는 '나'가 양심적으로 행동하려는 것에 화가 난 것이다. '너 정말 왜 그래? 너만 양심적이야? 나는 도둑이구?'라는 지원이의 말에서 알 수 있다.

05 지원이의 말과 행동이 제시된 부분에서, 지원이가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하고 욕하는 성격임을 알 수 있다.

06 '갑자기 가방이 너무나 무거웠다. 마치 가방 안에 바윗덩어리라도 들은 것 같았다.'에서 수박 처리를 혼자 떠안게 된 '나'의 부담감을 '바윗덩어리'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효과적으로 표현했다.

07 '나'는 수박을 훔친 행위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수박을 맛보고 싶은 욕망을 동시에 느끼고 있다. '수박은 가방 안에서 싱싱했다.', '녹색 바탕에 검푸른 줄이 죽죽 그어진 그 수박을 바라보고 있자니, 입속에 침이 고인다.'라는 표현에서 이와 같은 갈등이 드러난다.

왜 틀렸을까? ① 수박을 혼자 먹고 싶어 하는 '나'의 욕망은 확인할 수 없다.

② 친구를 따라가고 싶은 마음은 확인할 수 없다.

③ 친구와 화해하고 싶은 마음은 확인할 수 없다.

⑤ 부모님에게 들길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은 확인할 수 없다.

08 연두는 마농에게 사랑하는 사람을 찾는 방법을 묻지 않았다. 마농이 연두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일을 찾아보라고 권유했고, 연두는 그 조언을 듣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게 된다.

09 위와 같은 희곡 갈래의 글은 인물이 주고받는 대화나 인물의 행동을 통해 사건의 전모를 파악해야 한다.

왜 틀렸을까? ① 시와 관련된 설명이다.

② 수필과 관련된 설명이다.

③ 소설과 관련된 설명으로, 전지적 작가 시점의 서술자에 관한 설명이다.

⑤ 시와 관련된 설명으로, 시에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지 않는 문학적이고 함축적인 표현을 자주 사용한다.

10 연두는 마농의 조언을 듣고 엄마에게 편지를 전하기로 결심한다. 편지에는 늘 담아 두었던 사랑하는 마음과 그동안 이렇게 표현하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을 진솔하게 담았을 것이다.

왜 틀렸을까? ① 연두가 엄마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마농은 엄마가 연두를 사랑할 것이라며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라고 조언했다.

② 마농이 연두에게 새로운 일을 제안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③ 연두가 엄마에게 용서를 구할 정도로 잘못된 일이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④ 연두가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11 학교에서 고양이를 평생 돌볼 수는 없으므로, 학생들은 장기적으로 입양할 가정을 찾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청중이 고양이를 위한 장난감이나 식기 기부가 가능한지 질문하자, 학생회는 구체적인 기부 방법을 논의해 안내하기로 했다.

12 토의자들은 고양이를 돌보는 데 필요한 물품과 관련해서, 그 기부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지는 않았다. 토의가 끝나고 학생회에서 논의하여 각 학급에 안내하겠다고 답했다.

13 최지호는 길고양이가 열악한 환경에서 평균 수명이 짧은 점을 근거로 들고, 고하영은 길고양이가 천적이 없는 환경에서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고양이를 입양해야 한다는 의견을 뒷받침했다.

인정 답안 길고양이로 살면 질병에 쉽게 노출되고 신선

한 먹이를 구하기 어려워 평균 수명이 짧아지고, 고양이가 무분별하게 사냥하며 생태계를 혼란스럽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채점 기준

채점 요소	채점 기준	배점
내용	최지호가 제시한 근거를 적절하게 서술함.	3
	고하영이 제시한 근거를 적절하게 서술함.	3
형식	완결된 문장들의 구성으로 서술하지 않음.	-1
	맞춤법에 어긋남(횡수에 상관없이).	-1

14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모여서 토의하면, 다양한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문제를 분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다는 효과가 있다.

15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토의자가 수행하는 역할이다. 사회자는 토의 주제를 제시하며, 참여자들이 공정한 발언 기회를 가지면서 원활하게 토의할 수 있도록 이끄는 역할을 한다.

16 전문 업체가 다회용기를 수거하고 세척하여 다시 음식점에 가져다주는 것은 다회용기 배달의 장점이므로, 다회용기의 배달 건수가 적은 까닭이라고 볼 수 없다.

17 시민 대표는 배달 음식을 주문할 때 '일회용품 안 받기'를 선택하여 일회용 포장 용기 사용을 줄이자고 제안했다. 이 제안의 핵심은 시민 개개인의 실천이므로 '일회용품 안 받기, 지구를 살리는 작은 실천'이라는 표어가 적절하다.

왜 틀렸을까? ① 이는 음식점의 역할을 강조한 표어로, 시민 대표의 제안과는 관련이 없다.

② 이는 일회용품의 해약을 강조하고 있지만, 시민 대표가 해양 오염의 문제점에 관해서 언급하지는 않았다.

③ 이는 배달 음식을 먹고 나서 뒤처리를 깔끔하게 하자는 것으로 시민 대표의 제안과는 관련이 없다.

④ 이는 일회용품 사용의 규제를 강화하자는 것으로 개인의 실천을 강조하는 시민 대표의 제안과는 관련이 없다.

시험대비 중간고사 1회

353-359쪽

01 ⑤ 02 (가)에서 운율을 형성하는 방법은 1, 5연 ‘~더니’의 반복, 2, 6, 8연 어미 ‘~다’의 반복, 1연 ‘핑’의 반복 등이다. 시에 운율을 활용하는 까닭은 낭송할 때 리듬감을 강화할 수 있고 시의 분위기 형성에 도움을 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03 ③ 04 (나)의 ‘별’은 제자리에 있을 때 아름답고 의미 있는 대상을 상징하므로, 시의 주제는 ‘귀하고 아름다운 대상도 그것을 소유하는 순간 그 가치를 잃을 수 있다.’이다. 05 ④ 06 ⑤ 07 ③ 08 ③ 09 ⑤ 10 ③ 11 소년의 태도는 <보기>와 같이 소녀에게 먼저 다가가지 않는 소극적인 태도에서 (가)와 같이 소녀를 업고 도랑을 건너는 적극적인 태도로 변화했다. 12 대추, 호두 13 ② 14 ③ 15 ⑤ 16 ⑤ 17 (1) 직유 (2) 은유 18 자연은 스스로 순환하기 때문에, 자연의 섭리를 존중해야 한다. 19 ③ 20 ② 21 ㉠: 상황 ㉡: 사회·문화적 22 ⑤ 23 ④ 24 ① 25 온라인 대화의 표현 측면의 특징은 ‘ㅇㅇ, ㅋㅋㅋ’ 등 말의 초성자를 사용하는 점이다. 의사소통 방식 측면의 특징은 대화 참여자가 직접 만나지 않아도 소통이 가능하고, 문자나 사진 등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이다. 26 ③ 27 언어폭력 28 ③

01 (가)는 산과 들에 쌓인 눈이 서서히 녹으면서 새싹이 피어나는 생동감을 시각적·청각적 이미지를 활용해 표현하고 있다. 초반부에는 눈이 쌓여 있는 정적인 분위기이지만, 후반부에는 해가 떠오르고 눈이 녹으며 푸른 싹이 돌아나는 활기차고 생동감 넘치는 분위기로 바뀐다.

02 (가)는 동일하거나 비슷한 말, 구절 등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인정 답안 (가)에서 운율을 형성하는 방법은 1, 5연 ‘~더니’의 반복, 2, 6연의 ‘점심 무렵에는’, ‘산과 들’ 등 구절의 반복, 3연 ‘나즉’의 반복 등이다. 시에 운율을 활용하면 시의 정서나 분위기 형성에 도움을 준다.

채점 기준

채점 요소	채점 기준	배점
내용	(가)에서 반복되는 표현을 찾아 3가지 이상 서술함(각 1점).	3
	운율의 효과와 관련지어 서술함.	3
형식	완결된 문장들의 구성으로 서술하지 않음.	-1
	맞춤법에 어긋남(횡수에 상관없이).	-1

03 (가)의 3, 4연에서는 ‘골짜를 / 타고 내리는 물소리만 / 나 즉나즉 // 자장가처럼 들리던’처럼 ‘물소리’를 ‘자장가’에 빗대어 물소리의 작고 고요한 분위기를 강조하고 있다.

왜 틀렸을까?

① 1, 2연에서는 원관념 ‘봄눈’을 보조 관념 ‘이불’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② 2연에서 ‘산과 들’을 이불을 덮고 잠에 드는 인간에 빗대어 서술하는 의인이 활용되었다.

④ 5, 6연에서 시간적 변화는 자연물의 변화를 서술하는 것으로 표현했을 뿐, 직유가 활용되지 않았다.

⑤ 7, 8연에서 의인을 활용해 푸른 싹이 생명력 넘치게 돌아나는 모습을 생생하게 표현했을 뿐, 왈카지껄한 아이들을 표현한 것은 아니다.

04 <보기>의 ‘하늘에 떠 있는 별’과 ‘땅에 떨어진 별’의 차이점을 참고하여 시에 드러난 ‘별’의 상징적 의미와 주제 의식을 이끌어 낸다.

인정 답안

‘별’은 멀리서는 아름다워 보이지만 막상 소유하면 그 가치를 잃을 수 있는 대상을 상징하므로, 이 시의 주제는 ‘귀하고 아름다운 대상은 제자리에 있을 때 의미가 있다.’이다.

채점 기준

채점 요소	채점 기준	배점
내용	‘별’의 상징적 의미를 서술함.	3
	시의 주제 의식을 적절하게 서술함.	3
형식	완결된 한 문장으로 서술하지 않음.	-1
	맞춤법에 어긋남(횡수에 상관없이).	-1

05 (나)의 아이는 ‘별’을 보고 소유하고 싶은 욕구를 느끼며 이를 엄마에게 표현하고 있다. 또 엄마가 보여 준 ‘돌’을 보며 약간의 실망감을 표현하고 있으나 슬픔의 감정을 느끼지는 않는다. <보기>의 말하는 이는 ‘별’을 보며 그리움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06 (다)는 4음보의 운율을 가진 연시조이자 정형시로, 다섯 벗(五友)에 대한 예찬적 태도를 바탕으로 작가가 추구하는 삶의 가치를 표현한다. 은유, 직유는 드러나지 않으며 자연물의 ‘상징적 의미’를 활용해 주제 의식을 강화하고 있다.

07 <제3수>에서 화자는 ‘꽃’, ‘풀’처럼 쉽게 변하는 존재를 거부하고, 변하지 않는 올곧은 ‘바위’와 같은 태도를 지향하고 있다. 따라서 작가가 비판하고자 하는 사람은 ‘꽃’, ‘풀’처럼 자신의 신념을 쉽게 저버리고 변하는 존재이다.

08 (가)는 산, 들, 푸른 싹 등의 자연물을 소재로 하여 ‘봄눈이 내린 풍경의 아름다움과 눈이 녹은 후 돌아난 새싹의 생동감’이라는 주제를 형상화한다. (다)는 물, 바위, 소나무, 대나무, 달 등의 자연물을 통해 ‘추구하는 삶의 태도와 가치’라는 주제를 형상화한다.

왜 틀렸을까? ① (가)와 (다)는 모두 시적 공간의 변화가 드러나지 않는다.

② (가)와 (다)는 모두 애뜻함이나 그리움의 정서가 표현되지 않았다.

④ (가)에는 ‘땡’, ‘나즉’ 등 소리나 모양을 흉내 낸 표현이 나타나 있지만, (다)에는 드러나지 않는다.

⑤ (다)는 ‘꽃, 풀’과 ‘바위’처럼 대조적 소재를 활용하여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가)는 의미상 대조적인 소재는 등장하지 않는다.

09 이 글의 서술자는 소설 밖에 있는 제삼자로, 인물의 행동과 말을 중심으로 관찰하여 서술하고 있다.

10 (가)에서 소년은 소녀가 보이지 않자 개울가를 찾아가거나 학교 곳곳을 다니며 소녀를 찾고 있다. 이를 통해 소년이 소녀를 그리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왜 틀렸을까? ① 소설의 계절적 배경인 ‘가을’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다.

② 소년이 소녀를 업었던 것을 후회하는 내용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④ 소년이 소녀와 개울가에서 만나자는 약속을 한다는 내용은 드러나지 않는다.

⑤ 소나기는 소녀의 비극적 결말의 원인이다. 소년에게 닥친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로 볼 수 없다.

11 <보기>에서 소년은 소녀가 징검다리에서 비키기를 기다리는 것으로 보아 소극적인 태도를 지녔다고 할 수 있다. 시간이 흘러 (가)처럼 소녀를 업어 주거나, 보이지 않는 소녀를 찾아 개울가나 운동장을 살피는 것으로 보아 적극적인 태도로 변화했다고 할 수 있다.

인정 답안 소년의 태도는 소극적인 태도에서 적극적인 태도로 변화했다. / 소년의 태도는 <보기>처럼 소녀에게 먼저 다가가지 않는 소극적인 태도에서, (가)처럼 보이지 않는 소녀를 직접 찾아다니는 적극적인 태도로 변화

했다.

채점 기준

채점 요소	채점 기준	배점
내용	<보기>에 드러난 소년의 태도를 서술함.	2
	(가)에서 변화한 소년의 태도를 서술함.	2
형식	완결된 한 문장으로 서술하지 않음.	-1
	맞춤법에 어긋남(횡수에 상관없이).	-1

12 (나)에서 소녀는 소년을 위해 집에서 탄 대추 한 줌을 건네며 자신의 마음을 표현한다. (다)에서 소년은 소녀를 위해 동네에서 가장 맛있다는 떡볶이 할아버지네 호두를 몰래 따서 선물로 주려고 한다. 따라서 ‘대추’와 ‘호두’는 인물들이 서로를 위하는 마음을 드러내는 소재이다.

13 (다)의 ㉠은 소녀에게 이사 가기 전에 개울가에서 만나자는 말을 미리 하지 못한 자신의 행동을 자책하는 소년의 마음이 드러나는 구절이다.

14 (가)~(나)를 통해 소녀가 도량을 건너면서 소년의 등에 업혔을 때 소녀가 입고 있던 분홍 스웨터에 진흙물이 묻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소녀가 입던 분홍 스웨터는 ‘소년과의 추억’을 상징하며, 소녀가 ㉠과 같은 말을 한 이유는 소년과의 추억을 소중히 여기며 오래 간직하고 싶었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15 (라)에서는 소년의 부모님이 나누는 대화를 통해 소녀네 가족의 이사, 형제들의 죽음을 포함한 소녀의 비극적 상황이 간접적으로 드러난다. 이러한 비극적인 결말을 통해 소년과 소녀의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한 안타까움이 극대화된다.

왜 틀렸을까? ㉠ 이 소설은 소년의 부모님의 대화로 끝나며 주인공인 소년의 서사를 명확하게 서술하지 않고 독자의 상상력에 맡기는 ‘열린 결말’의 구조를 보인다. ‘닫힌 결말’이란 창작자가 결말을 특정한 한 가지로 정하여 선명히 제시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 소녀의 죽음을 알게 된 소년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독자가 느끼는 안타까움을 강화한다.

16 (라)에서 글쓴이는 잠자리 시체를 향해 몰려오는 개미떼를 보았음을 알 수 있다. 죽은 거미에 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17 직유란 ‘같이’, ‘처럼’, ‘듯이’와 같은 말로 연결해 한 대상을 다른 대상에 직접 빗대어 표현하는 방법으로, ‘거미줄은 온통 영롱한 구슬처럼 반짝반짝 빛났습니다.’에는 직

유가 드러난다. 은유란 'A는 B이다.'의 형식으로 한 대상을 다른 대상에 간접적으로 빗대어 표현하는 방법으로, '자연은 정말 위대한 스승입니다.'에는 은유가 드러난다.

18 글쓰이는 거미줄에 걸린 잠자리를 돕기 위해 자연의 섭리에 개입했지만 기대와 다른 결과가 벌어지고, 잠자리의 시체를 향해 개미 떼가 몰려오는 것을 관찰하며 자연의 순환성에 대한 깨달음을 얻는다.

인정 답안 자연은 조화롭게 순환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면 안 된다.

채점 기준

채점 요소	채점 기준	배점
내용	글쓰이가 얻은 깨달음을 적절하게 서술함.	6
형식	제시된 문장 형식을 따르지 않음.	-1
	완결된 한 문장으로 서술하지 않음.	-1
	맞춤법에 어긋남(횡수에 상관없이).	-1

19 <보기>는 의사가 듣는 이를 고려하지 않고 전문어를 사용하여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다. 이를 참고할 때, 전문어 사용의 단점은 집단 외부의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왜 틀렸을까? ① <보기>의 내용은 '지역' 차이와 연관성이 없다.

② 전문어는 집단 내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주는 장점이 있다.

④, ⑤ 전문어는 비속어처럼 상대에게 불쾌감을 주는 어휘, 가벼운 인상을 주는 어휘와는 거리가 멀다.

20 손자가 사용하는 '혼밥, 찌친' 등의 표현을 할머니는 잘 알아듣지 못하고 있다. 이는 세대별로 즐겨 사용하는 어휘가 달라서 언어적 차이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21 상황 맥락은 담화나 글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관련되는 요인으로, 말하는 이, 듣는 이, 시간, 장소 등을 의미한다. 사회·문화적 맥락은 특정 공동체에서 사회적, 문화적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어진 맥락으로, 세대, 성별, 문화, 지역 등의 요인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22 ㉠은 하이퍼링크로, 설문 조사나 보충 자료를 첨부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는 사용자가 게시물 이외의 다른 자료나 누리집으로 접근하여 추가 정보를 얻거나 의견을 표현하도록 돕는다.

23 이 글이 쓰인 매체는 공적인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학교의 구성원이 함께 사용하는 학교 누리집의 인터넷 게시

판이다. 따라서 개인적인 정보보다는 격식을 갖춘 공적인 정보를 게시할 때 사용하기에 적합하다. 친구들이 좋아하는 가수의 무대를 보고 개인적인 감상을 나눌 때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

24 학교 누리집과 <보기>의 사회 관계망 서비스와 같은 상호 작용적 매체는 실시간으로 쌍방향적 소통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제시된 글과 <보기> 모두 게시 글에 댓글을 달며 소통하는 부분에서 쌍방향적 소통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다.

왜 틀렸을까? ④ 졸업생인 '예림이'가 재학생 '아름'의 글을 발견하고 댓글을 남긴 것으로 보아, 사회 관계망 서비스의 게시물은 다수의 사용자에게 공개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25 온라인 대화의 특징을 표현 측면, 의사소통 방식 측면으로 나누어 제시하는 문제이다.

인정 답안 표현 측면의 특징은 감정 표현을 위한 이모티콘을 사용하는 점이다. 의사소통 방식 측면의 특징은 실시간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대화 참여자가 직접 만나지 않아도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채점 기준

채점 요소	채점 기준	배점
내용	온라인 대화의 표현 측면의 특징을 1가지 이상 서술함.	2
	온라인 대화의 의사소통 방식 측면의 특징을 2가지 이상 서술함(각 2점).	4
형식	완결된 문장들의 구성으로 서술하지 않음.	-1
	맞춤법에 어긋남(횡수에 상관없이).	-1

26 '게임 더럽게 못하네', '민폐 찌네' 등은 상대의 실력을 비방하는 언어 표현이다.

27 언어폭력은 신체적(물리적) 폭력과 달리 상대의 성격이나 능력 등을 비방, 조롱, 헐뜯는 것을 의미한다.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스트레스까지 느끼게 할 수 있으므로 언어폭력을 지양하고 상대를 존중하며 말해야 한다.

28 '반팔', '병어리장갑', '결정 장애'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차별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표현이다. 또 '요린이(요리+어린이)'는 어린이를 '부족한 존재, 약한 존재'로 인식하게 만들어 차별적으로 느껴지게 하는 표현이다.

01 ⑤ 02 ① 03 ㉠: 물소리 ㉡: 자장가 04 ㉢에는 은유가 사용되었다. 원관념인 '봄눈'을 보조 관념 '이불'에 빗대어 표현함으로써 하얀 '봄눈'이 산과 들을 덮고 있는 모습을 나타냈다. 05 ①, ② 06 ② 07 ⑤ 08 ④ 09 ② 10 수석(水石), 송죽(松竹), 달 11 '꽃, 풀'과 대조되는 시어는 '바위'이다. '꽃, 풀'은 쉽게 변하는 반면에 바위는 변하지 않는다. 12 의인 13 ③ 14 ⑤ 15 (다)에서는 직유를 활용하여 소녀를 '꽃뭉치'에 비유하고 있다. 16 호두, (얼룩) 수탉 17 ⑤ 18 ⑤ 19 ④ 20 ④ 21 '강추'와 같이 말을 줄여서 표현한다. 'ㅇㅇ', 'ㄱㅅ'과 같이 초성만으로 표현한다. '고고', '스포'와 같이 외국어를 사용한다. 22 ④ 23 과제 제출이라는 소통의 목적, 내용 등 상황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남친', '핵인싸', '갓생 오브 갓생'과 같은 줄임말과 신조어를 사용했다. 24 상대방을 조롱하거나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했다. 상대를 향한 비속어를 사용했다. 다른 사람에 관한 험담에 동조하는 표현을 사용했다. 25 ⑤ 26 ③

01 (가)에서 봄 풍경은 제시되어 있지만, 말하는 이의 감정은 드러나지 않는다.

02 ㉠ '핑 핑', '나죽 나죽', '좌아악', '왁자지껄'과 같은 의성어, 의태어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한다. ㉡ '~더니', '~다'와 같은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한다.

03 3, 4연에서 직유를 활용하여 '물소리'를 '자장가'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원관념인 '물소리'와 보조관념 '자장가'는 모두 고요하고 나직하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04 ㉢는 아침부터 내린 '봄눈'과 빗대어 표현한 것이다. 원관념인 '봄눈'과 보조 관념 '하얀 이불'은 하얗고 무언가를 덮는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처럼 원관념과 보조 관념 사이에 연결어 없이, 'A는 B이다.'의 형태로 비유하는 표현 방법을 은유라고 한다.

인정 답안 ㉢는 은유를 활용하여 하얀 '봄눈(원관념)'이 '이불(보조 관념)'처럼 자연을 뒤덮고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채점 기준

채점 요소	채점 기준	배점
내용	㉢에 사용된 표현 방법(은유)을 제시함.	2
	㉢에 담긴 의미를 서술함.	2
	㉢의 원관념과 보조 관념을 밝혀 서술함.	2
형식	각각 완결된 문장으로 서술하지 않음.	-1
	맞춤법에 어긋남(횡수에 상관없이).	-1

05 ㉠은 '파란 싹들'이 '일어나 있다'라고 표현하며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표현 방법을 의인이라 한다. <보기>에서 의인이 활용된 것은 ㉠과 ㉡이다. ㉠은 사람이 아닌 '햇발'을 '속삭이는' 것으로 표현했으며, ㉡은 사람이 아닌 '샘물'을 마치 사람과 같이 '웃음짓는' 것으로 표현했다.

06 '엄마'와 아이가 나누는 대화라는 형식을 통해 시상을 전개함으로써 친근하고 따뜻한 느낌을 준다.

왜 틀렸을까? ① 화자의 감정을 자연물에 이입하고 있지 않다.

③ '엄마'와 아이의 대화로 시상이 전개되며 시의 분위기는 고조되지 않는다.

④ '엄마'가 아이에게 사람들이 별을 따고 싶어도 꼭 참는다고 이야기해 주지만, 이는 구전 설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설의법에 대한 설명이다.

07 이 시에서 '별'은 하늘에서 반짝이며 아름다운 대상이지만 그것을 갖기 위해 따는 순간 돌이 된다. 이처럼 '별'은 아름답게 빛나 사람들이 동경하거나 소유하고 싶어 하는 대상이지만 소유하는 순간 훼손되거나 그 가치를 잃을 수 있는 대상을 상징한다.

08 '별'은 멀리 있으면서 아름답게 빛나 사람들이 동경하는 대상이다. 반면에 '돌'은 사람들과 가까이 있고 시들어서 생기를 잃어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대상이다. 따라서 '별'과 의미가 대조적인 시어는 '돌'이다.

왜 틀렸을까? ② 쉽게 따 줄 수 있다는 의미를 담아 '별'을 나무 열매에 비유했다.

③ '별'이 존재하는 곳이다.

⑤ '돌'이 존재하는 곳이다.

09 이 시조에는 반복되는 후렴구가 드러나지 않는다.

10 <제 1수>의 초장에서 '수석'과 '송죽'을 언급하고, 중장에서 '달'을 언급한 뒤 다섯 자연물을 벗 삼아 살아가는 만족감을 표현한다.

11 <제3수>에서 '꽃'은 쉬이 지고, '풀'은 푸르다가도 쉽게 누렇게 된다고 했다. 이처럼 '꽃'과 '풀'은 쉽게 변하는 반면 '바위'는 쉽게 변하지 않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꽃, 풀'에 대조되는 시어는 '바위'이다.

인정 답안 이 시의 내용에 따라 쉽게 지는 존재인 '꽃, 풀'과 대조되는 시어는 좀처럼 변하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바위'이다.

채점 기준

채점 요소	채점 기준	배점
내용	'꽃, 풀'과 대조적인 시어(바위)를 제시함.	2
	'바위'의 특성을 서술함.	2
	'꽃, 풀'의 특성을 포함하여 서술함.	2
형식	완결된 문장들의 구성으로 서술하지 않음.	-1
	맞춤법에 어긋남(횡수에 상관없이).	-1

12 작가는 물, 바위, 소나무, 대나무, 달 등의 자연물을 '빗'이라고 하며 사람처럼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에는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표현 방법인 의인이 사용되었다.

13 (나)에서 소녀가 보이지 않는 날이면 소년은 허전함을 느끼며 조약돌을 주무른다. 이를 통해 소년이 소녀에 대한 그리운 감정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왜 틀렸을까? ① 소년과 소녀의 갈등은 심화되거나 악화되지 않는다.

② 소녀에게 소년과 친해지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조약돌을 던지는 행위는 소년에게 거는 장난이라기보다는 소녀에게 계속해서 말을 걸지 않고 가만히 서 있는 소년에 대한 서운함과 답답함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④ 소녀는 소년에게 조약돌을 선물해 주지 않았다.

⑤ 조약돌은 소년과 소녀를 이어주는 매개체이지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거나 서로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변화의 시작이 되지는 못한다.

14 '소나기'는 갑자기 세차게 쏟아지다가 곧 그치는 특성이 있다. 이에 비추어 봤을 때, 이 작품에서 소나기는 갑자기 찾아와 소녀의 죽음으로 짧게 끝나 버린 소년과 소녀의 순수한 사랑을 상징한다.

왜 틀렸을까? ① 소나기가 내린 것을 기점으로 소년과 소녀의 사랑이 끝나게 된다. 소녀는 소나기를 겪은 뒤에 죽기 때문에 성장의 전환점이라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② 소나기를 겪은 뒤에 소년과 소녀의 사랑이 끝나게 되고 소녀는 죽음을 맞이한다는 점에서 절망 뒤의 희망이라는 상징적 의미는 적절하지 않다.

③ 소년과 소녀의 불안한 미래에 관한 이야기는 소설에 등장하지 않는다.

④ 소년과 소녀는 소나기라는 고난과 역경을 함께 헤쳐 나가지만, 소녀의 죽음이라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한다는 점에서 소년과 소녀의 우정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

은 적절하지 않다.

15 (다)에서 '모두가 하나의 큰 꽃뭉음 같다.'라며 소녀를 '꽃뭉음'에 비유하고 있다. 원관념인 '소녀'와 보조 관념인 '꽃뭉음'의 관계를 '~같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직접적이고 명확하게 드러내는 직유가 사용되었다.

인정 답안 (다)의 '모두가 하나의 큰 꽃뭉음 같다.'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 '~같다'의 형식으로 직유를 활용하여 소녀를 '꽃뭉음'에 비유하고 있다.

채점 기준

채점 요소	채점 기준	배점
내용	소녀를 빗대어 표현한 대상(꽃뭉음)을 찾아 3음절로 적음.	2
	사용된 표현 방법(직유)을 서술함.	3
형식	완결된 한 문장으로 서술하지 않음.	-1
	맞춤법에 어긋남(횡수에 상관없이).	-1

16 (바)에서 소년은 근동에서 제일가는 덕쇠 할아버지네 호두를 어서 소녀에게 맛보여야 한다는 생각으로 소녀를 위해 호두를 판다. 또한 (사)에서 아버지가 윤 초시 댁에 닭을 가지고 갈 때 소녀네 집에 더욱 큰 닭을 가져가기를 바란다. 이처럼 '호두'와 '(얼룩) 수탉'에서 소녀를 좋아하는 소년의 마음이 드러난다.

17 (다)에서 소년이 타는 송아지는 농부의 송아지이다. 소년이 어린 송아지를 타서 농부에게 꾸지람을 들을까 걱정하는 모습을 통해 알 수 있다.

왜 틀렸을까? ①, ③ (아)에서 소년의 부모님이 나누는 대화를 통해 소녀에게 남자 형제가 있었지만 일찍 죽었다는 것과, 부유했던 과거와 달리 소녀네 형편이 어려워졌음을 알 수 있다.

② (사)에서 아버지는 알을 낳을 자리를 보던 닭을 안고 윤 초시 댁으로 간다.

④ (라), (마)에서 소년은 소녀에게 무명 접저고리를 벗어 주고, 자신은 비를 맞아도 소녀는 비에 맞지 않게 수숫단 속에 들어서게 하는 장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8 ㉠은 소녀를 위해 소년이 덕쇠 할아버지네 호두를 몰래 따러 갔는데 그 소리가 너무 커서 가슴 졸이는 장면이다. 여기에는 소나기와 관련하여 소년과 소녀의 비극적인 결말을 암시하는 의미가 담겨 있지 않다.

19 (가)에서 의사는 보호자에게 일반적인 어휘를 사용하고 있고, (나)에서는 의사들끼리 전문어를 사용하고 있다. 전문어는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개념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왜 틀렸을까? ① 전문어는 일반적 의미보다는 특수하고 정밀한 개념을 표현한다.

② 전문어는 참신하고 개성 있는 표현이 아닌 구체적이고 정확한 개념을 표현한다.

③ 전문어는 특정 분야의 일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때 사용하는 어휘로, 특정 집단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

④ 전문어는 다른 어휘로 대체하기 어려운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한다.

20 은어는 집단 외의 사람들에게 그 말이 알려지면 은어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지만, 전문어는 그렇지 않다. 비밀 유지가 목적인 은어와 달리 전문어는 특정 분야에서 정밀한 의사소통을 위해 사용하기 때문이다.

21 인터넷 어휘는 ‘강추’, ‘꿀잼’과 같이 말을 줄여서 표현하거나 ‘ㅇㅇ’, ‘ㄱㅈ’과 같이 초성만으로 표현하여 경제성을 높인다. 또한 ‘고고’, ‘스포’, ‘티키타카’와 같이 외국어를 사용한다. ‘알게씀’과 같이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하거나 ‘땡작’과 같이 모양이 비슷한 다른 글자로 표기하여 참신한 표현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인정 답안 ‘알게씀’과 같이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한다. ‘땡작’과 같이 모양이 비슷한 다른 글자를 넣어서 표현한다.

채점 기준

채점 요소	채점 기준	배점
내용	인터넷 어휘의 특성을 2가지 이상 서술함 (각 3점).	6
형식	완결된 문장들의 구성으로 서술하지 않음.	-1
	맞춤법에 어긋남(횡수에 상관없이).	-1

22 기존의 어휘를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세대가 다른 세대의 어휘를 무조건 따르기보다는 서로 다른 세대의 어휘를 존중하며 받아들이는 관용적인 태도를 갖는 것이 더욱 적절하다.

왜 틀렸을까? ① 청소년은 ‘핵이득’, ‘찐친’과 같은 새말을 많이 사용한다.

② 청소년은 ‘언박싱’과 같은 외국어를 자주 사용한다.

③ 기성세대는 ‘막역지우’와 같은 한자어나 사자성어를 많이 사용한다.

⑤ 세대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상대를 고려하여 맥락에 맞는 적절한 어휘를 사용해야 한다.

23 보고서는 공식적인 목적으로 쓰는 글이기 때문에 줄임

말, 신조어 등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소통의 목적, 내용 등의 상황 맥락을 고려하여 적절한 어휘를 사용해야 한다.

인정 답안 보고서라는 공식적인 성격의 글을 제출하는 상황과 읽는 이 등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남친’, ‘핵인싸’, ‘갓생 오브 갓생’과 같은 줄임말과 신조어를 사용했다.

채점 기준

채점 요소	채점 기준	배점
내용	보고서의 내용 중 부적절한 부분(남친, 핵인싸, 갓생 오브 갓생)을 찾아 적음.	3
	보고서를 작성할 때 줄임말, 신조어 사용이 부적절한 이유를 적절하게 서술함.	3
형식	완결된 문장들의 구성으로 서술하지 않음.	-1
	맞춤법에 어긋남(횡수에 상관없이).	-1

24 언어폭력이란 욕설, 헐박, 조롱, 저주, 희롱 등 부정적인 언어 표현으로 상대방에게 모욕, 위협, 수치심 등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의미한다. ‘게임 더럽게 못하네.’와 같이 상대를 향해 비속어를 사용하거나 ‘손으로 하는 거 맞냐? 완전 발킨. ㄸㄸ.’와 같이 상대방을 조롱하거나 비하하는 표현은 언어폭력에 해당한다. 이러한 부정적 언어 표현에 ‘ㅇㅈ(인정).’이라며 다른 사람에 관한 헐담에 동조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 역시 언어폭력에 해당한다.

인정 답안 다른 사람을 조롱하거나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했다. 다른 사람을 향한 비속어를 사용하고, 다른 사람의 헐담에 동조했다.

채점 기준

채점 요소	채점 기준	배점
내용	〈보기〉의 언어 사용의 문제점을 2가지 이상 서술함(각 3점).	6
형식	완결된 문장들의 구성으로 서술하지 않음.	-1
	맞춤법에 어긋남(횡수에 상관없이).	-1

25 (가). (나)는 모두 상호 작용적 매체이다. 상호 작용적 매체는 게시 글에 댓글을 다는 방식으로 소통할 수 있어 시간이나 공간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다. 또한 문자, 사진, 그림 등을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의견과 감정을 다양하게 교환할 수 있다.

왜 틀렸을까? ① 상호 작용적 매체는 다양한 사람들과 동시에 의사소통할 수 있다.

⑤ 상호 작용적 매체는 글을 주고받으며 쌍방향으로 소

통이 이루어진다.

- 26 (가)의 학교 누리집에 올린 게시글의 소통 목적은 체육 대회에 관한 공적인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다. 따라서 격식을 갖춘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반면 (나)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를 활용해 사적인 생각, 의견을 표현하기 때문에 친근하고 보다 자유로운 표현을 사용한다.

01 ④ 02 ① 03 ③ 04 ② 05 ④ 06 ㉞는 '야생 식물의 종자', ㉟는 '일반화', ㊱는 '삭제', ㊲는 '한국의 종자 보관소는 야생 식물의 종자를 보관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가 적절하다. 07 ④ 08 종자 보관소가 열리는 일이 없도록 지구 환경 보존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09 ② 10 ② 11 (나)의 핵심 내용은 '부정적인 감정은 우리를 보호한다.'이다. (다)의 핵심 내용은 '부정적 감정도 자연스럽게 생겼다가 사라져야 마음이 건강할 수 있는데, 우리는 부정적 감정을 잘 다루지 못한다.'이다. 12 ⑤ 13 ③ 14 신분, 계급, 직업 15 ㉠: 표제 ㉡: 전문 ㉢: 본문 16 ④ 17 ② 18 ① 19 (라)에 드러난 주된 갈등은 친구들과 '나' 사이의 외적 갈등이다. 선생님께 수박에 대해 말하지 않고 화장실에서 몰래 먹어야 한다는 친구들의 입장과 선생님께 수박에 대해 솔직히 말해야 한다는 '나'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20 ④ 21 ⑤ 22 ㉢: 외적, ㉣: 내적 23 편지 24 ⑤ 25 ③, ⑤ 26 ㉠에 드러난 사회자의 역할은 토의 주제를 소개하며 순서에 따라 토의를 진행하는 것이다. ㉡에 드러난 사회자의 역할은 토의자들 사이의 갈등과 충돌을 방지하여 원활한 토의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27 ②

- 01 글을 요약할 때에는 읽기 목적, 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요약해야 한다. 설명하는 글은 설명 대상과 그에 대한 주요 정보를 중심으로 요약해야 하며, 주요 사건과 인물 간 관계를 중심으로 요약한다는 것은 주로 산문 문학 작품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 02 제시된 글은 종자 보관소의 개념과 특징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설명문이다.
- 03 (가)의 중심 문장은 마지막 문장인 '종자 보관소는 씨앗과 금고를 합친 말로, 기후 변화, 전쟁, 핵폭발과 같은 지구 차원의 위기로부터 씨앗을 보호하는 저장고를 말한다.'이다. 이 문장에서 '씨앗과 금고를 합친 말'은 세부적인 내용에 해당하므로 요약 시 삭제해야 한다. 또 '기후 변화, 전쟁, 핵폭발'은 지구 차원의 위기에 대한 예시에 해당하므로 요약 시 삭제해야 한다.
- 04 이 글의 '중간 1'은 종자 보관소의 일반적인 특징을 다루고 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이 포함된 문단은 (나), (다), (라)이다. '중간 2'는 한국 종자 보관소의 특징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마), (바), (사)의 내용이 이에 해당한다.
- 05 (라)는 중심 문장이 명확히 드러나 있지 않으며, 노르웨이 종자 보관소와 한국 종자 보관소의 공통된 특징을 다루고 있다. 노르웨이 종자 보관소는 지하 120미터에 지어져 지진, 핵전쟁 등에도 안전하며, 한국 종자 보관소는 지하 46미터에 지어져 해일, 지진 등으로부터 안전하

다는 공통점을 재구성하여 '외부 충격으로부터 안전하게 설계되었다.'라고 요약할 수 있다. 또한 노르웨이 종자 보관소의 영구 동토층이 최적의 온도를 유지하고, 한국 종자 보관소가 건조한 환경을 유지한다는 특징을 재구성하여 '종자를 최적의 상태로 보관한다.'라고 요약할 수 있다.

06 요약의 일반 규칙 중 '일반화'는 하위 정보를 상위 정보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

인정 답안 ㉠에 들어갈 말은 '야생 식물의 종자'이고, ㉡는 '일반화', ㉢는 '삭제', ㉣는 '한국 종자 보관소의 특징은 야생 식물 종자를 보관하고 있다는 것이다.'이다.

채점 기준

채점 요소	채점 기준	배점
내용	㉠에 들어갈 말을 찾아 제시함.	1
	㉡, ㉢에 들어갈 요약 방법을 제시함(각 1점).	2
	㉣에 들어갈 (마)의 중심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여 서술함.	3
형식	완결된 한 문장으로 서술하지 않음.	-1
	맞춤법에 어긋남(횡수에 상관없이).	-1

07 (바)에는 야생 식물 활용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가 포함되어 있다. 예에 해당하는 부분은 삭제하고 중심 문장을 요약하면, '한국의 종자 보관소는 야생 식물이 앞으로 중요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어 야생 식물 종자를 저장한다.'라고 정리할 수 있다.

08 (아)는 종자 보관소의 문이 열리는 것이 곧 지구의 위기를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에는 이를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인정 답안 종자 보관소에 저장된 종자가 밖으로 나오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 / 종자 보관소가 열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한다.

채점 기준

채점 요소	채점 기준	배점
내용	㉠에 들어갈 내용을 서술함(앞의 내용과 연관성이 드러나야 함).	6
형식	제시된 문장 형식을 따르지 않음.	-1
	완결된 한 문장으로 서술하지 않음.	-1
	맞춤법에 어긋남(횡수에 상관없이).	-1

09 이 글은 부정적인 감정을 없애려고만 하지 말고 잘 보살피야 한다고 주장하는 글이다. 글의 내용에 부정적인 감

정의 구체적 종류는 드러나지 않는다.

10 이 글은 일상적인 어휘를 사용하여 부정적인 감정을 다루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11 (나)의 중심 내용은 부정적인 감정은 우리에게 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다)의 중심 내용은 부정적 감정이 자연스럽게 생겼다가 사라져야 마음이 건강할 수 있는데 우리는 부정적 감정을 다루는 방법을 모른다는 것이다.

인정 답안 (나)는 '부정적인 감정은 우리를 보호하는 고마운 감정이다.'로 요약할 수 있다. (다)는 '부정적인 감정도 마음의 건강을 위해 자연스럽게 생겼다가 사라져야 하지만, 우리는 부정적 감정을 잘 다루지 못한다.'로 요약할 수 있다.

채점 기준

채점 요소	채점 기준	배점
내용	(나)의 핵심 내용을 서술함.	3
	(다)의 핵심 내용을 서술함.	3
형식	각각 완결된 한 문장으로 서술하지 않음.	-1
	맞춤법에 어긋남(횡수에 상관없이).	-1

12 정보를 전달하는 글 쓰기의 과정은 '계획하기 → 자료 수집하기 → 내용 조직하기 → 초고 쓰기 → 고쳐 쓰기'이다.

13 (바)의 개요 중 '중간 1'에서는 조선 시대 모자의 역할 중 '상투 위에 모자를 써 예의를 갖추'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한다. 이와 가장 연관성 있는 자료는 (다)이다.

14 (나)와 (라)는 공통적으로 조선의 모자가 신분, 계급, 직업, 나이를 상징하는 사회적 역할을 했다는 정보에 대한 자료이다. 특히 (라)는 구체적인 인물을 통해 유학자, 사대부, 왕의 신분(계급)에 따라 서로 다른 모자를 썼다는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종합할 때 ㉠에 들어갈 내용은 '신분, 계급, 직업'이다.

15 기사문의 구조는 일반적으로 표제, 전문, 본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표제는 기사문의 제목이고, 전문은 기사 본문의 핵심 내용을 간략히 제시한 글이고, 본문은 해당 사건이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서술한 부분이다. 부제는 표제를 보충하는 제목이다.

16 소설의 갈래적 특징을 찾는 문제로, 소설은 현실에 있을 법한 사건을 허구적으로 꾸며 낸 글이다.

왜 틀렸을까? ① 운문의 특징이다.

- ② 기사문과 같이 사실·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한 글의 특징이다.
- ③ 주장하는 글의 특징이다.
- ⑤ 수필의 특징이다.

17 (나)~(라)를 참고할 때 '나'는 수박에 관해 솔직하게 말할지 친구들과의 비밀을 끝까지 지킬지 결정하지 못하며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이므로, 결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18 ㉠은 인정이와 세영이의 의견에 지원이도 동의하고 있음을 표현하는 부분이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서로가 같은 마음을 품은 상황이므로, '마음과 마음으로 서로 뜻이 통함'을 이르는 말인 '이심전심(以心傳心)'과 어울린다.

왜 틀렸을까? ② 일석이조(一石二鳥): 둘 한 개를 던져 새 두 마리를 잡는다는 뜻으로, 동시에 두 가지 이득을 봄을 이르는 말이다.

③ 작심삼일(作心三日): 단단히 먹은 마음이 사흘(3일)을 가지 못한다는 뜻으로, 결심이 굳지 못함을 이르는 말이다.

④ 백발백중(百發百中): 백 번 쏘아 백 번 맞힌다는 뜻으로, 무슨 일이나 틀림없이 잘 들어맞음을 이르는 말이다.

⑤ 청출어람(靑出於藍): 쪽에서 뽑아낸 푸른 물감이 쪽보다 더 푸르다는 뜻으로, 제자나 후배가 스승이나 선배보다 나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19 인정, 세영, 지원은 담임 선생님께 혼나는 걸 두려워하며 냇이서 몰래 화장실에서 수박을 먹자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나'는 담임 선생님께 솔직히 말씀드리는 것이 마음 편할 것 같으며 친구들을 설득하는 입장이다. 이러한 생각 차이로 외적 갈등이 심화되었다.

인정 답안 (라)에서는 친구들과 '나' 사이의 외적 갈등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선생님 몰래 수박을 화장실에서 먹어야 한다는 친구들의 입장과 선생님께 수박에 대해 솔직히 말하자는 '나'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채점 기준

채점 요소	채점 기준	배점
내용	(라)에 드러난 갈등의 유형을 밝힐 것.	2
	친구들의 입장을 제시할 것.	2
	'나'의 입장을 제시할 것.	2
형식	완결된 문장들의 구성으로 서술하지 않음.	-1
	맞춤법에 어긋남(횡수세 상관없이).	-1

20 (바)에서 은비는 '나'에게 수박을 제자리에 다시 가져다 두게 하여 '나'의 고민을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왜 틀렸을까? ①, ② 은비가 '나'를 따뜻하게 위로하거나 지원이와 화해하도록 조언하는 부분은 등장하지 않는다.

③ '나'는 은비와 마주치기 전부터 자신과 친구들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적 갈등을 겪었다.

⑤ '나'와 다른 친구들의 관계 변화에 대한 정보는 드러나지 않는다.

21 희곡의 갈래적 특성에 대한 문제이다. 희곡은 공연을 전제로 창작된 작품으로, 인물의 대사나 행동을 통해 사건의 흐름이나 인물의 심리가 표현되는 갈래이다.

22 외적 갈등은 인물과 인물 사이의 갈등, 인물과 사회와의 갈등, 인물과 운명과의 갈등 등으로 연두와 엄마 사이의 갈등이 이에 속한다. 내적 갈등은 인물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갈등으로, 연두가 혼자 고민하는 갈등이 이에 속한다.

23 연두와 엄마의 갈등, 연두 내면에서의 갈등을 해소하는 실마리가 되는 소재는 '편지'이다. (다)에서 마농의 조언을 들은 연두가 보낸 편지 덕분에 (라)에서 엄마와 연두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며 갈등이 해소된다.

24 토의는 둘 이상의 참여자가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식이나 정보, 사실 등을 교환하는 말하기 방식으로, 객관적인 근거를 준비하여 최선의 해결책을 찾는 과정이다. 논제에 대해 찬성과 반대 측 입장으로 나뉘어 서로를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말하기 방식은 '토론'이다.

25 고하영은 김예준, 이다빈의 의견을 절충하여 학생회 상태 분과 학생들을 중심으로 먹이를 주되, 관심 있는 학생들의 신청을 받아 참여 인원을 늘리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토의자들은 토의가 공적인 말하기 상황임을 고려하여 높임말을 쓰며 서로 예의를 지키고 있다.

26 ㉠의 사회자는 토의 주제를 소개하고, 토의 참석자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토의의 순서에 따라 진행을 하고 있다. ㉡의 사회자는 토의자의 발언이 상대방에게 불쾌함을 줄 수 있음을 경고하여 토의자의 태도를 조정하고, 아직 발언하지 않은 토의자에게 발언 기회를 공정하게 배분하고 있다.

인정 답안 사회자는 ㉠에서는 토의 참여자에 대해 소개

하며 토의 순서에 따라 토의를 진행하고 있다. ㉠에서는 토의자 간 서로 존중하고 협력적인 태도를 갖출 수 있도록 조정하고, 적극적인 의견 교환을 위해 토의자에게 발언 기회를 공정하게 배분하고 있다.

채점 기준

채점 요소	채점 기준	배점
내용	㉠에 드러난 사회자의 역할을 적절하게 서술함.	3
	㉡에 드러난 사회자의 역할을 적절하게 서술함.	3
형식	완결된 문장들의 구성으로 서술하지 않음.	-1
	맞춤법에 어긋남(횡수에 상관없이).	-1

27 토의는 참여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여 공동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적합하다. 교내 디지털 기기 사용을 허용할지 말지 결정하기 위해서는 찬성과 반대 측 입장으로 나뉘어 서로를 설득하는 토론이 필요하다.

01 ① 02 (다), (라), (마) 03 ② 04 ① 05 한국의 종자 보관소는 야생 식물 종자를 보관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06 ⑤ 07 ⑤ 08 필요한 문단은 (나)이며, 요약한 내용은 '부정적인 감정은 우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이다. 09 ⑤ 10 ④ 11 ㉠: (다) ⑥: (마) 12 ④ 13 ③ 14 필요한 문단은 (나), (다)이며, 요약한 내용은 '조선 시대에 모자는 예의를 갖추게 하는 역할을 했으며, 모자를 쓴 사람의 신분과 계급, 직업을 드러내는 역할을 했다.'이다. 15 <보기>의 시각 자료를 (가)에 추가하면 독자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 16 ④ 17 윗글과 같이 도표(막대그래프)를 활용하면 글의 내용을 더 쉽게 전달하고 항목별 차이를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다. 18 ③ 19 수박을 제자리에 가져다 놓으려는 지원이와 이는 잘못된 행동이라 생각하여 수박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것을 망설이는 '나' 사이의 외적 갈등이 드러난다. 20 ⑤ 21 ⑤ 22 ⑥에서는 수박을 혼자 처리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배신감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 수박이 든 가방이 무겁게 느껴졌지만, ㉡에서는 '은비'의 도움 덕분에 외로움과 부담감에서 벗어나 수박을 제자리에 두고 흠뻑 분해했기 때문에 가방이 가볍게 느껴졌을 것이다. 23 ③ 24 엄마는 ㉠을 보고 버럭 화를 내며 불쾌해했지만, ㉡로 산 내복을 받았을 때는 연두를 안아 주며 고마워한다. 이는 연두가 엄마에게 준 편지를 통해 연두의 솔직한 속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25 ④ 26 ③ 27 ④

01 (마) 문단에서 한국의 종자 보관소는 야생 식물의 종자를 보관하는데, 이는 기후 변화에 취약한 많은 야생 식물이 멸종 위기에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를 통해 야생 식물 가운데 기후 변화에 취약한 종이 많음을 짐작할 수 있다.

02 노르웨이와 한국의 종자 보관소에 대한 설명은 (다), (라), (마)에 제시되어 있다. (다)에서 전 세계에 단 두 곳밖에 없는 노르웨이와 한국의 종자 보관소를 소개한 뒤, (라)에서 이 둘의 공통점을 설명하고, (마)에서는 노르웨이와 한국의 종자 보관소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03 (가)는 '지구 차원의 위기로부터 씨앗을 보호하는 저장고'라는 종자 보관소의 개념을 밝히고 있다. (바)는 한국의 종자 보관소가 야생 식물의 종자를 저장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왜 틀렸을까? 종자 보관소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은 (나), (다), (라)에서 드러나고 한국의 종자 보관소의 특징은 (마), (바), (사)에서 드러난다. (아) 문단은 종자 보관소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글쓴이의 당부가 드러난다.

04 <보기>는 종자를 보관하는 기관을 ‘은행’과 ‘금고’에 비유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을 삭제하고 종자 은행과 종자 보관소의 핵심적인 차이점을 남겨 요약했다.

왜 틀렸을까? ② 글의 처음이 아닌 마지막 문장의 내용을 남겼다.

③ 종자 은행과 종자 보관소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요약했다.

④ ‘따라서’ 뒤에는 보통 앞의 내용에 관한 주장이나 결론이 이어지므로 뒷부분에 주목해야 한다.

⑤ ‘반면에’ 뒤에는 앞부분과 서로 다른 내용이 이어지므로 종자 은행과 종자 보관소의 차이점에 주목해야 한다.

05 (마) 문단에서는 한국의 종자 보관소의 특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광릉요강꽃, 세뿔투구꽃, 구상나무’를 ‘야생 식물’로 묶어서 요약하고, 노르웨이의 종자 보관소와의 차이점 등을 삭제하여 (마) 문단의 중심 내용을 ‘한국의 종자 보관소는 야생 식물 종자를 보관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라고 요약하는 것이 적절하다.

인정 답안 한국의 종자 보관소의 특징은 야생 식물의 종자를 보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채점 기준

채점 요소	채점 기준	배점
내용	(마) 문단의 중심 내용을 요약하여 서술함.	6
형식	제시된 분량을 준수하지 않음.	-1
	완결된 한 문장으로 서술하지 않음.	-1
	맞춤법에 어긋남(횡수에 상관없이).	-1

06 부정적인 감정은 빨리 없애야 한다는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오히려 글쓴이는 부정적인 감정을 없애려고 하기보다는 잘 보살펴 주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다.

07 (다)는 부정적인 감정도 다른 감정들처럼 자연스럽게 생겼다가 자연스럽게 사라져야 하는데, 우리는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잘 다루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왜 틀렸을까? ② (다)는 친구가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 위로를 해 주는 것처럼 자신이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에도 위로하고 신경 써 줄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다.

③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 잠을 청하는 것은 부정적인 감정을 위로하기보다는 회피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④ 글쓴이는 감정이 자연스럽게 생겼다가 자연스럽게 사라져야 마음이 건강할 수 있지만 우리는 유독 부정적인 감정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다루기 어려워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08 부정적인 감정의 역할이 드러나는 문단은 (나)이다. (나)에서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한다.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를 보호하는 구체적인 사례는 삭제하여 중심 내용을 요약하는 것이 적절하다.

인정 답안 필요한 문단은 (나)이며, ‘부정적인 감정은 우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요약할 수 있다.

채점 기준

채점 요소	채점 기준	배점
내용	<보기>의 목적에 필요한 문단을 찾아 서술함.	2
	(나)의 내용을 요약하여 서술함.	3
형식	완결된 한 문장으로 서술하지 않음.	-1
	맞춤법에 어긋남(횡수에 상관없이).	-1

09 자료를 수집할 때 활용할 매체에 대한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10 (라)를 활용할 때 ‘조선 시대 모자의 역할과 종류’라는 주제에 적합함을 고려하고 있다.

11 (다)에는 조선 시대에 외국인의 시선을 통해 모자를 많이 쓰는 조선 사람들의 모습이 드러난다. (마)에는 예의를 갖추기 위해 모자를 썼다는 조선 시대 모자의 역할이 드러난다. 따라서 ㉠, ㉡에는 각각 (다), (마)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12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쓰기 위해 수집한 자료들을 글에 모두 활용할 필요가 없다. 수집한 자료 가운데 목적과 주제에 맞는 정보를 선별해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13 (나)에서 ‘조선 시대에 혼인한 남자들은 모두 상투를 틀었다. 그런데 맨상투를 보이면 예의에 어긋난다고 여겼기 때문에 반드시 상투 위에 모자를 갖추어 썼다고 한다.’라고 제시하고 있다.

왜 틀렸을까? ① 조선 시대의 유학자들은 주로 복건을 썼다. 익선관은 왕이 업무를 볼 때 쓰는 모자를 가리킨다. ② 신분이 낮은 역할도 검게 칠한 패랭이를 썼다.

④ 가늘게 쪼갠 대나무를 엮어서 만든 모자는 패랭이이다. 양반은 주로 흑립을 쓰고 신분이 낮은 역할이나 보부상이 패랭이를 썼다.

⑤ 단발령 이후 조선의 복식 문화가 점차 서양식으로 바뀌면서 우리 고유의 조선 모자들은 일상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14 <보기>에서 글을 읽고자 하는 목적은 조선 시대에 모자의 역할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에 필요한 문단은 (나), (다)이다. (나)에서는 조선 시대의 모자가 예의를 갖추게 하는 역할을, (다)에서는 모자를 쓴 사람의 신분, 계급, 직업을 드러내는 역할을 했음이 드러난다. (나)에서 조선 시대에 모자를 쓴 구체적인 이유와 (다)에서 모자가 신분과 계급을 드러낸다는 구체적인 사례는 삭제하고 중심 내용을 요약하는 것이 적절하다.

인정 답안 필요한 문단은 (나)와 (다)이며, '조선 시대에 모자는 예의를 갖추게 하는 역할을 했고, 모자를 쓴 사람의 신분과 계급, 직업을 드러내는 역할을 했다.'라고 요약할 수 있다.

채점 기준

채점 요소	채점 기준	배점
내용	<보기>의 목적에 필요한 문단을 찾아 서술함.	2
	(나), (다)의 내용을 요약함.	3
형식	완결된 한 문장으로 서술하지 않음.	-1
	맞춤법에 어긋남(횡수에 상관없이).	-1

15 글의 첫 부분에 <보기>와 같은 시각(그림) 자료를 추가하여 조선 시대에 모자를 많이 쓰고 다녔다는 것을 보여 주면 독자의 흥미와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인정 답안 <보기>의 그림 자료를 (가)에 추가하면 독자의 시선을 끌어 글 내용을 향한 관심을 높일 수 있다.

채점 기준

채점 요소	채점 기준	배점
내용	자료의 유형을 바르게 제시함.	2
	시각 자료를 추가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서술함.	3
형식	완결된 한 문장으로 서술하지 않음.	-1
	맞춤법에 어긋남(횡수에 상관없이).	-1

16 학교와 학생 측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비판적인 분석은 드러나지 않는다.

17 글에서는 자전거 통학 관련 찬반 설문 결과를 막대그래프로 제시했다. 이는 찬성과 반대의 비율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해 주어 글의 내용을 쉽게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인정 답안 윗글에서는 사진 자료를 활용하여 내용을 더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채점 기준

채점 요소	채점 기준	배점
내용	글에 시각 자료가 활용되었음을 제시함.	1
	시각 자료를 활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서술함.	3
형식	완결된 한 문장으로 서술하지 않음.	-1
	맞춤법에 어긋남(횡수에 상관없이).	-1

18 (다)에서 '나'는 수박을 집에 가져가서 가족들과 나눠 먹을지 고민하며 내적 갈등을 겪고 있다.

왜 틀렸을까? ① 지원이는 수박을 제자리에 돌려놓아야 한다는 민아의 의견에 동조하고 있다.

② 은비는 자신에게 불똥이 튈까 봐 걱정하기보다는 혼자 끄끄거리는 '나'가 안쓰러워 도움을 주었다.

④ 민아는 '나'와 지원이가 싸우는 것을 지켜보다가 슬금 슬금 도망갔다.

⑤ 지원이와 갈등을 겪을 때 '나'는 수박을 제자리에 가져다 놓기를 거부했지만, 은비가 제자리에 가져다 놓을 것을 권유했을 때는 이를 받아들이고 수박을 원래 있던 자리에 두었다.

19 (나)에는 수박 처리 문제를 둘러싼 지원이와 '나'의 외적 갈등이 드러난다. 지원이는 수박을 원래 위치로 가져다 놓기를 바라지만, '나'는 이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수박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것을 망설이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했다.

인정 답안 (나)에서는 외적 갈등이 두드러지는데, 수박을 제자리에 가져다 놓으려는 지원이와 이는 잘못된 행동이라 생각하여 수박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것을 망설이는 '나'가 대립하고 있다.

채점 기준

채점 요소	채점 기준	배점
내용	갈등의 유형(외적 갈등)을 서술함.	2
	갈등을 겪는 인물의 이름과 갈등 내용을 서술함.	3
형식	완결된 한 문장으로 서술하지 않음.	-1
	맞춤법에 어긋남(횡수에 상관없이).	-1

20 ㉠~㉢은 지원이의 성격을 말과 행동을 통해 간접적으로 제시한 반면, ㉣은 지원이의 성격을 '육하기 대장'이라고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21 빈칸에는 몸이 움직여지지 않았다는 의미의 관용 표현이

들어 가야 한다. 따라서 '애착, 미련, 근심, 걱정 따위로 마음이 놓이지 아니하여 선뜻 떠날 수가 없다.'라는 의미의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왜 틀렸을까? ② '발을 들이다'는 '어떤 분야에 처음 종사하거나 첫 경험을 하다.'라는 의미이다.

③ '머리를 굴리다'는 '머리를 써서 해결 방안을 생각해 내다.'라는 의미이다.

④ '손을 쓰다'는 '조치를 취하거나 대책을 세워 행하다.'라는 의미이다.

⑤ '손을 떼다'는 '하던 일을 중도에 그만 두다.'라는 의미이다.

22 '나'는 똑같은 가방임에도 ㉠와 ㉡에서 그 무게를 다르게 느끼고 있다. ㉠에서는 수박을 혼자 처리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배신감으로 인해 마음이 무거워 수박이 든 가방이 더욱 무겁게 느껴졌겠지만, ㉡에서는 은비 덕분에 외로움과 부담감에서 벗어나 홀가분한 마음으로 수박을 제자리에 돌려놓았기 때문에 가방이 가볍게 느껴졌을 것이다.

인정 답안 '나'는 수박 처리 문제를 두고 혼자 남겨져 ㉠에서는 외로움과 부담감에 수박이 든 가방이 더 무겁게 느껴졌을 것이다. 그러나 ㉡에서는 은비의 도움으로 인해 외롭지 않았고, 수박을 돌려놓아서 홀가분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가방이 더욱 가볍게 느껴졌을 것이다.

채점 기준

채점 요소	채점 기준	배점
내용	㉠와 ㉡에서 '나'가 느낀 감정을 서술함.	3
	'나'의 생각이 ㉠에서 ㉡로 바뀐 이유를 서술함.	3
형식	완결된 한 문장으로 서술하지 않음.	-1
	맞춤법에 어긋남(횡수에 상관없이).	-1

23 희곡은 '안은 두 사람의 모습에서 암전'과 같이 조명을 활용해 장면을 구분한다. 또한 '봉투를 열어서 본다.'와 같은 지시문을 통해 인물의 말과 행동을 지시한다.

왜 틀렸을까? ㉠ 희곡에는 서술자가 등장하지 않고 인물의 말과 행동으로 서사가 진행된다. 서술자가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은 소설에 대한 설명이다.

㉡ 희곡은 허구의 이야기로, 연극 상연을 목적으로 한다.

24 엄마는 ㉠를 보고 버럭 화를 내며 불쾌해했지만, ㉡로 산 내복을 받았을 때는 연두를 안아 주며 고마워한다. 이는 연두가 엄마에게 준 편지를 통해 연두의 솔직한 속

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인정 답안 엄마는 ㉠에 버럭 화를 내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연두를 안아 주고 고마워한다. 이는 엄마가 연두가 쓴 편지를 받은 뒤 연두와 서로의 속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채점 기준

채점 요소	채점 기준	배점
내용	㉠와 ㉡에 대한 엄마의 반응을 서술함.	3
	엄마의 반응이 달라진 이유(편지)를 서술함.	3
형식	완결된 문장들의 구성으로 서술하지 않음.	-1
	맞춤법에 어긋남(횡수에 상관없이).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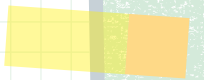
25 토의는 공동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협력적 말하기이다. 다양한 토의 유형이 있는데, 토의자들의 의견 교환 후에 청중과의 질의응답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왜 틀렸을까? ㉠, ㉡ 토론에 대한 설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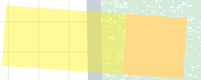
26 ㉠은 의견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없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사회자는 토의자가 의견과 근거를 갖추어 발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7 상대의 의견에서 논리적 허점을 분석하는 것은 토론에 필요한 자세이다. 토의는 공동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상대 의견의 오류나 허점을 분석했는가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메모



메모



메모

